

보험동향 2016년 겨울호

Ⅰ 총괄	전용식 (연구위원)
Ⅰ 경제금융 동향	세계경제 권오경 (연구원) 국내경제 정인영 (연구원) 국내금융 이해은 (연구원)
Ⅰ 국내보험 동향	생명보험 최 원 (선임연구원) 이해은 (연구원) 손해보험 김진억 (수석담당역) 정인영 (연구원)
Ⅰ 해외보험 동향	미 국 이해은 (연구원) 영 국 권오경 (연구원) 일 본 이소양 (연구원) 중 국 이소양 (연구원)

■ 목차

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1
2. 국내경제 / 23
3. 국내금융 / 39

II. 국내보험 동향

1. 보험 총괄 / 49
2. 생명보험 / 55
3. 손해보험 / 70

III. 해외보험 동향

1. 미국 / 93
2. 영국 / 100
3. 일본 / 108
4. 중국 / 120

부록. 통계표 / 130

I.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2016년 3/4분기 세계경제는 일본과 중국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로 지역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회복세를 보임.
- 2016년 3/4분기 세계경제성장률의 경우 미국(3.5%)과 유로지역(1.4%)은 전분기대비 상승(미국 2.1%p, 유로지역 0.2%p)하였으나, 일본(1.3%)과 중국(1.8%)은 소폭 하락(일본 0.5%p, 중국 0.1%p)함.
 - 미국은 민간투자자와 수출, 유로지역은 민간소비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함.
 - 일본은 민간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설비·주택·공공투자 감소, 그리고 중국은 고정 자산투자 감소와 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하락함.
-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2/4분기보다 0.4%p 하락한 0.8%를 기록함.
- 2016년 3/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중국 등 신흥국의 상승세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99.7을 기록함.
 -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 신뢰지수가 개선되며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냄.
- 2016년 3/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분기보다 0.1%p 높아진 3.1%를 기록함.
- 2016년 3/4분기 주요국 국채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 및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와 일본은행(BOJ)의 장기금리 목표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함.
-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상승, 중국의 경기선행지수 개선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세계경제는 미약하지만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3/4분기 세계경제성장률은 일본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로 지역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경제는 민간투자과 수출 개선으로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2016년 2/4분기보다 2.1%p 상승한 3.5%(연율) 성장함(〈표 5〉 참조).
- 유로지역은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1.4%(연율)의 성장률을 기록함(〈표 19〉 참조).
- 일본은 민간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설비·주택·공공투자가 감소하며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1.3%(연율)의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세가 둔화됨(〈표 15〉 참조).
-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수출부진 지속으로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1.8%를 기록함(〈표 10〉 참조).

〈표 1〉 세계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 ¹⁾	3.4	3.2	n.a.						
선진국 ¹⁾	1.9	2.1	2.3		1.6		1.5		n.a.
신흥국 ¹⁾	4.6	4.0	4.3		4.2		4.3		n.a.
미국 ²⁾	2.4	2.6	2.0	2.6	2.0	0.9	0.8	1.4	3.5
유로지역 ³⁾	1.1	2.0	3.2	1.5	1.3	2.0	2.0	1.2	1.4
일본 ⁴⁾	0.0	0.5	6.3	-0.5	0.8	-1.8	2.8	1.8	1.3
중국 ⁵⁾	7.3	6.9	1.6	1.9	1.7	1.6	1.2	1.9	1.8

주: 1)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된 전분기대비 연율임.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 / 유로 지역: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6. 10).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6. 12).

3) Eurostat(2017. 1).

4) 일본 내각부(2016. 12).

5) 중국 국가통계국(2016. 10).

■ 2016년 3/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¹⁾는 중국 등 신흥국의 상승세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99.7을 기록함.

- 미국과 유로지역은 각각 전분기와 동일한 99.1과 100.2를 기록함.
- 일본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99.6으로 집계됨.
- 중국은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98.8을 나타내며 전체 지수의 상승을 주도함.²⁾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¹⁾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 ²⁾	100.2	99.7	100.0	99.9	99.6	99.4	99.3	99.5	99.7
선진국 ³⁾	100.5	100.2	100.5	100.3	100.1	99.9	99.7	99.7	99.8
미국	100.8	100.1	100.6	100.3	99.9	99.4	99.2	99.1	99.1
유로지역	100.3	100.4	100.3	100.4	100.4	100.4	100.4	100.2	100.2
일본	100.6	100.2	100.3	100.4	100.3	100.0	99.8	99.7	99.6
중국	100.5	99.4	99.8	99.7	99.3	98.9	98.6	98.5	98.8

주: 1)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2/4분기보다 0.4%p 하락한 0.8%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1.2%,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9%p 하락한 0.2%를 나타냄.

1) 2007년 1월=100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2) 국제금융센터(2016. 11. 10), “국제금융속보” 참고.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1),2)}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	2.7	2.0	3.2	1.9	1.6	1.3	0.8	1.2	0.8
선진국	2.7	2.8	3.7	3.2	2.4	1.7	1.4	1.0	1.2
신흥국	2.6	0.9	2.2	0.1	0.5	0.8	-0.1	1.3	0.2

주: 1) 선진국은 미국, 일본, 유로지역 19개국과 기타 국가로 구성되고, 신흥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로 구성됨.

2)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6년 3/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높아진 3.1%를 기록하였고, 국제 유가는 하락한 반면 원자재 가격은 상승함.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보다 상승한 1.6%를, 신흥국의 경우는 전분기보다 하락한 4.5%를 나타냄.

○ 두바이 현물지수와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현물지수는 전분기보다 각각 5.8%, 6.2% 하락한 42.8, 44.8이고, CRB 상품지수³⁾는 0.4% 상승한 184.1을 기록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¹⁾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²⁾				
	2015		2016				2015		2016		
	연간	4/4	1/4	2/4	3/4		연간	4/4	1/4	2/4	3/4
세계	3.2	2.6	2.8	3.0	3.1	두바이 현물지수	50.1	38.7	31.1	45.5	42.8
선진국	1.4	0.6	0.8	1.0	1.6	WTI 현물지수	49.3	41.8	35.2	47.8	44.8
신흥국	4.7	4.6	4.8	4.8	4.5	CRB 상품지수 ²⁾	208.1	186.9	165.9	183.4	184.1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6, 10); 한국은행; Bloomberg.

3)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가. 미국경제

- 2016년 3/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투자와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2/4분기보다 2.1%p 상승한 3.5%를 기록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하락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상승함.
 - 민간투자는 기저효과와 설비투자가 증가하며 3.0% 성장하였고 수출은 전분기대비 10% 증가함.

- 2016년 3/4분기 미국의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산업생산 증가율, 설비가동률,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소폭 하락함.
 -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호전됨.
 - 비농업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19만 7,000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4.9%를 유지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1.1%)은 전분기대비 상승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1.4%)은 전분기보다 하락세가 둔화됨.

- 2016년 3/4분기 미국의 국채금리(3년물 0.84%, 10년물 1.56%)는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로 전분기대비 하락함.

〈경제성장〉

- 2016년 3/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투자와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2/4분기보다 2.1%p 상승한 3.5%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3%p 감소한 3.0%를 기록함.
 - 민간투자 증가율의 경우 설비투자 개선이 지속되고 주택투자 증가율도 반등하면서 전분기대비 10.9%p 상승한 3.0%를 기록함.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8.2%p 상승한 10.0%를 나타내며 크게 상승하였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0%p 상승한 2.2%를 기록함.
 - 정부지출은 전분기보다 2.5%p 상승한 0.8%를 기록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2.4	2.6	2.0	2.6	2.0	0.9	0.8	1.4	3.5
민간소비	2.9	3.2	2.4	2.9	2.7	2.3	1.6	4.3	3.0
재화	3.9	4.0	2.7	4.3	4.2	2.1	1.2	7.1	3.5
서비스	2.3	2.8	2.3	2.2	2.0	2.3	1.9	3.0	2.7
민간투자	4.5	5.0	9.9	1.0	2.0	-2.3	-3.3	-7.9	3.0
설비	6.0	2.1	1.3	1.6	3.9	-3.3	-3.4	1.0	1.4
주택	3.5	11.7	13.3	14.9	12.6	11.5	7.8	-7.7	-4.1
수출	4.3	0.1	-5.8	2.9	-2.8	-2.7	-0.7	1.8	10.0
수입	4.4	4.6	5.6	2.9	1.1	0.7	-0.6	0.2	2.2
정부지출	-0.9	1.8	2.6	3.2	1.9	1.0	1.6	-1.7	0.8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합.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6. 12),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소비부문〉

■ 2016년 3/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하락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6%p 하락한 0.9%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5.9p 상승한 100.7을 기록함.

■ 2016년 3/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감소세가 확대되고 주택가격지수는 상승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0%p 하락한 -1.3%를 나타냄.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1.6% 상승한 191.3을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4.1	2.3	-0.7	1.5	1.0	0.2	-0.0	1.5	0.9	0.6	0.1
소비자신뢰지수 ²⁾	86.9	98.0	101.4	96.2	98.3	96.2	96.0	94.8	100.7	100.8	109.4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 ³⁾ (%)	7.8	10.7	-6.7	17.2	0.0	-1.8	1.5	0.7	-1.3	27.4	-18.7
주택가격지수 ⁴⁾	170.7	179.3	173.7	178.8	182.2	182.5	183.2	188.3	191.3	191.8	n.a.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6년 3/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 설비가동률,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⁴⁾는 소폭 하락함.
 -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7%p 상승한 0.5%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한 75.5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대비 하락한 51.2를 나타냄.
 -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0.7p 상승한 124.3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감.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산업생산증가율 ¹⁾ (%)	2.9	0.3	-0.5	-0.7	0.4	-0.8	-0.4	-0.2	0.5	0.1	-0.4
설비가동률 ²⁾	77.6	77.5	77.7	76.6	76.6	75.8	75.4	75.2	75.5	75.4	75.0
ISM제조업PMI	55.6	51.3	53.2	52.6	51.0	48.6	49.8	51.8	51.2	51.9	53.2
경기선행지수 ³⁾	117.2	122.2	120.6	122.2	122.7	123.4	123.0	123.6	124.3	124.6	124.6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07=100

3) 2004=100

자료: Bloomberg.

〈고용 및 물가⁵⁾〉

- 2016년 3/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가 호전됨.
 - 비농업취업자는 63만 6,000명으로 전분기보다 19만 7,000명 증가하였으며,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5만 9,000명으로 전분기보다 8,000명 감소함.
 - 실업률은 4.9%로 3분기 연속 유지함.

4)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5) 물가 지표는 다른 지표와는 달리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전년동기와 비교함.

■ 2016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상승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하락세가 둔화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1.1%를 나타내었고,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와 동일수준인 2.2%를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1.4%를 나타내었고,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1.3%임.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만 명)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업률 ¹⁾	6.2	5.3	5.6	5.4	5.2	5.0	4.9	4.9	4.9	4.9	4.6
포괄적 실업률(u-6) ²⁾	12.0	10.5	11.1	10.7	10.2	9.9	9.8	9.7	9.7	9.5	9.3
비농업취업자 증감 ³⁾	301.5	274.4	57.0	75.2	57.6	84.6	58.7	43.9	63.6	14.2	17.8
실업수당 청구자 수 ⁴⁾	30.8	27.8	28.8	27.8	27.3	27.2	26.9	26.7	25.9	25.8	25.2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1.6	0.1	-0.1	0.0	0.1	0.5	1.1	1.0	1.1	1.6	1.7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1.8	1.8	1.7	1.8	1.8	2.0	2.2	2.2	2.2	2.1	2.1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1.9	-3.3	-3.2	-3.3	-3.3	-3.3	-1.8	-1.9	-1.4	0.6	0.5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⁶⁾	1.9	2.0	1.9	2.1	2.2	1.8	1.6	1.5	1.3	1.6	1.7

주: 1)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국채금리〉

■ 2016년 3/4분기 국채금리는 미 연준(Fed)의 9월 기준금리 동결 발표로 전분기대비 하락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7bp 하락한 0.84%,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8bp 하락한 1.56%임.
- 그러나 2016년 말 기준금리 인상 기대로 10월부터 상승세를 보임.

〈표 9〉 미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국채 3년물	0.88	1.01	0.96	0.96	1.01	1.13	1.03	0.91	0.84	0.98	1.22
국채 10년물	2.53	2.13	1.97	2.15	2.21	2.18	1.92	1.74	1.56	1.75	2.15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나. 중국경제

- 2016년 3/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고정자산투자 감소와 수출 둔화로 2/4분기보다 0.1%p 하락한 1.8%를 기록하였고,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6.7%임.
- 2016년 3/4분기 중국의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10.5%)과 소비자신뢰지수(105.7)는 전분기보다 상승하며 소비심리가 개선됨.
 - 산업생산 증가율은 2/4분기와 동일한 6.1%p를 유지하였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50.2)는 소폭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1.7%)은 전분기보다 하락한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0.8%)은 전분기보다 하락세가 둔화됨.
- 2016년 3/4분기 중국의 국채금리(3년물 2.86%, 10년물 3.24%)는 전분기대비 하락하였고,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수출감소세 지속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상승함.

〈경제성장〉

- 2016년 3/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고정자산투자 감소와 수출 둔화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8%를 나타냄.
 - 고정자산투자는 전분기 증가율보다 1.6%p 하락한 8.1%를 기록하며 둔화세가 지속됨.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6%p 감소한 -6.9%를 나타내며 수출 감소가 지속됨.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5%p 증가한 -4.3%를 나타내며 감소세가 둔화됨.

〈표 10〉 중국의 지출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¹⁾	7.3	6.8	1.6 (7.0)	1.9 (7.0)	1.7 (6.9)	1.6 (6.8)	1.2 (6.7)	1.9 (6.7)	1.8 (6.7)
고정자산투자 ²⁾	16.8	11.4	13.7	11.6	10.8	10.1	10.5	9.7	8.1
수출 ³⁾	5.5	-1.1	9.9	-2.8	-6.3	-5.2	-11.8	-6.3	-6.9
수입 ³⁾	0.9	-14.2	-17.6	-13.3	-14.1	-11.6	-13.5	-6.8	-4.3

주: 1) 전분기대비,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소비부문〉

■ 2016년 3/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하며 소비심리가 개선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증가한 10.5%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4.5p 상승한 105.7을 기록함.

〈표 11〉 중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¹⁾ (%)	12.0	10.6	10.2	10.2	10.7	11.1	10.5	10.2	10.5	10.0	10.8
소비자신뢰지수	104.4	105.9	107.5	107.7	104.7	103.9	102.8	101.2	105.7	107.2	108.6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생산부문〉

- 2016년 3/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2/4분기와 동일하였고, 구매자관리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6.1%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50.2를 나타냄.

〈표 12〉 중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산업생산 증가율 ¹⁾ (%)	8.2	6.0	5.6	6.3	5.9	5.9	6.8	6.1	6.1	6.1	6.2
제조업PMI ²⁾	50.7	49.9	49.9	50.2	49.8	49.7	49.5	50.1	50.2	51.2	51.7

주: 1)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2)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고용⁶⁾ 및 물가〉

-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한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하락세가 둔화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1.7%를 기록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2.1%p 상승한 -0.8%를 기록함.

〈표 13〉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0	1.4	1.2	1.4	1.7	1.5	2.1	2.1	1.7	2.1	2.3
생산자물가 상승률	-1.9	-5.2	-4.6	-4.7	-5.7	-5.9	-4.8	-2.9	-0.8	1.2	3.3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6) 중국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고용지표 발표가 불규칙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함.

〈국채금리 및 환율〉

■ 2016년 3/4분기 국채금리는 전분기대비 하락하였고,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중국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 가능성 재부각, 실물지표 호조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상승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48bp 하락한 2.86%, 국채 10년물 금리는 44bp 하락한 3.24%임.

○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재부각,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2/4분기보다 2.0% 상승한 6,667위안임.

〈표 14〉 중국의 국채금리와 환율 지표

(단위: %, 위안)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국채 3년물	2.61	3.28	3.48	3.20	3.05	3.39	3.90	3.34	2.86	3.03	3.16
국채 10년물	3.90	3.50	3.52	3.48	3.51	3.52	3.83	3.68	3.24	3.22	3.39
위안/달러	6,162	6,284	6,236	6,204	6,302	6,392	6,539	6,533	6,667	6,729	6,846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다. 일본경제

- 2016년 3/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주택·공공투자가 감소하며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0.3%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둔화됨.
- 2016년 3/4분기 일본의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광공업생산 증가율(1.4%)은 전분기보다 0.7%p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1.0%)과 소비자신뢰지수(42.1)는 동반 상승하며 소비심리 개선을 보임.
 - 전년동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7.1%)과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7.3%)은 전분기대비 모두 상승함.
 - 실업률(3.0%)은 전분기에 비해 하락하였고, 유효구인배율(1.37배)은 소폭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0.5%)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6년 3/4분기 일본의 국제금리(3년물 -0.24%, 10년물 -0.12%)는 유럽중앙은행(ECB) 및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동결발표, 그리고 일본중앙은행(BOJ)의 장기금리 목표제 도입 등으로 전분기에 이어 하락함.

〈경제성장〉

- 2016년 3/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설비·주택·공공투자가 감소하며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0.3%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둔화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0.3%를 기록함.
 -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9%p 하락한 2.6%를 나타냄.
 - 주택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전분기대비 1.8%p 감소한 -0.4%를 기록함.
 - 공공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5%p 하락한 0.1%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9%p 상승한 1.6%를 기록함.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5%p 상승하였으나 -0.4%를 기록,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함.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4%p 상승한 0.3%를 나타냄.

〈표 15〉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0.3	1.2	1.5 (6.3)	-0.1 (-0.5)	0.2 (0.8)	-0.4 (-1.8)	0.7 (2.8)	0.5 (1.8)	0.3 (1.3)
민간소비	-0.9	-0.4	0.6	-0.4	0.5	-0.7	0.4	0.2	0.3
설비투자	-4.3	-1.6	3.1	1.2	1.8	-1.2	1.3	3.5	2.6
주택투자	5.2	1.2	1.2	-1.3	0.6	0.4	-0.3	1.4	-0.4
공공투자	0.7	-2.2	-2.0	1.0	-0.5	-2.8	-0.7	1.6	0.1
수출	9.3	8.3	1.6	-3.7	2.1	-0.6	0.8	-1.3	1.6
수입	3.0	0.1	0.3	-2.5	2.5	-0.9	-1.2	-0.9	-0.4
정부지출	0.5	1.6	0.9	0.1	0.4	0.7	1.3	-1.1	0.3

주: 전분기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6. 12).

〈소비 및 생산부문〉

- 2016년 3/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2%p 상승한 1.4%를 나타냄.
- 2016년 3/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동반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9%p 상승한 1.0%를 기록하였음.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0.9p 상승한 42.1로 집계됨.
-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과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모두 상승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2.2%p 높아진 7.1%를 기록함.
 -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6.5%p 상승하며 7.3%를 기록함.

〈표 16〉 일본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¹⁾ (%)	2.1	-1.2	1.1	-1.3	-1.0	0.0	-1.0	0.2	1.4	0.0	1.5
소매판매 증가율 ²⁾ (%)	1.7	-0.4	-1.6	0.1	1.1	-0.2	-2.3	0.1	1.0	2.5	0.2
소비자신뢰지수 ³⁾	39.3	41.3	40.6	41.5	41.0	42.2	41.4	41.2	42.1	42.3	40.9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 ⁴⁾ (%)	-9.0	1.9	-5.4	7.6	6.2	-0.7	5.5	4.9	7.1	13.1	6.7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⁵⁾ (%)	4.0	4.1	4.1	3.0	-6.5	2.6	6.7	-9.2	7.3	4.1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고용 및 물가〉

■ 2016년 3/4분기 실업률은 2/4분기에 비해 하락하였고, 유효구인배율⁷⁾은 소폭 상승함.

○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2%p 감소한 3.0%를 기록함.

○ 또한, 유효구인배율은 1.37로 전분기대비 소폭 높아짐.

■ 2016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한 -0.5%를 나타냄.

○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3%p 하락한 0.2%를 나타냄.

〈표 17〉 일본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업률(%)	3.6	3.4	3.5	3.4	3.4	3.3	3.2	3.2	3.0	3.0	3.1
유효구인배율 ¹⁾ (배)	1.09	1.20	1.15	1.18	1.22	1.25	1.29	1.36	1.37	1.40	1.41
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2.7	0.8	2.3	0.5	0.1	0.3	0.0	-0.4	-0.5	0.1	0.5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²⁾ (%)	1.9	1.0	2.1	0.5	0.8	0.8	0.6	0.5	0.2	0.2	0.1

주: 1) 구인 수 / 구직자 수,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10=100,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7) 유효구인배율 = 구인자 수 / 구직자 수

〈국채금리〉

- 2016년 3/4분기 국채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과 미 연준(Fed)의 기준금리 동결발표, 그리고 일본중앙은행(BOJ)의 장기금리 목표제 도입 등으로 전분기에 이어 하락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와 유사한 -0.24%,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bp 하락한 -0.12%임.

〈표 18〉 일본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국채 3년물	0.08	0.02	0.02	0.01	0.02	0.01	-0.13	-0.24	-0.24	-0.25	-0.18
국채 10년물	0.55	0.36	0.34	0.40	0.39	0.31	0.07	-0.11	-0.12	-0.06	-0.01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참고: 장기금리목표제

- 일본중앙은행(BOJ)은 2016년 9월 21일 「장단기 금리 조작부 양적·질적 금융완화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 with Yield Curve Control)」 정책을 도입함.⁸⁾
 - 일본의 통화정책이 기존 통화량 목표에서 금리 목표제로 전환됨.
- 정책의 핵심은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현재 수준인 0.0%로 유지하는 것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의 장단기 금리 차이인 수익률 곡선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임.
 - 정책금리인 당좌계정 금리를 -0.10%로 유지하면서 단기금리는 -0.10%, 장기금리(국채 10년물)는 0.00%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함.
 - 이와 함께 자산매입 조건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2%를 안정적으로 상회할 때까지 유지”로 명시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자산매입 지속 의지를 표명함.
 - 또한 추가옵션으로 자산매입 확대, 본원통화 증액 가능성을 시사함.

8) 일본중앙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참고.

라. 유로지역⁹⁾경제

- 2016년 3/4분기 유로지역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4분기와 동일한 0.3%를 기록함.
- 2016년 3/4분기 유로지역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경기체감지수(104.3)는 전분기와 동일하고 산업생산 증가율(0.4%)은 2/4분기대비 상승함.
 - 주요국 실업률(6.3%)의 경우 북유럽 국가(6.7%)는 소폭 상승한 반면, 나머지 국가들(동유럽 6.8%, 남유럽 16.3%)은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0.5%)은 모든 유럽 국가(북유럽 1.5%, 동유럽 -0.2%, 남유럽 0.1%)에서 상승함.
- 2016년 3/4분기 유로 주요국 국제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초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라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이어감.

〈경제성장〉

- 2016년 3/4분기 유로지역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독일, 스페인,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전분기와 동일한 0.3%를 기록함(〈표 19〉, 〈표 22〉 참조).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프랑스, 이탈리아는 전분기보다 각각 0.3%p, 0.2%p 상승한 0.2%, 0.3%를 나타낸 반면, 독일, 스페인, 영국은 전분기대비 각각 0.2%p, 0.1%p, 0.2%p 하락한 0.2%, 0.7%, 0.5%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3%를 기록하며 둔화세가 지속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0%p 하락한 0.2%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1%p 하락한 0.1%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수입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대비 1.0%p 하락한 0.2%를 나타냄.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1%p 증가한 0.5%를 기록함.

9) 유로지역(Euro Area) 19개국.

〈표 1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¹⁾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1.2	2.0	0.8 (3.2)	0.4 (1.5)	0.3 (1.3)	0.5 (2.0)	0.5 (2.0)	0.3 (1.2)	0.3 (1.4)
민간소비	0.8	1.8	0.5	0.5	0.4	0.4	0.7	0.2	0.3
고정자본투자	1.4	3.2	1.8	0.0	0.7	1.3	0.4	1.2	0.2
수출	4.5	6.5	2.7	1.1	0.3	0.8	0.2	1.2	0.1
수입	4.9	6.4	2.4	0.8	1.1	1.5	-0.1	1.2	0.2
정부지출	0.6	1.4	0.4	0.4	0.4	0.6	0.6	0.4	0.5

주: 1) 전분기대비이며,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7, 1).

〈소비 및 생산부문〉

- 2016년 3/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04.3으로 전분기와 동일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0.4%를 나타냄.
 -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3/4분기 -8.2로 부정적인 경기전망이 지속되고 있음.
- 2016년 3/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6%p 상승한 0.4%를 나타냄.

〈표 20〉 유로지역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¹⁾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유로지역 ESI ²⁾	101.5	104.2	102.5	103.7	104.5	106.2	104.0	104.3	104.3	106.4	106.5
소매판매 증가율 ³⁾ (%)	1.4	2.7	1.0	0.7	0.6	0.2	0.8	0.2	0.4	1.1	n.a.
소비자신뢰지수 ⁴⁾	-10.2	-6.2	-6.2	-5.2	-7.0	-6.4	-8.3	-7.8	-8.2	-8.0	-6.2
산업생산 증가율 ⁵⁾ (%)	0.9	2.0	1.4	0.1	0.4	0.1	0.8	-0.2	0.4	-0.1	n.a.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 + 서비스업(30%) + 소비자 신뢰(20%) + 건설업(5%) + 소매거래(5%)
3) 계절조정 2005=100
4)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5) 비계절조정 2005=100

자료: Eurostat; Bloomberg.

〈고용 및 물가¹⁰⁾〉

- 2016년 3/4분기 북유럽 국가의 실업률은 소폭 상승한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유사한 수준을 보임.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6.3%를 유지하였고, 북유럽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6.7%를 기록함.
 - 동유럽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6.8%를 나타내었고, 남유럽 실업률도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16.3%를 기록함.

- 2016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모든 유럽 국가에서 상승함.
 -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0.5%를, 북유럽은 전분기보다 0.3%p 높아진 1.5%를 나타냄.
 - 또한, 동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0.2%를, 남유럽의 경우도 0.3%p 상승한 0.1%를 기록함.

〈표 2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⁵⁾			
	주요국 ¹⁾	북유럽 ²⁾	동유럽 ³⁾	남유럽 ⁴⁾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6년 1/4	6.5	6.7	7.4	17.0	0.2	1.1	-0.7	-0.1
2016년 2/4	6.3	6.6	7.1	16.6	0.1	1.2	-0.7	-0.2
2016년 3/4	6.3	6.7	6.8	16.3	0.5	1.5	-0.2	0.1

-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7. 1).

10) 유로지역 19개국 분류가 아닌 유럽 권역별 분류 데이터를 사용함.

〈표 22〉 주요 유로지역 국가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독일	실질 GDP	1.6	1.7	0.2	0.5	0.2	0.4	0.7	0.4	0.2
	민간소비	0.9	2.0	0.4	0.4	0.6	0.4	0.6	0.2	0.4
	고정자본투자	3.4	1.7	0.5	0.1	0.1	1.6	1.6	-1.6	0.0
	수출	4.1	5.2	1.0	1.6	0.0	-0.7	1.4	1.2	-0.4
	수입	4.0	5.5	1.4	0.4	1.1	0.6	1.5	0.1	0.2
프랑스	실질 GDP	0.6	1.3	0.6	0.0	0.3	0.3	0.6	-0.1	0.2
	민간소비	0.7	1.5	0.5	0.1	0.6	0.0	1.2	0.0	0.1
	고정자본투자	-0.3	1.3	0.5	-0.2	0.9	1.2	1.2	0.0	0.2
	수출	3.3	6.1	1.8	1.6	-0.4	0.5	-0.5	0.1	0.7
	수입	4.7	6.6	2.1	0.3	1.4	2.7	0.4	-1.5	2.5
이탈리아	실질 GDP	0.1	0.7	0.3	0.3	0.1	0.2	0.4	0.1	0.3
	민간소비	0.4	1.5	0.2	0.7	0.6	0.4	0.4	0.2	0.1
	고정자본투자	-3.0	1.3	0.9	0.2	0.4	0.9	0.6	0.0	0.8
	수출	2.9	4.3	1.6	1.2	-1.4	1.5	-1.2	2.1	0.1
	수입	3.3	6.0	3.4	1.3	0.0	1.4	-1.1	1.3	0.7
스페인	실질 GDP	1.4	3.2	1.0	0.8	0.9	0.8	0.8	0.8	0.7
	민간소비	1.6	2.9	0.5	0.9	1.0	0.7	0.8	0.7	0.6
	고정자본투자	3.8	6.0	2.4	2.3	0.7	0.9	0.9	1.1	0.1
	수출	4.2	4.9	1.3	0.9	2.2	0.5	0.5	3.1	-1.3
	수입	6.5	5.6	1.3	1.7	2.3	0.6	0.1	2.0	-1.8
영국	실질 GDP	3.1	2.2	0.3	0.5	0.3	0.7	0.4	0.7	0.5
	민간소비	2.2	2.5	0.8	0.7	0.9	0.4	0.7	0.9	0.6
	고정자본투자	6.7	3.4	1.7	0.9	0.9	-1.3	-0.1	1.6	1.1
	수출	1.5	4.5	2.2	-1.1	-0.3	4.3	0.1	-1.0	0.7
	수입	2.5	5.4	3.4	-1.7	0.5	2.6	0.2	1.3	-1.5

주: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2017. 1).

〈국채금리〉

■ 2016년 3/4분기 평균 국채금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초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라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이어감.

○ 독일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3bp 하락한 -0.66%,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9bp 하락한 -0.07%를 기록함.

- 국채 10년물 금리는 도이체뱅크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하락함.¹¹⁾

○ 영국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41bp 하락한 0.16%,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65bp 하락한 0.72%임.

〈표 23〉 유로지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독일국채 3년물	0.09	-0.20	-0.17	-0.18	-0.18	-0.29	-0.44	-0.53	-0.66	-0.65	-0.64
독일국채 10년물	1.23	0.53	0.35	0.52	0.70	0.56	0.32	0.12	-0.07	0.04	0.24
영국국채 3년물	1.03	0.85	0.72	0.93	0.93	0.80	0.60	0.57	0.16	0.23	0.27
영국국채 10년물	2.51	1.82	1.64	1.86	1.91	1.87	1.56	1.37	0.72	1.04	1.34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11) KDB산업은행(2016. 10), “월간KDB 국제금융”.

2. 국내경제

- 2016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6%, 전분기대비 0.6% 성장에 그침.
 - 건설투자(11.4%)가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민간소비(2.7%)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투자(-4.2%) 부진도 심화됨에 따라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함.

- 2016년 3/4분기 경제동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며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설비투자는 대내외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4.2% 감소한 반면, 건설투자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주택투자 활성화로 인해 11.4% 증가함.
 - 산업생산은 자동차업계 파업 등으로 광공업 생산 부진(0.6%)이 이어졌으나, 서비스업(3.6%)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함.
 - 총취업자 수는 수출 부진,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2% 증가에 그쳤고,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61.1%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3.6%를 나타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8%에 그쳤으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대비 0.7 상승한 101.5를 기록하며 기준치(100)를 소폭 상회함.
 - 대외거래의 경우 자동차업계 파업, 신형 스마트폰 결함보상 등에 따른 수출 차질에도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율(-5.0%)은 전분기(-6.7%)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고, 수입(-5.2%)도 유가상승 등으로 전분기(-10.2%)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되어, 무역수지는 195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하였고,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0.7% 증가함.

- 2016년 3/4분기 경기동향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분기대비 0.3 상승한 100.7을 기록하였으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대비 0.7 상승한 101.0을 기록함.

- 2016년 3/4분기 국내경제는 미국 실행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국내정치상황 급변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산재한 상황에서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수출 부진이 지속되며 경기하방압력이 증대됨.

가. 경제성장

■ 2016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 성장세와 수출 부진 완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2.6%, 전분기대비 0.6% 성장에 그침.

- 민간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¹²⁾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하여 2.7% 증가에 그침 (〈표 24〉 참조).
- 설비투자 역시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한 운송장비 투자의 감소로 인해 4.2% 감소함 (〈표 25〉 참조).
-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건설기성 중 건축) 중심으로 11.4% 증가함(〈표 25〉 참조).
- 지식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투자를 중심으로 3.1% 증가함.¹³⁾
-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2.7% 증가하였고, 수입은 기계류, 거주자 국외소비 등을 중심으로 4.9% 증가함.¹⁴⁾

〈표 24〉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실질 GDP	2.7 (0.3)	3.3	2.4 (0.8)	2.2 (0.4)	2.8 (1.2)	3.1 (0.7)	2.6	2.8 (0.5)	3.2 (0.8)	2.6 (0.6)
민간소비	1.1	1.7	1.5	1.7	2.2	3.3	2.2	2.2	3.3	2.7
설비투자	4.4	6.0	5.8	5.1	6.7	3.9	5.3	-4.5	-2.7	-4.2
건설투자	-1.7	1.1	0.9	1.0	5.6	7.5	3.9	9.6	10.8	11.4
지식생산물투자	1.7	5.4	2.0	0.9	1.1	2.1	1.5	0.9	2.9	3.1
수출	0.7	2.0	0.5	-0.4	0.5	2.5	0.8	0.7	1.9	2.7
수입	-0.4	1.5	2.1	1.6	3.1	6.1	3.2	1.9	3.3	4.9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12) 정부는 소비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15년 8월 27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30% 인하(세율: 5% → 3.5%)함.

13)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12. 2), “2016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14) 한국은행 보도자료(2016. 12. 2), “2016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나. 경제동향

〈소비 및 투자〉

- 2016년 3/4분기 소매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정책효과가 약화되며 전년동기대비 3.6% 증가에 그침.
 - 10월과 11월 소매판매는 코리아세일페스타¹⁵⁾ 등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¹⁶⁾ 소비심리 위축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2.5%, 3.2% 증가에 그침.
 - 내구재 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라 승용차 판매 감소와 신형 스마트폰 결합보상¹⁷⁾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에 그쳐 전분기(11.1%)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0.7%, 1.8% 증가에 그침.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도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1.7%, 1.0% 증가에 그침.
 -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폭염, 이른 추석¹⁸⁾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4.0%, 5.0% 증가함.

〈표 25〉 소비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²⁾	10월 ²⁾	11월 ²⁾
소매판매	3.4	3.6	6.1	3.9	4.6	6.2	3.6	2.5	3.2
내구재	8.9	7.7	16.1	10.2	5.6	11.1	1.3	0.7	1.8
* 승용차	18.8	17.5	29.8	21.3	8.9	17.0	-9.7	-3.1	0.9
준내구재	-1.3	-3.4	1.5	-1.2	2.7	4.6	3.8	1.7	1.0
비내구재	2.4	4.0	3.0	2.5	4.9	4.2	4.9	4.0	5.0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5)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3일간 진행된 대규모 할인행사.

16) 미국 新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금리인상 가속화 가능성, 국내 국정혼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1. 30), '16. 10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2. 29), '16. 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1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9. 22), “국표원,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10. 11), “새 갤럭시 노트7에 대한 사용중지·교환중지·판매중지 권고”.

18) '15. 9. 26~29 → '16. 9. 14~16

■ 2016년 3/4분기 설비투자는 수출 부진 및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¹⁹⁾ 전년동기대비 4.2% 감소함.

○ 2016년 3/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자동차 등 운송장비 부문 투자 위축으로 전년동기대비 4.9% 하락함.

- 10월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 투자 부진이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4.2% 하락함.
- 반면 11월 설비투자지수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와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부문 투자²⁰⁾가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0.2% 상승함.²¹⁾

○ 2016년 3/4분기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²²⁾는 전년동기대비 1.2% 증가에 그쳐 당분간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임.

- 10월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업 등 공공부문 및 운송장비 등 민간부문 모두에서 줄어들어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함.²³⁾
- 11월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자 및 영상음향통신업 등 민간부문에서 증가하며 전년동월대비 17.1% 증가함.²⁴⁾

〈표 26〉 투자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연간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²⁾	10월 ²⁾
설비투자	5.1	6.7	3.9	5.3	-4.5	-2.7	-4.2		
설비투자지수	4.5	10.2	1.6	7.8	-7.1	0.8	-4.9	-4.2	10.2
기계류	3.9	5.3	-7.8	1.9	-12.7	-7.5	0.9	2.4	10.9
운송장비	6.5	22.2	26.5	24.6	9.4	21.0	-16.7	-16.7	8.2
국내기계수주 ³⁾	14.9	-27.1	6.9	1.6	0.9	-2.9	1.2	-11.7	17.1
건설투자	1.0	5.6	7.5	3.9	9.6	10.8	11.4		
건설기성(불변)	-3.8	6.2	8.0	6.3	14.8	19.2	17.1	17.8	25.9
건축	-3.5	10.8	16.3	22.7	22.1	26.5	22.9	24.4	31.5
토목	-4.3	-1.9	-4.5	-14.6	2.0	6.4	5.7	3.6	13.8
국내건설수주(경상)	49.1	50.4	40.1	40.9	13.8	-6.3	2.7	42.9	-9.7
건축	49.3	42.5	37.8	61.0	13.1	2.5	4.2	34.5	4.1
토목	48.3	83.6	45.9	3.2	16.0	-32.8	-2.3	84.0	-47.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9) 국회예산정책처(2016. 10), “NABO 경제동향&이슈”.

20) 반도체 등 IT 업종의 설비 도입 확대 등(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2. 29), '16. 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1) 통계청 보도자료(2016. 12. 29), “2016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2) 기계수주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민간수요(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수요로 분류됨.

23) 통계청 보도자료(2016. 11. 30), “2016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4) 통계청 보도자료(2016. 12. 29), “2016년 11월 산업활동동향”.

- 2016년 3/4분기 건설투자는 저금리로 증가한 시중 유동성의 주택시장 유입 지속과 이로 인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주택투자 활성화로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함.²⁵⁾
 - 건설기성²⁶⁾은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17.1% 증가함.
 - 10월과 11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동월대비 각각 17.8%, 25.9% 증가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과 토목 부문 모두 개선되어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함.
 - 10월 국내건설수주는 건축과 토목 부문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42.9% 증가함.
 - 한편 11월 국내건설수주는 정부의 주택시장규제²⁷⁾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²⁸⁾ 등의 영향으로 9.7% 감소함.

〈산업생산〉

- 2016년 3/4분기 산업생산의 경우 광공업이 수출 부진 및 자동차업계 파업 등으로 부진을 이어간 반면, 서비스업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함.
 - 2016년 3/4분기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업계 파업에 따른 제조업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에 그침.
 - 10월 광공업 생산은 ICT 부문 생산 감소²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함.
 - 한편 11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업계 파업 종료³⁰⁾ 및 신형 스마트폰 단종의 영향이 약화되며³¹⁾ 전년동월대비 4.8% 증가로 전환함.

25) 국회예산정책처(2016. 10), “NABO 경제동향&이슈”.

26)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 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용어설명(<http://www.kostat.go.kr>)).

2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 11. 3),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28) 2016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2.3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6.0% 감소함(국회예산정책처(2016. 11), “NABO 경제동향&이슈”).

29) 삼성의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2016. 10. 10).

30) 현대자동차 노조는 2016년 10월 17일 단체교섭 관련 파업을 종료하고 생산을 재개함.

3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2. 29), “16. 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 2016년 3/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감.
 - 한편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및 보험업(6.5%)이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운수업(-3.7%) 등에서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2.2% 증가에 그침.
 - 11월 서비스업 생산도 금융 및 보험업(7.2%)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숙박 및 음식점업(-3.7%) 등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에 그침.

〈표 27〉 산업 생산 관련 지표¹⁾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²⁾	10월 ²⁾	11월 ²⁾
전산업 생산 ³⁾	1.0	2.1	2.4	1.7	2.3	3.6	3.2	1.9	4.6
광공업	-1.3	-0.1	-0.1	-0.6	-0.2	1.0	0.6	-1.3	4.8
제조업	-1.3	-0.3	0.1	-0.6	-0.4	1.1	0.7	-1.3	5.0
자동차	2.6	4.7	1.4	1.0	-0.2	-3.4	-10.6	-8.2	6.2
ICT	-2.2	2.4	6.6	1.3	-0.2	6.8	8.2	-0.3	6.3
서비스업	2.7	2.9	3.3	2.8	2.8	3.7	3.6	2.2	2.5
도매 및 소매업	0.9	1.4	4.2	1.7	2.8	4.2	2.8	1.6	2.4
운수업	-0.3	0.7	1.1	1.4	2.1	4.2	3.5	-3.7	-0.6
숙박 및 음식점업	-2.8	-3.5	-1.3	-2.0	-0.8	1.9	0.9	-2.3	-3.7
금융 및 보험업	11.4	10.1	6.2	9.0	6.5	4.3	6.5	6.5	7.2
부동산 및 임대업	10.2	11.1	5.9	8.1	3.3	-0.5	4.1	4.1	5.4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고용 및 물가〉

■ 2016년 3/4분기 총취업자 수는 수출 부진 및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제조업 인력수요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며, 고용률은 61.1%, 실업률은 3.6%를 기록함.

○ 10월과 11월 총취업자 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1%, 1.3% 증가함.

- 2016년 3/4분기 청년취업자 수의 경우 구직활동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하였고, 10월에도 0.8% 증가하였으나, 11월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39개월 만에 0.5% 감소로 전환됨.³²⁾

-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61.1%를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동일한 비율을 이어감.
-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3.6%를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각각 3.4%, 3.1%를 나타냄.
 - 청년실업률의 경우 전분기대비 1.0%p 하락한 9.3%를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각각 8.5%, 8.2%를 나타냄.

■ 2016년 3/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는 수출 부진 및 구조조정의 여파로 제조업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농림어업 고용 감소세가 이어졌고,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기저효과 등으로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됨.³²⁾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고령화 등 비경기적 요인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며 전년동기대비 5.4% 감소한데 이어 10월에도 전년동월대비 3.1% 감소하였으나, 11월에는 양호한 기상 여건, 기저효과 등³⁴⁾으로 32개월 만에 2.3% 증가함.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³⁵⁾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2.4%, 2.1% 감소하며 전반적인 고용 개선세를 제약함.³⁶⁾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생산이 완만한 개선세³⁷⁾를 이어가며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2.1%, 2.0% 증가하며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함.

32) 기획재정부(2016. 11. 9), '16. 10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2016. 12. 14), '16. 11월 고용동향.

33) 한국개발연구원(2016. 12. 7), KDI 경제전망, 2016 하반기.

34) 기획재정부(2016. 12. 14), '16. 11월 고용동향.

35) 제조업 포함.

36) 기획재정부(2016. 11. 9), '16. 10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2016. 12. 14), '16. 11월 고용동향.

37) <표 28> 참조.

〈표 28〉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총취업자 ¹⁾	1.2	1.2	1.5	1.3	1.1	1.1	1.2	1.1	1.3
청년취업자 ¹⁾	2.3	1.3	2.6	1.8	1.0	2.1	1.5	0.8	-0.5
고용률 ²⁾	60.7	60.9	60.5	60.3	59.1	60.8	61.1	61.1	61.1
실업률 ³⁾	3.8	3.4	3.1	3.6	4.3	3.8	3.6	3.4	3.1
청년 ⁴⁾ 실업률 ³⁾	9.9	8.4	8.0	9.2	11.3	10.3	9.3	8.5	8.2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7.7	-6.8	-7.6	-7.4	-4.9	-5.7	-5.4	-3.1	2.3
광공업	3.3	3.8	4.2	3.6	3.0	1.0	-1.5	-2.4	-2.1
제조업	3.4	3.8	4.0	3.6	2.9	0.8	-1.6	-2.5	-2.2
SOC ⁵⁾ 및 기타서비스업	1.5	1.3	1.5	1.4	1.1	1.7	2.3	2.1	2.0
건설업	2.4	0.6	-1.0	1.5	-0.5	-1.5	2.1	3.2	6.0
도·소매, 음식, 숙박	2.2	0.8	-0.6	1.2	-0.9	0.7	1.8	1.9	0.9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1	1.7	2.3	0.7	1.5	0.2	0.6	0.1	0.7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3	1.6	3.1	1.8	2.5	3.4	3.3	2.7	2.3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6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저유가 등 공급 측 하방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시적인 전기료 인하 등과 같은 제도적 영향으로 인하여³⁸⁾ 전년동기대비 0.8% 상승에 그치며 물가 기초를 이어갔으나, 10월과 11월에는 석유류 하락폭 축소에 힘입어 각각 전년동월대비 1.3%씩 상승함.

○ 2016년 3/4분기 상품물가는 여름철 한시적 전기료 인하의 영향으로 0.6% 하락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0.7%씩 상승함.

- 10월 중 상품물가는 전기요금 한시 인하효과가 소멸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하락폭이 축소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함.³⁹⁾

38) 한국은행(2016. 10), 통화신용정책보고서.

3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1. 1), "2016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 11월 중 상품물가는 석유류 하락폭 축소가 이어졌으나 가을 정기세일로 인해 내구재와 가공식품 가격 등이 일시 하락하며 전년동월대비 0.7% 상승에 그침.⁴⁰⁾

○ 2016년 3/4분기 서비스물가는 2015년 대중교통 요금인상효과가 소멸함에 따라 1.9% 상승에 그쳤으며,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8%씩 상승함.

■ 2016년 3/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대비 0.7 상승한 101.5를 나타내며 기준치(100)를 상회하였으나, 10월에는 101.9, 11월에는 95.8을 기록하며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남.

〈표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¹⁾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소비자심리지수 ²⁾	102.4	101.5	104.3	102.6	99.3	99.8	101.5	101.9	95.8	
소비자물가 상승률	0.5	0.7	1.1	0.7	1.0	0.9	0.8	1.3	1.3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0.8	-0.9	-0.4	2.0	-0.6	-0.9	-0.6	0.7	0.7	
농축수산물	2.1	2.9	2.6	-0.2	4.5	2.0	3.8	8.1	7.9	
공업제품	-0.3	-0.2	0.0	-7.4	-0.6	-0.6	-0.3	0.3	0.1	
전기·수도·가스	-8.0	-10.8	-7.1	1.8	-8.0	-7.0	-10.2	-8.2	-6.4	
서비스	1.6	2.0	2.2	2.5	2.4	2.2	1.9	1.8	1.8	
집세	2.4	2.7	2.8	1.2	2.9	2.6	2.5	2.4	2.3	
공공서비스	0.5	1.8	2.0	1.9	2.2	2.2	1.0	0.8	0.8	
개인서비스	1.9	1.8	2.2	0.0	2.3	2.1	2.2	2.0	2.1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15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4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2. 1), “2016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대외거래〉

■ 2016년 3/4분기 수출은 자동차업계 파업, 신형 스마트폰 결함보상 등에 따라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력품목이 회복세를 보이며⁴¹⁾ 전년동기대비 5.0% 감소(1,219억 달러)에 그쳤고, 수입이 5.2% 감소(1,024억 달러)하여 무역수지는 195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수출의 경우, 식료 및 직접소비재(10.9%)와 경공업제품(5.9%)이 상승한 가운데, 원료 및 연료(-16.0%), 중화학 공업품(-5.0%)의 감소폭이 축소됨.

- 10월 전년동월대비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 자동차업계 파업, 신형 스마트폰 단종 등에도 불구하고 3.2% 감소에 그침.⁴²⁾

- 11월 수출은 선박, 무선통신기기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력품목 단가상승으로 인한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됨.⁴³⁾

○ 수입의 경우, 소비재가 증가세(0.5%)를 이어갔으며, 원자재는 유가상승으로 감소폭(-8.8%)이 줄어들었으며, 자본재(12.8%)는 증가율이 상승 전환함.

- 10월 수입은 비중이 큰 원자재와 자본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함.

- 11월 수입은 유가상승,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입 증가 등으로 원자재와 자본재가 증가 전환하며 전년동월대비 9.3% 증가함.⁴⁴⁾

41)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차부품, 컴퓨터 등(산업통상자원부(2016. 10. 1), “2016년 9월 수출입 동향”).

4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11. 1), “2016년 10월 수출입 동향”.

4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6. 12. 1), “2016년 11월 수출입 동향”.

44) 국회예산정책처(2016.12), “NABO 경제동향&이슈”.

〈표 30〉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0.5	-4.4	-1.3	-2.1	5.0	5.3	10.9	8.8	23.2
	원료 및 연료	-28.2	-33.2	-36.0	-33.3	-31.3	-20.5	-16.0	-3.7	2.4
	경공업 제품	-9.5	-10.0	-8.6	-8.4	-5.5	-0.8	5.9	-4.5	11.6
	중화학 공업품	-4.6	-6.4	-9.8	-4.9	-13.0	-6.1	-5.0	-3.2	1.6
	전체	-7.3	-9.5	-12.0	-8.0	-13.6	-6.7	-5.0	-3.2	2.5
	금액	1,351	1,282	1,300	5,268	1,152	1,260	1,219	420	454
수입	소비재	2.2	-1.8	0.5	2.1	-2.6	3.5	0.5	1.4	10.9
	원자재	-26.5	-32.7	-29.8	-29.6	-25.3	-18.7	-8.8	-6.2	11.1
	자본재	-0.9	3.7	-4.0	1.3	2.6	-22.5	12.8	-5.5	6.2
	전체	-15.6	-18.7	-17.8	-16.9	-16.1	-10.2	-5.2	-4.8	9.3
	금액	1,105	1,080	1,063	4,365	938	993	1,024	350	372
무역수지		246.1	202.8	237.4	902.6	213.8	267.8	195.1	69.6	82.0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6년 3/4분기 지역별 수출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수입 역시 대다수 지역에서 감소하였으나 일본 등 일부 지역에서 증가 전환함.
- 對일본 수출의 경우 3.6%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對중국·아세안·중남미·중동 등은 감소율이 축소됨.
 - 10월 수출은 對EU·아세안·중동 수출이 증가 전환함.
 - 11월 수출은 수출 비중이 가장 큰 對중국 수출이 1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EU·중남미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로 전환함.
-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2.7% 감소하며 전체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 반면, 일본, 동남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 전환함.
 - 10월에는 일본, EU, 호주를 제외한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세가 지속됨.
 - 11월에는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20.0% 증가하였고, EU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모두 증가함.

〈표 31〉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 ¹⁾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수출	중국	26.0	-6.9	-10.5	-5.6	-15.7	-12.7	-8.0	-11.3	0.4
	ASEAN	14.2	-7.1	-10.4	-11.5	-11.2	-1.2	-1.1	2.7	21.9
	미국	13.3	-2.2	-10.0	-0.6	-3.3	-4.3	-8.8	-10.1	3.8
	EU	9.1	-3.6	7.9	-6.9	6.6	-10.0	-8.4	3.8	-22.1
	중남미	5.8	-23.9	-30.9	-14.6	-28.7	-17.1	-11.7	-10.7	-16.0
	중동	5.8	-17.2	-21.9	-12.6	-20.2	-22.2	-15.9	10.2	10.9
	일본	4.9	-26.6	-20.0	-20.5	-13.2	-14.0	3.6	-1.6	12.6
	전체	100.0	-9.5	-12.0	-8.0	-13.6	-6.7	-5.0	-6.7	-5.0
수입	중국	20.7	2.5	-3.8	0.2	-9.5	-3.0	-3.4	-8.1	3.0
	중동	15.7	-46.0	-45.0	-42.5	-42.1	-29.9	-12.7	-2.2	20.0
	동남아	14.5	-12.2	-10.4	-10.8	-8.3	-2.5	0.7	-7.9	10.3
	EU	13.1	-11.0	-9.4	-8.3	-11.6	-10.4	-10.3	4.2	-7.9
	일본	10.5	-18.0	-18.8	-14.7	-11.2	-3.7	11.3	9.5	28.4
	미국	10.1	0.2	-1.4	-2.8	-4.7	-1.5	-6.2	-11.1	11.7
	호주	3.8	-15.2	-20.4	-19.5	-15.3	-17.8	-14.8	5.3	56.7
	전체	100.0	-18.7	-17.8	-16.9	-16.1	-10.2	-5.2	-10.2	-5.2

주: 1) 2015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가계소득〉

■ 2016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취업자 수 증가, 임금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이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저금리로 인한 이자소득 하락으로 재산소득이 감소한 결과⁴⁵⁾ 전년동기대비 0.7% 증가에 그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4.5만 원으로 0.7% 증가하였고, 실질 소득은 0.1% 감소함.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60.7만 원으로 0.7%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102.8만 원으로 0.8% 증가함.

-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71.5%를 나타내며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이어감.

4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1. 18), “16년 3/4분기 가계동향 분석”.

- 처분가능소득대비 흑자액으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28.5%를 나타냈으나 흑자액이 102.8만 원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불황형 흑자가 계속되고 있음.

■ 2016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0.7% 증가에 그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7.9만 원으로 0.7% 증가하였고, 실질 소비지출은 0.1% 감소함.
- 추석연휴, 하계올림픽, 여름철 기온 상승 등으로 오락·문화비, 주거·수도·광열비 등이 증가하였으나, 곡물가격 하락 등으로 식료품비 등이 감소함.⁴⁶⁾

〈표 32〉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¹⁾

(단위: %, %p, 만 원)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427.1	441.6	430.2	437.3	455.5	430.6	444.5
	증가율	2.9	0.7	0.9	1.6	0.8	0.8	0.7
	실질 증가율 ²⁾	2.3	0.0	-0.2	0.9	-0.2	0.0	-0.1
처분가능 소득	금액	348.4	358.2	352.8	356.3	370.4	351.9	360.7
	증가율	3.1	0.9	0.7	1.9	1.0	1.0	0.7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249.4	256.3	255.0	256.3	266.9	249.4	257.9
	증가율	0.7	-0.5	1.7	0.5	0.6	0.0	0.7
	실질 증가율 ²⁾	0.1	-1.2	0.7	-0.2	-0.4	-0.9	-0.1
흑자액	금액	98.9	102.0	97.8	100.0	103.5	102.5	102.8
	증가율	9.6	4.7	-1.9	5.6	1.9	3.6	0.8
평균소비성향 ³⁾		71.6	71.5	72.3	71.9	72.1	70.9	71.5
흑자율 ⁴⁾		28.4	28.5	27.7	28.1	27.9	29.1	28.5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4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1. 18), “16년 3/4분기 가계동향 분석”.

다.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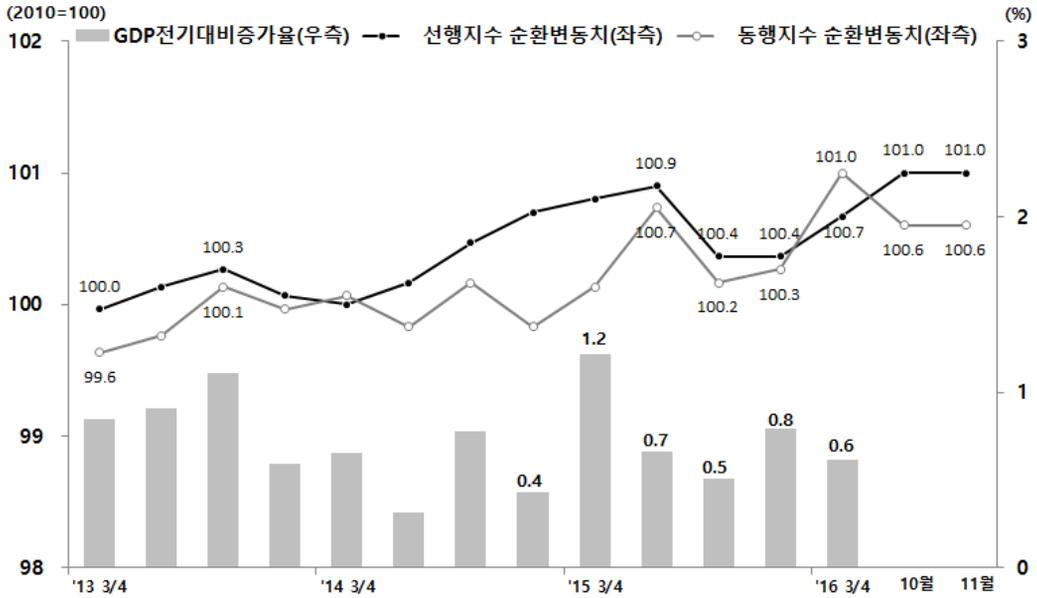
- 2016년 3/4분기 경기동향⁴⁷⁾을 살펴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⁴⁸⁾가 전분기대비 0.3 상승한 100.7을 기록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⁴⁹⁾는 전분기대비 0.7 상승한 101.0을 기록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건설수주액과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상승 전환하며 전분기대비 0.3 상승한 100.7을 기록함.
 - 10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주주액,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하락하였으나 기계류내수 출하지수, 장단기금리차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1 상승한 101.0을 기록함.
 - 11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재고순환지표, 장단기금리차 등이 상승하였으나 소비자기대 지수, 건설수주액 등이 하락하여 전월과 동일한 101.0을 기록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건설기성액과 수입액 등이 상승폭을 확대하며 전분기대비 0.7 상승한 101.0을 기록함.
 - 10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상승 전환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수입액 등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0.3 하락한 100.6을 기록함.
 -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이 상승 전환하였으나 서비스업생산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전월과 동일한 100.6을 기록함.

47) 통계청은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경기종합지수의 경기설명력 향상을 위해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을 실시함(통계청 보도자료(2016. 6. 30),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이에 따라 계간보험동향 경기종합지수는 이를 기초해 작성함.

48)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49)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2016년 3/4분기, 10월과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6년 3/4분기 제조업 출하지수와 재고지수가 각각 전분기대비 0.1, 2.4 하락하여 재고율⁵⁰⁾은 2.8%p 하락한 119.6%를 기록함.⁵¹⁾

○ 10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1.9%p 상승한 119.6%를 나타냄.

- 10월 제조업 출하는 자동차, 석유정제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자동차, 1차금속, 석유정제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함.⁵²⁾

○ 11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4.1%p 하락한 115.5%를 나타냄.

- 11월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석유정제 등에서 줄어들었으나 자동차, 금속가공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줄어 1.1% 감소함.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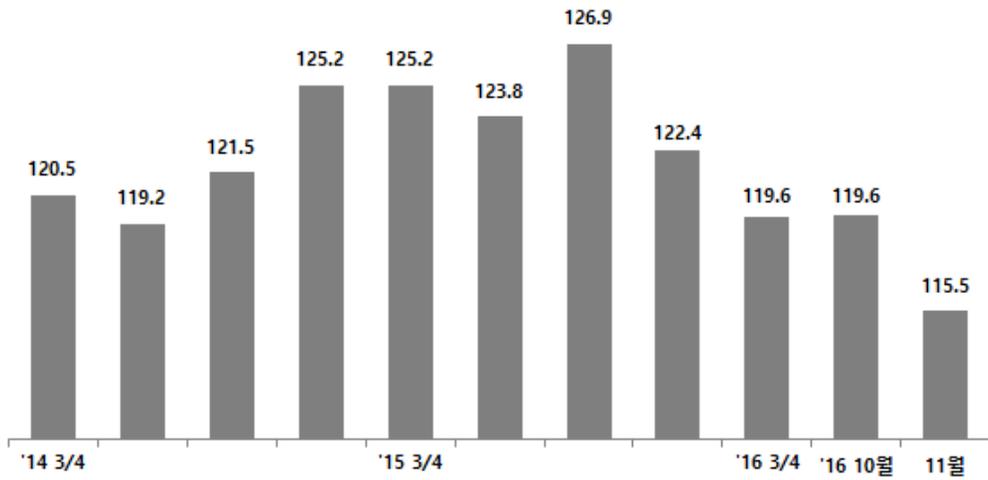
50)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출하액대비 재고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임.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제품 판매 증가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게 되어 재고-출하비율은 하락하게 됨. 반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할 경우 판매(출하)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증가하므로 재고율 지수는 상승함.

51) 2016년 7월~2016년 11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52) 통계청 보도자료(2016. 11. 30), “2016년 10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율¹⁾

(%)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53) 통계청 보도자료(2016. 12. 29), “2016년 11월 산업활동동향”.

3. 국내금융

- 2016년 4/4분기 국고채(3년, 5년, 10년 만기) 평균 금리는 각각 1.55%, 1.67%, 1.91%로 2016년 3/4분기(1.26%, 1.29%, 1.44%)보다 상승함.
 - 정책금리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25%로 동결됨.
 - 국고채 금리 상승세는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금리상승 기대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임.

- 2016년 4/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57.4원으로 전분기(1,121.4원)대비 상승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2,021.29으로 전분기(2,026.89)대비 하락함.
 - 미국의 금리인상, 우리나라 수출 감소, ECB의 양적완화 기간 연장 등으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임.
 - 삼성전자 휴대폰 단종, 대통령 탄핵 등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약세를 보임.

- 2016년 4/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19,395.66으로 전분기(17,962.42)대비 상승하였으나,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ER)과 주가자산비율(PBR)은 각각 10.98, 0.81로 전분기(12.10, 0.91)대비 하락함.
 -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KOSPI 보험지수가 상승하였으나, 주가이익률(PER)은 당기 순이익의 증가로, 주가자산비율(PBR)은 이익잉여금 등 자본의 증가로 하락함.

〈금리〉

- 2016년 4/4분기 정책금리는 1.25%로 동결됨(〈표 33〉 참고).
 - 2016년 12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 지속, 중국의 완만한 성장세 유지 등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정책방향 및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국의 경제 상황이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국내 경제는 고용률 상승, 세계 경제의 회복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함.

- 2016년 4/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전분기대비 9bp 상승한 1.44%임(〈표 33〉 참고).
 - 10월 평균 CD(91일) 금리는 1.35%, 11월과 12월은 각각 1.42%, 1.54%로 매월 상승세를 보임.
- 2016년 4/4분기 평균 국고채 3년, 5년, 10년 금리는 모두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각각 1.55%, 1.67%, 1.91%임(〈표 33〉 참고).
 - 10월 국고채 3년, 5년, 10년 금리는 주요국 경제지표 호조⁵⁴⁾ 등에 따른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상승⁵⁵⁾ 등으로 9월 평균 금리(1.31%, 1.35%, 1.51%)보다 상승한 1.36%, 1.41%, 1.60%를 기록함.
 - 11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미국 대선 이후 미국 국채금리 급등,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월 평균 금리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1.61%, 1.74%, 1.97%를 나타냄.
 -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상승하여 3년 1.69%, 5년 1.87%, 10년 2.16%임.

〈표 33〉 금리 및 스프레드

(단위: %, %p)

구분	2015 4/4	2016 1/4	2016 2/4	2016 3/4	2016 4/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정책금리	1.50	1.50	1.25	1.25	1.25	-	-0.25
CD(91일)	1.61	1.65	1.54	1.35	1.44	0.09	-0.17
국고채(3년)	1.70	1.53	1.42	1.26	1.55	0.29	-0.15
국고채(5년)	1.88	1.66	1.51	1.29	1.67	0.38	-0.21
국고채(10년)	2.17	1.90	1.74	1.44	1.91	0.47	-0.26
회사채(3년, AA-)	2.07	2.01	1.88	1.67	1.99	0.32	-0.08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37	0.47	0.46	0.41	0.44	0.03	0.07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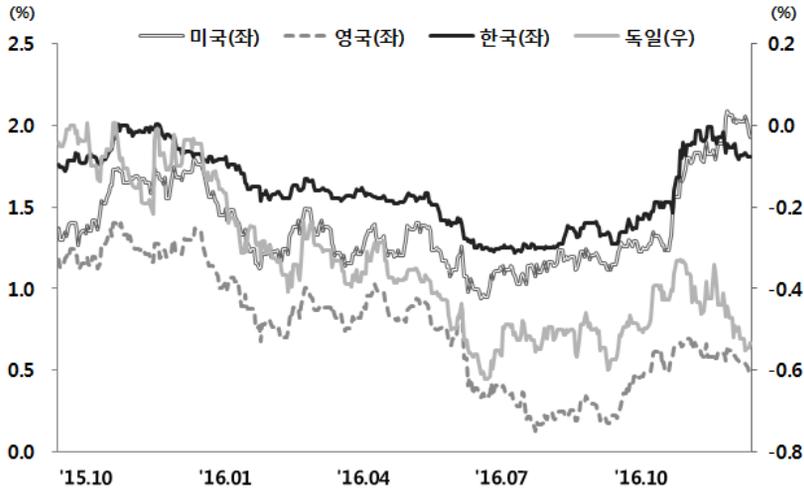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국채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독일, 영국, 우리나라 금리가 동반 상승한 모습을 보임(〈그림 3〉 참고).
 - 하지만 12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가 테이퍼링 가능성을 일축함에 따라 독일과 영국의 국채금리는 하락세로 전환됨.

54)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2.9%로 시장예상치 2.6%를 상회하였고, 영국도 0.5%로 예상치 0.3%를 상회함.

55) 3/4분기 GDP는 건설투자 호조 지속, 정부소비 개선의 영향으로 전기대비 0.7% 성장함.

〈그림 3〉 주요국의 국고채 5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는 2016년 4/4분기 평균 1.99%로 전분기대비 32bp 상승함(〈표 33〉 참고).
 - 10월 평균 회사채 금리는 1.78%, 11월과 12월은 각각 2.02%, 2.16%로 큰 폭으로 상승함.
 -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이)는 전분기대비 3bp 늘어나 평균 44bp임.

〈환율〉

- 2016년 4/4분기 동안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대비 36.0원 상승한 평균 1,157.4원을 기록함(〈표 34〉 참고).
 - 10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⁵⁶⁾로 연준의 금리인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위안화 절하,⁵⁷⁾ 국내 기업리스크 부각⁵⁸⁾ 등의 영향으로 9월 평균 원/달러 환율 1,107.5원보다 상승한 1,125.3원을 기록함.
 - 11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 금리 상승세, 국내 경제의 수출 위축 우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11월보다 36.3원 상승한 1,161.6원이었음.

56) 미국 10월 제조업지수는 9월 51.5에서 상승하여 51.9를 기록했으며, 경기확장과 위축의 경계선인 50을 넘었고 시장예상치인 51.7을 상회함.

57) 위안/달러 환율은 중국 경기둔화 우려 속에 SDR편입 이후 중국 정부의 위안화 약세 용인 가능성 등이 부각되면서 6.78위안(16.10/28일 기준)까지 상승함. 이는 2010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임.

58) 삼성의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2016. 10. 10)으로 인한 리스크를 말함.

- 12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정책금리 인상, 테러에 따른 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ECB의 양적완화 기간연장⁵⁹⁾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182.3원을 기록함.

〈표 34〉 환율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5	2016						
	4/4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원/달러	1,157.7	1,201.4	1,163.2	1,121.4	1,157.4	1,125.3	1,161.6	1,182.3
엔/달러	121.5	115.3	108.2	102.4	109.5	103.8	108.2	116.0
달러/유로	1.095	1.103	1.129	1.116	1.078	1.103	1.080	1.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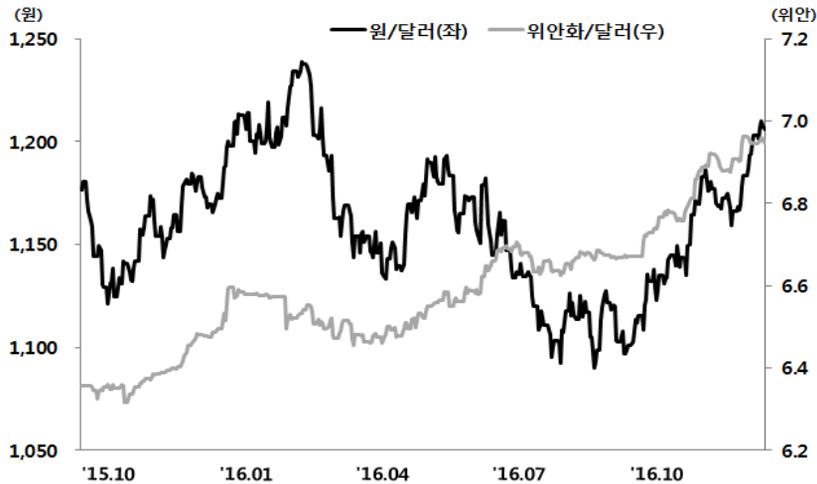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16년 4/4 분기 위안/달러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전분기대비 0.166위안 상승하여 평균 6.833위안을 기록함.
 - 미국 기준금리 인상 결정 직후인 12월 16일에 2008년 6월 이래 최고치인 달러당 6.962위안까지 급등함.
 - 최근 중국 위안화와 원화 가치가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며 위안화/환율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음(〈그림 4〉 참고).

59) ECB는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기간을 '17. 3월에서 '17. 12월로 연장하고, 규모를 월 800억 유로에서 600억 유로로 축소함.

〈그림 4〉 위안/달러와 원/달러 환율 비교



자료: Bloomberg.

■ 2016년 4/4분기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 엔/달러 평균 환율은 상승하고,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하락함(〈표 34〉 참고).

- 10월 엔/달러 환율은 위안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양적완화에 대한 기대 감소로 전월대비 하락한 104.1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환율은 하드 브렉시트⁶⁰⁾ 가능성과 유럽 은행들의 부실 우려 등으로 하락하여 1.103 달러를 기록함.
- 11월에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로 엔/달러 평균 환율은 전월대비 상승한 103.8엔,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한 1.080달러를 나타냄.
- 12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정책금리 인상과 일본 중앙은행의 장기국채 매입 확대⁶¹⁾로 상승하여 116.0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ECB의 양적완화 기간연장으로 1.054로 전월보다 하락함.

60) 영국이 유럽연합이라는 단일시장에서 완전히 탈퇴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국은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인 유럽연합과의 무역에서 관세를 부과 받으며 대신 개별적으로 비유럽연합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함. 반면 소프트 브렉시트는 유럽연합 역내에서 일정부분 관세 혜택을 누리며 공동 시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등의 선례가 있음.

61) 9월 장기금리 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만기 10년 이상의 국채매입 규모를 기존의 총 3,000억 엔에서 3,200억 엔으로 확대함.

〈주가〉

■ 2016년 4/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2,026.89보다 하락한 평균 2,012.29임(〈그림 5〉참고).

- 10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 순매수 지속⁶²⁾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단종 등의 영향으로 9월 평균주가지수 2,042.56보다 하락한 2036.03을 나타냄.
- 11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1,981.75로 외국인 순매도 전환,⁶³⁾ 미국 대선 결과, 국내 정치 혼란 등의 영향으로 10월에 비해 하락하였음.
- 12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021.67로 미국 정책금리 인상, 미국 다우지수 상승,⁶⁴⁾ 외국인 순매수⁶⁵⁾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상승함.

〈그림 5〉 주가지수



주: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며,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연속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거래소.

62) 10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는 약 3,200억 원으로 9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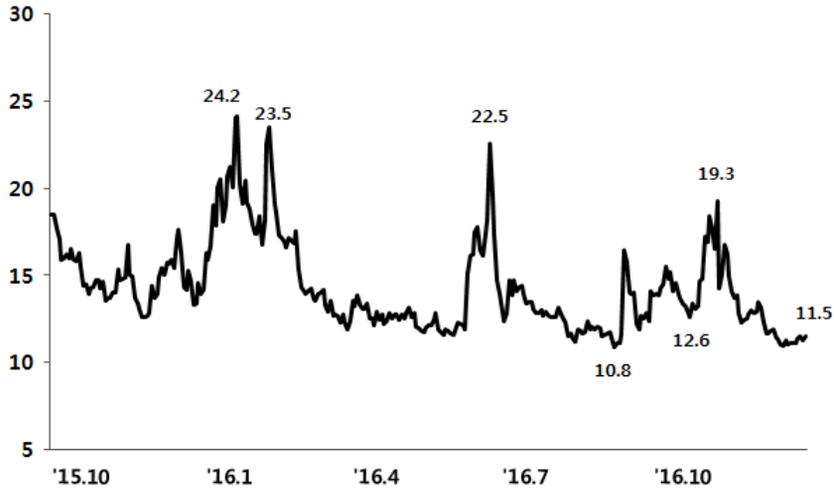
63) 9개월 연속 순매수를 보이던 외국인 주식투자가 11월 순매도(4,600억 원)를 기록함.

64) 2016년 12월 20일 19,974.62로 최고치를 기록함.

65) 12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는 약 1조 3,800억 원임.

- 2016년 4/4분기 변동성지수(VKOSPI)를 살펴보면, 11월 미국 대선 결과로 급상승 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으나 12월 대통령 탄핵의 영향으로 불안감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그림 6〉참고).

〈그림 6〉 변동성지수(VKOSPI)



주: VKOSPI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KOSPI200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옵션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KOSPI200 지수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주가〉

- 2016년 4/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19,395.66으로 전분기 평균 17,962.42보다 상승함(〈그림 7〉참고).
 - 미국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보험주의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작용하여 상승세를 보였으나, 미국 기준금리 인상 후 급등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RBC비율 하락 우려로 약세를 보임.

〈그림 7〉 KOSPI 보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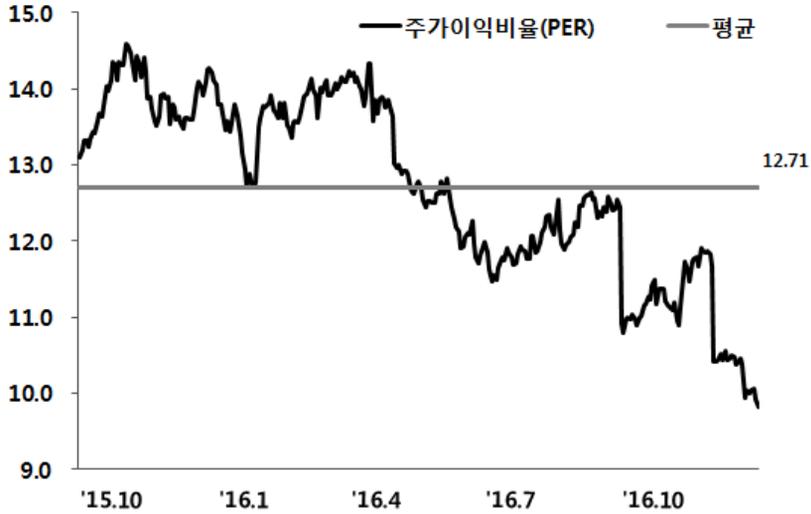
주: KOSPI 보험지수는 총 13개의 보험회사(생명보험 4개사, 손해보험 8개사, 재보험 1개사)를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 2016년 4/4분기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ER)과 주가자산비율(PBR)은 각각 10.98과 0.81로 3/4분기 평균인 12.10과 0.91에 비하여 하락함(〈그림 8〉, 〈그림 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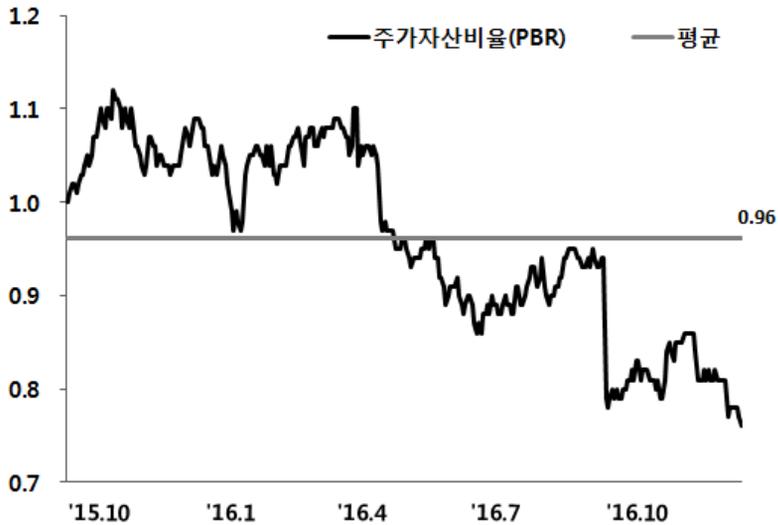
○ 보험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이익률(PER)은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주가자산비율(PBR)은 이익잉여금 등 자본의 증가로 하락함.

〈그림 8〉 보험 주가이익비율(PER)



주: 직선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평균 주가이익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9〉 보험 주가자산비율(PBR)



주: 직선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평균 주가자산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II. 국내보험 동향

- 2016년 3/4분기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47조 189억 원을 기록함.
 - 저금리 환경의 판매 전략으로 보장성보험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저축성보험은 신규판매 위축에 따른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7.5%p 상승한 62.8%, 손해보험 손해율은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3.9%p 하락한 79.9%를 기록하며 다소 개선됨.
- 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6.8% 증가한 1조 8,752억 원임(재보험회사 및 보증보험회사 제외).
 - 생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3.1% 증가한 1조 927억 원, 손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61.8% 상승한 7,825억 원임.
-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늘어나 전분기대비 2.1% 증가한 1,022조 7,232억 원을 기록함.
 - 보험산업 총부채는 전분기대비 1.8% 증가한 912조 4,493억 원, 총자본은 전분기대비 4.3% 증가한 110조 2,739억 원임.
- 보험산업의 연간 기준 환산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70%p 하락한 7.93%를 나타냈으며,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05%p 하락한 0.91%를 나타냄.
 - 생명보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46%p 하락한 6.53%,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4%p 하락한 0.73%를 나타냄.
 - 손해보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23%p 상승한 11.67%,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2%p 상승한 1.48%를 나타냄.
- 2016년 3/4분기 말 전속설계사 수는 생명보험이 전분기대비 994명 감소한 11만 4,004명, 손해보험이 전분기대비 1,909명 증가한 15만 9,927명을 나타냄.
 - 교차모집설계사 수는 생명보험이 전분기대비 1,386명 증가한 1만 1,401명, 손해보험이 전분기대비 1,743명 증가한 7만 7,042명임.

1. 보험 총괄

가. 수입(원수)보험료

■ 2016년 3/4분기 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47조 189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성장세는 생명보험 증가세 둔화로 전년동기(6.0%)대비 하락하였음.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¹⁾는 생존보험과 변액보험의 판매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에 그친 27조 3,300억 원을 나타냄(〈표 7〉 참조).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²⁾는 지속적인 자동차보험의 성장세로 전년동기대비 4.3% 늘어난 19조 6,890억 원을 기록함(〈표 18〉 참조).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1),2)}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27.2 (6.3)	34.9 (6.4)	117.2 (6.0)	29.0 (6.1)	28.3 (1.7)	27.3 (0.6)
손해보험	18.9 (5.5)	22.8 (2.2)	80.2 (4.8)	19.8 (2.4)	20.5 (6.8)	19.7 (4.3)
합계	46.0 (6.0)	57.7 (4.7)	197.5 (5.5)	48.8 (4.5)	48.8 (3.8)	47.0 (2.1)

주: 1)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보험회사가 회계연도 동안 받아들인 보험료로 순보험료(= 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으로 구성됨.

2) 원수보험료(direct premiums written)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받아들인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의 합계임.

나. 지급률(손해율) 및 사업비율

- 2016년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7.5%p 상승한 62.8%이고, 사업비율은 0.3%p 하락한 14.0%이며, 해지율은 0.1%p 하락한 6.5%임.
- 2016년 3/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3.8%p 하락한 79.9%를, 사업비율은 0.5%p 상승한 19.6%를 기록하였고 합산비율은 3.3%p 하락한 99.5%임.

〈표 2〉 지급률 · 손해율 및 사업비율

(단위: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생명 보험 ¹⁾	지급률	55.3	53.5	57.1	58.5	59.7	62.8
	사업비율	14.3	11.7	13.3	13.3	13.4	14.0
	해지율	6.6	8.6	8.6	2.3	4.5	6.5
손해 보험 ²⁾	손해율	83.7	82.9	83.1	81.6	81.3	79.9
	사업비율	19.1	20.6	19.5	19.4	19.2	19.6
	합산비율	102.8	103.4	102.7	101.0	100.5	99.5

주: 1)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여기서 순사업비는 지급경비(급여와 임금, 손해조사비, 모집비, 수급비 등)에서 수입경비(출재보험 수수료, 출재이익 수수료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보유보험료는 수입보험료에서 출재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 · 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 2016년 3/4분기 말 생명보험 설계사 수는 감소하고, 손해보험 설계사 수는 증가함.
 - 생명보험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994명 감소한 11만 4,004명을 나타냈으며, 교차모집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1,386명 증가한 1만 1,401명임.
 - 손해보험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166명 증가한 8만 2,885명을 나타냈으며, 교차모집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1,743명 감소한 7만 7,042명임.

〈표 3〉 보험산업 설계사 수

(단위: 명)

구분		2015		2016		
		3/4	4/4	1/4	2/4	3/4
생명 보험	전속설계사	120,203	117,311	116,898	114,998	114,004
	교차설계사	9,239	9,906	10,308	10,015	11,401
손해 보험	전속설계사	80,269	81,148	83,324	82,719	82,885
	교차설계사	75,501	75,448	76,330	75,299	77,042

자료: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 2016년 3/4분기 말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2.1% 증가한 1,022조 7,233억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은 전분기대비 1.9% 증가한 775조 5,316억 원, 손해보험은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247조 1,917억 원임.
- 2016년 3/4분기 말 보험산업 총부채 규모는 전분기대비 1.8% 증가한 912조 4,493억 원을 나타냈으며, 총자본 규모는 전분기대비 4.3% 증가한 110조 2,739억 원을 나타냄.
 - 전년동기대비 총부채와 총자본 규모는 생명보험의 경우 1.7%, 3.8%, 손해보험의 경우 2.0%, 5.5% 증가함.

〈표 4〉 보험산업 재무상태표^{1),2)}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생명 보험	총자산	707.1 (2.3)	724.9 (2.5)	724.9 (9.5)	742.0 (2.4)	761.0 (2.6)	775.5 (1.9)
	총부채	643.2 (2.1)	660.9 (2.8)	660.9 (9.6)	675.0 (2.1)	689.2 (2.1)	701.0 (1.7)
	총자본	63.9 (4.5)	64.0 (0.1)	64.0 (8.2)	67.0 (4.7)	71.8 (7.1)	74.5 (3.8)
손해 보험	총자산	219.6 (3.5)	225.9 (2.9)	225.9 (12.8)	232.2 (2.8)	241.1 (3.8)	247.2 (2.5)
	총부채	190.3 (3.4)	196.6 (3.3)	196.6 (13.4)	201.6 (2.5)	207.2 (2.8)	211.4 (2.0)
	총자본	29.3 (4.1)	29.3 (0.0)	29.3 (9.0)	30.5 (4.2)	33.9 (11.0)	35.8 (5.5)
합계	총자산	926.7 (2.6)	950.8 (2.6)	950.8 (10.3)	974.2 (2.5)	1,002.1 (2.9)	1,022.7 (2.1)
	총부채	833.5 (2.4)	857.5 (2.9)	857.5 (10.5)	876.7 (2.2)	896.4 (2.2)	912.4 (1.8)
	총자본	93.2 (4.4)	93.3 (0.1)	93.3 (8.5)	97.5 (4.5)	105.7 (8.3)	110.3 (4.3)

주: 1)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2)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당기순이익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36.8% 증가한 1조 8,752억 원임.

○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23.1% 상승한 1조 927억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61.8% 상승한 7,825억 원을 기록함.

〈표 5〉 보험산업 당기순이익^{1),2)}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생명 보험	당기순이익 ²⁾	0.9 (-18.2)	-0.1 (-160.7)	3.6 (11.0)	1.3 (3.6)	1.0 (-36.1)	1.1 (23.1)
	보험영업이익	-4.9 (0.7)	-6.3 (3.3)	-20.9 (-0.3)	-5.2 (3.4)	-5.0 (6.5)	-5.0 (2.2)
	투자영업이익	5.0 (-4.2)	5.2 (-6.4)	21.4 (-0.7)	5.8 (0.7)	5.3 (-4.5)	5.4 (8.3)
	영업외이익	0.9 (-2.2)	1.1 (26.8)	3.9 (11.4)	1.1 (15.0)	1.0 (1.7)	1.0 (4.4)
	연 기준 당기순이익 ⁵⁾	4.9 (19.6)	3.6 (11.0)	3.6 (11.0)	5.3 (3.6)	4.6 (-17.9)	4.5 (-8.0)
손해 보험	당기순이익 ²⁾	0.5 (7.3)	0.2 (2.2)	1.9 (15.0)	0.7 (11.5)	0.8 (28.9)	0.8 (61.8)
	보험영업이익	-0.7 (-3.0)	-1.1 (-5.1)	-3.3 (6.7)	-0.7 (-13.5)	-0.6 (-12.5)	-0.4 (-45.2)
	투자영업이익	1.4 (0.9)	1.4 (0.7)	6.0 (10.0)	1.6 (-2.5)	1.6 (9.2)	1.5 (7.5)
	영업외이익	0.0 (-18.2)	0.0 (-55.6)	-0.2 (-13.4)	-0.1 (-5.5)	0.0 (38.6)	-0.1 (149.6)
	연 기준 당기순이익 ⁵⁾	2.3 (16.6)	1.9 (15.0)	1.9 (15.0)	2.7 (11.5)	3.0 (20.3)	3.0 (32.0)
당기순이익 합계 ^{3),4)}		1.4 (-10.7)	0.1 (-72.3)	5.5 (12.3)	2.0 (6.1)	1.8 (-17.1)	1.9 (36.8)
연 기준 당기순이익 합계 ^{5),6)}		7.2 (18.7)	5.5 (12.3)	5.5 (12.3)	8.0 (6.1)	7.6 (-6.2)	7.5 (4.7)

주: 1)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5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7개 외국계를 포함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2)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이 차감된 수치임.

4)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합계를 의미함.

5)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6)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누적 당기순이익 합계를 의미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ROE)은 전년동기대비 0.70%p 하락한 7.93%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1.46%p 하락한 6.53%를 나타냄.

○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1.23%p 상승한 11.67%를 나타냄.

■ 2016년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산이익률(ROA)은 전년동기대비 0.05%p 하락한 0.91%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0.13%p 하락한 0.73%를 나타냄.

○ 손해보험산업은 전년동기대비 0.22%p 상승한 1.48%를 나타냄.

〈표 6〉 보험산업 자본 및 자산이익률^{1),2)}

(단위: %)

구분		2015		2016		
		3/4	4/4	1/4	2/4	3/4
자본 이익률 (ROE)	생명보험	7.99	5.83	8.10	6.77	6.53
	손해보험	10.44	8.72	11.53	11.82	11.67
	합계	8.63	6.59	9.01	8.14	7.93
자산 이익률 (ROA)	생명보험	0.86	0.62	0.87	0.75	0.73
	손해보험	1.26	1.03	1.38	1.48	1.48
	합계	0.96	0.72	1.00	0.93	0.91

주: 1)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25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17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함.

2)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3) 자산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산, 기중자산 = ((전회계연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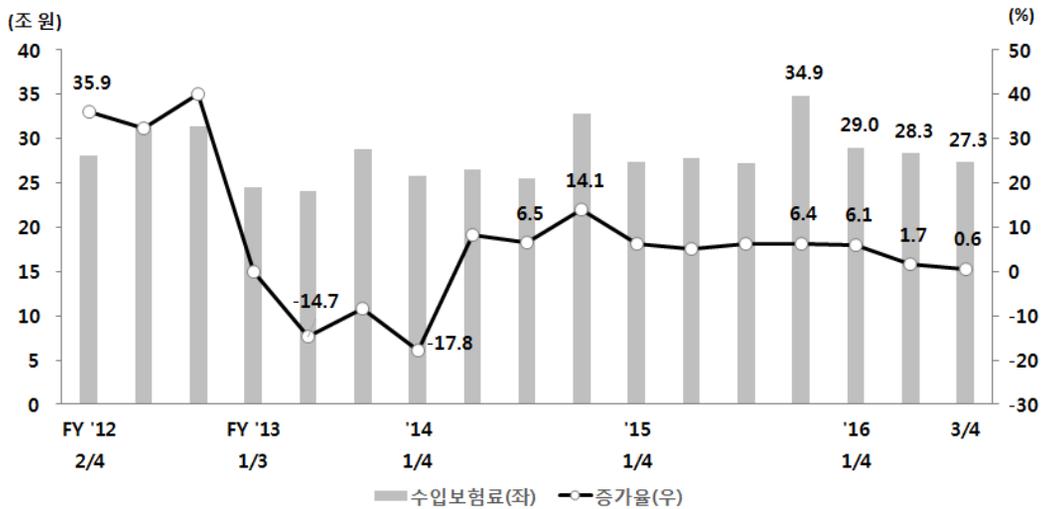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종목별 수입보험료〉

- 2016년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6% 증가에 그친 27조 3,300억 원을 기록함(〈그림 1〉 참조).

〈그림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3/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과 변액보험이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하고 사망보험 성장세도 둔화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25조 5,479억 원을 나타냄.
 - 생존보험³⁾ 수입보험료는 공시이율 하락에 따른 수요 감소와 저금리로 인한 보험회사의 연금보험 판매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4.6% 감소한 5조 2,363억 원을 기록함.
 -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7.8% 감소하였고, 계속보험료도 지속된 초회보험료 감소에 따른 성장세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함.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으로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이 있음.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상반기 판매 호조세에 따른 계속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한 9조 6,798억 원을 나타냄.
 - 그러나 초회보험료는 그동안 호조세를 보여 왔던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⁴⁾의 신규 판매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3.6%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⁵⁾ 수입보험료는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단기납보험료 증가⁶⁾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한 5조 6,533억 원을 시현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최근 변액연금 판매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4% 감소한 4조 9,786억 원을 기록함.

■ 2016년 3/4분기 단체보험⁷⁾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한 1조 7,821억 원을 기록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3.7% 증가한 1조 6,027억 원을 나타냄.
 - 반면 퇴직연금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3.7% 감소함.
-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한 1,794억 원임.

4)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종신보험 상품을 의미함.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미리 정해진 시점(보험기간의 만료 시를 포함)에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생존에 따른 보험금을 일반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양로보험이 이에 해당함.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보다 만기생존 시 보험금이 크며, 만기생존 시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크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됨. 만기환급금이 있는 정기보험은 보험기간 만료 시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생사혼합보험과 유사함.

6)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보증이율 상품 제공을 통해 일시납을 포함한 단기납보험료 중심으로 신규 판매를 확대하였음.

7)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음.

〈표 7〉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수입보험료	61,327 (4.3)	61,482 (-2.3)	246,848 (2.7)	57,044 (-9.3)	53,563 (-12.4)	52,363 (-14.6)
	초회보험료 ²⁾	15,071 (-1.3)	14,238 (-18.4)	62,198 (-6.7)	11,565 (-34.5)	8,542 (-44.0)	7,872 (-47.8)
	계속보험료 ³⁾	46,256 (6.3)	47,244 (3.9)	184,650 (6.3)	45,479 (0.5)	45,021 (-1.9)	44,491 (-3.8)
사망	수입보험료	90,538 (8.9)	92,349 (8.3)	360,361 (8.6)	96,491 (8.4)	95,863 (8.4)	96,798 (6.9)
	초회보험료	5,346 (10.5)	4,479 (20.5)	20,272 (89.1)	7,470 (16.1)	4,252 (5.9)	4,082 (-23.6)
	계속보험료	85,191 (5.8)	87,871 (7.8)	340,089 (5.9)	89,022 (7.8)	91,611 (8.5)	92,716 (8.8)
생사 혼합	수입보험료	51,152 (4.0)	57,187 (16.6)	213,771 (6.6)	66,400 (27.9)	56,050 (4.8)	56,533 (10.5)
	초회보험료	8,719 (-12.3)	12,015 (34.5)	43,169 (-2.3)	22,310 (91.9)	13,059 (20.8)	12,424 (-42.5)
	계속보험료	42,433 (8.2)	45,172 (12.6)	170,602 (9.1)	44,090 (9.4)	42,990 (0.7)	44,109 (3.9)
변액 보험	수입보험료	52,629 (2.0)	49,140 (-5.4)	206,431 (-0.1)	48,231 (-5.7)	48,052 (-10.2)	49,786 (-5.4)
	초회보험료	4,168 (47.8)	2,377 (-5.1)	12,831 (22.8)	2,152 (-8.1)	2,624 (-33.5)	4,380 (5.1)
	계속보험료	48,461 (-0.7)	46,763 (-5.4)	193,600 (-1.4)	46,079 (-5.5)	45,428 (-8.4)	45,406 (-6.3)
개 인 계	수입보험료	255,646 (5.3)	260,158 (4.4)	1,027,412 (4.9)	268,166 (5.2)	253,528 (-1.2)	255,479 (-0.1)
	초회보험료	33,304 (8.7)	33,109 (1.6)	138,470 (4.9)	43,497 (14.3)	28,477 (-16.3)	28,757 (-13.7)
	계속보험료	222,342 (4.8)	227,049 (4.9)	888,942 (4.9)	224,669 (3.6)	225,051 (1.1)	226,722 (2.0)
일반 단체	수입보험료	1,879 (-6.0)	1,845 (-1.7)	7,735 (-5.1)	2,120 (0.7)	1,902 (-0.2)	1,794 (-4.5)
	초회보험료	289 (1.5)	255 (19.0)	1,281 (1.2)	552 (15.1)	306 (18.3)	258 (-10.6)
	계속보험료	1,590 (-7.3)	1,590 (-4.4)	6,454 (-6.3)	1,568 (-3.5)	1,597 (-3.1)	1,536 (-3.4)
퇴직 연금	수입보험료	14,100 (29.9)	86,626 (12.9)	136,990 (15.9)	19,647 (20.7)	27,852 (39.3)	16,027 (13.7)
	초회보험료	4,317 (-5.1)	28,858 (-14.5)	43,436 (-15.5)	4,400 (-30.6)	5,094 (29.8)	3,295 (-23.7)
	계속보험료	9,783 (55.1)	57,768 (34.3)	93,553 (40.0)	15,247 (53.4)	22,758 (41.7)	12,731 (30.1)
단 체 계 ³⁾	수입보험료	15,979 (24.3)	88,471 (12.5)	144,725 (14.5)	21,767 (18.4)	29,755 (35.9)	17,821 (11.5)
	초회보험료	4,606 (-4.7)	29,112 (-14.3)	44,717 (-15.1)	4,952 (-27.4)	5,400 (29.1)	3,553 (-22.9)
	계속보험료	11,373 (41.8)	59,359 (32.9)	100,008 (35.7)	16,815 (45.4)	24,355 (37.5)	14,267 (25.5)
합계	수입보험료	271,624 (6.3)	348,629 (6.4)	1,172,137 (6.0)	289,933 (6.1)	283,283 (1.7)	273,300 (0.6)
	초회보험료	37,910 (6.9)	62,221 (-6.5)	183,187 (-0.8)	48,449 (8.0)	33,877 (-11.3)	32,311 (-14.8)
	계속보험료	233,715 (6.2)	286,408 (9.6)	988,950 (7.4)	241,484 (5.7)	249,406 (3.8)	240,989 (3.1)

주: 1)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1회 납입 보험료를 의미함.

3)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퇴직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퇴직연금 의무 가입의 실지로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 작성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시장점유율〉

- 2016년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외국사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상승함.
 - 외국사 시장점유율은 동양생명의 외국사 편입⁸⁾으로 전년동기대비 4.3%p 상승한 17.8%를 차지함.
 - 상위 3사와 국내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외국사 점유율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6%p, 3.6%p 하락한 45.3%, 37.0%를 기록함.

- 2016년 3/4분기 초회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반면, 상위 3사와 국내 중·소형사는 전년동기대비 하락함.
 - 외국사의 초회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동양생명의 외국사 편입과 외국사에 속한 일부 회사의 판매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0.5%p 상승한 23.2%를 나타냄.
 - 상위 3사의 초회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수적인 판매 정책으로 전년동기대비 6.5%p 감소한 26.7%를 차지함.
 - 국내 중·소형사의 초회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4.0%p 하락한 50.1%를 기록함.

- 2016년 3/4분기 생명보험 허핀달지수는 외국사의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20 하락한 1,000을 기록함.

8) 2015년 10월 동양생명이 안방보험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2015년 4/4분기부터 외국사에 포함됨.

〈표 8〉 생명보험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점유율 ²⁾	상위 3사	45.9	48.0	46.8	46.5	45.1	45.3
		국내 중·소형사 ³⁾	40.6	38.9	37.2	35.2	37.3	37.0
		외국사 ⁴⁾	13.5	13.1	15.9	18.3	17.5	17.8
	허핀달 지수 ⁵⁾	1,020	1,058	1,053	1,027	1,010	1,000	
초회보험료	점유율	상위 3사	33.2	39.3	38.0	38.6	24.6	26.7
		국내 중·소형사 ³⁾	54.1	54.9	50.8	36.5	49.0	50.1
		외국사 ⁴⁾	12.7	5.8	11.2	24.9	26.4	23.2

주: 1) 퇴직보험·연금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각 회사점유율 = 각 회사 수입보험료 / 전체 수입보험료, 상위 3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 점유율은 회사 분류에 따라 각 회사 점유율을 합한 값임.

3) 국내 중·소형사(13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이며, 동양생명은 2015년 10월 중국 안방보험에 인수·합병됨에 따라 2015년 4/4분기부터 외국사에 포함됨.

4) 외국사는 알리안츠생명 등을 포함한 9개사임.

5)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1,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 2016년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대부분 종목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승함에 따라 전체 전년동기대비 7.5%p 상승한 62.8%를 기록함.
 - 생존보험과 변액보험 지급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4.1%p, 18.5%p 상승한 72.1%, 74.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수입보험료는 감소한 반면 지급보험금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지급률도 지급보험금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 전년동기대비 0.8%p, 1.9%p 상승한 47.6% 56.1%를 기록함.
- 2016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 전체 사업비율과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3%p, 0.1%p 하락한 14.0%, 6.5%를 기록함.

〈표 9〉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전체 보험금 지급률 ¹⁾	55.3	53.5	57.1	58.5	59.7	62.8
개인	52.9	54.2	55.0	54.4	59.0	59.7
생존	58.0	62.1	57.5	65.0	69.4	72.1
사망	46.8	48.1	48.3	48.8	47.8	47.6
생사혼합	54.2	48.2	55.1	47.9	56.1	56.1
변액	55.9	62.7	63.3	61.8	73.0	74.4
단체	94.7	51.4	72.6	110.0	65.4	106.3
일반단체	108.9	115.7	114.5	109.3	106.7	112.9
퇴직연금	92.8	50.1	70.2	110.0	62.6	105.6
사업비율 ²⁾	14.3	11.7	13.3	13.3	13.4	14.0
해지율 ³⁾	6.6	8.6	8.6	2.3	4.5	6.5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3)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여기서 효력상실액이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정한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이 때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을 의미함. 그리고 해지액이란 보험가입자가 중도 해지 시 보험료 적립금에서 보험회사의 운영비 및 해지공제액 등을 제하고 돌려받는 금액을 의미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⁹⁾〉

■ 2016년 3/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의 경우 특히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확대됨.

-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사혼합보험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5.6%p 확대된 64.4%를 차지함.
- 설계사 채널 비중은 주요 판매 상품인 연금보험의 판매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4.4%p 줄어든 17.8%를 기록함.
- 임직원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2%p 축소된 10.5%였으며, 대리점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와 같은 6.9%를 나타냄.

〈표 10〉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

(단위: %, 억 원)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임직원	11.7	39.0	21.5	9.7	15.5	10.5
설계사	22.2	18.4	20.0	16.8	15.8	17.8
대리점	6.9	5.3	6.2	5.8	6.7	6.9
중개사	0.1	0.0	0.1	0.1	0.1	0.1
방카슈랑스	58.8	37.0	52.0	67.4	61.7	64.4
기타	0.4	0.2	0.3	0.2	0.2	0.2
합계 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7,910	62,221	183,187	48,449	33,877	32,311

주: 1)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2) 현재 온라인 채널 초회보험료 비중은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어 제시하지 못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9) 판매채널은 크게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구분되며, 최근 온라인 채널 등 새로운 채널도 등장하였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 10〉과 같이 판매채널을 구분하여 초회보험료(1회 납입보험료) 비중을 제시함.

〈모집조직〉

■ 2016년 3/4분기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경우 임직원 수와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50명 증가한 2만 7,155명임.
- 전속설계사 수는 11만 4,004명으로 전분기대비 994명 줄어들었으나, 교차설계사 수는 1만 1,401명으로 전분기대비 1,386명 늘어남.
- 전체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147개 증가한 6,266개였으며, 그 중 개인대리점 수는 149개 증가한 3,325개, 법인대리점 수는 2개 줄어든 2,941개를 기록함.

〈표 11〉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2015		2016		
	3/4	4/4	1/4	2/4	3/4
임직원(명)	27,532	27,312	27,340	27,105	27,155
설계사(명)					
- 전속설계사	120,203	117,311	116,898	114,998	114,004
- 교차설계사	9,239	9,906	10,308	10,015	11,401
대리점(개)	6,159	6,010	6,107	6,119	6,266
- 개인	3,036	3,054	3,139	3,176	3,325
- 법인	3,096	2,956	2,968	2,943	2,941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자산〉

- 2016년 3/4분기 말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일반계정 자산과 특별계정 자산이 모두 늘어나 전분기 대비 1.9% 증가한 775조 5,316억 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 자산은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로 인해 전분기대비 1.9% 증가함.
- 특별계정 자산은 퇴직연금 관련 자산 증가로 전분기대비 2.0% 증가함.

〈표 12〉 생명보험산업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자산¹⁾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총자산	금액	691.0	707.1	724.9	724.9	742.0	761.0	775.5
	증가율	0.8	2.3	2.5	9.5	2.4	2.6	1.9
일반계정 자산	금액	570.1	586.4	601.1	601.1	613.2	631.0	643.0
	증가율	0.8	2.9	2.5	9.2	2.0	2.9	1.9
특별계정 자산	금액	121.0	120.7	123.8	123.8	128.8	130.0	132.5
	증가율	0.8	-0.2	2.6	10.8	4.1	0.9	2.0

주: 1) 분기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연간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일부 수치가 반올림으로 인해 동일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부채·자본〉

- 2016년 3/4분기 말 생명보험산업 총부채는 전분기대비 1.7% 증가한 701조 421억 원이며, 총자본은 전분기대비 3.8% 증가한 74조 4,895억 원임.
- 총부채 가운데 책임준비금은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분기대비 1.9% 증가하였으며, 특별계정 부채도 전분기대비 1.3% 증가함.
- 총자본 가운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이익 확대로 전분기대비 5.5% 증가하였고, 이익잉여금은 전분기대비 3.7% 증가함.

〈표 13〉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¹⁾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총자산	금액	707.1	724.9	724.9	742.0	761.0	775.5
	증가율	2.3	2.5	9.5	2.4	2.6	1.9
총부채	금액	643.2	660.9	660.9	675.0	689.2	701.0
	증가율	2.1	2.8	9.6	2.1	2.1	1.7
책임준비금	금액	493.5	505.7	505.7	517.4	527.5	537.5
	증가율	2.2	2.5	9.5	2.3	2.0	1.9
계약자 지분조정	금액	9.3	9.5	9.5	10.4	11.8	12.4
	증가율	3.9	1.8	4.4	10.3	12.7	5.4
기타부채	금액	18.7	17.8	17.8	17.8	18.6	18.1
	증가율	17.4	-4.9	17.1	0.0	4.6	-2.8
특별계정부채	금액	121.7	127.9	127.9	129.5	131.3	133.1
	증가율	-0.4	5.1	9.5	1.2	1.4	1.3
총자본	금액	63.9	64.0	64.0	67.0	71.8	74.5
	증가율	4.5	0.1	8.2	4.7	7.1	3.8
자본금	금액	10.1	10.4	10.4	10.4	10.4	10.4
	증가율 ²⁾	3.1	2.6	6.2	0.0	0.0	0.0
자본잉여금	금액	6.0	6.0	6.0	6.0	6.0	6.0
	증가율	2.1	0.5	2.6	0.0	0.0	0.4
이익잉여금	금액	28.0	27.9	27.9	28.2	29.1	30.2
	증가율	3.0	-0.6	9.7	1.2	3.2	3.7
자본조정	금액	-1.6	-2.6	-2.6	-3.1	-3.1	-3.1
	증가율	0.4	64.9	73.1	21.1	0.0	0.0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금액	21.3	22.3	22.3	25.5	29.4	31.0
	증가율	7.6	4.6	14.0	14.3	15.1	5.5

주: 1) 분기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연간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일부 수치가 반올림으로 인해 동일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으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수익 · 총비용〉

■ 2016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투자영업이익과 기타이익(영업외이익)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23.1% 증가한 1조 927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 적자규모¹⁰⁾는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고 보험금 지급도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056억 원 증가한 4조 9,707억 원을 나타냄.

○ 투자영업이익은 부동산처분이익 증가¹¹⁾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153억 원 증가한 5조 4,157억 원을 기록함.

○ 영업외이익은 특별계정수수료 수입이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411억 원 증가한 9,742억 원임.

■ 2016년 3/4분기 연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B)은 전분기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8.0% 감소한 4조 5,195억 원을 기록함.

〈표 14〉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1),2)}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총수익	보험영업	20,799	21,693	84,205	22,554	21,081	21,099
	투자영업	8,496	5,593	27,830	7,994	5,866	9,581
	기타	1,122	1,279	4,630	1,236	1,219	1,231
	소계	30,417	28,565	116,665	31,784	28,167	31,911
총비용	보험영업 ³⁾	25,664	28,006	105,129	27,755	26,103	26,069
	투자영업	3,496	420	6,415	2,234	597	4,166
	기타	189	229	758	174	239	257
	소계	29,349	28,655	112,303	30,163	26,939	30,492
수지차	보험영업	-4,865	-6,314	-20,924	-5,201	-5,022	-4,971
	투자영업	5,000	5,173	21,415	5,760	5,269	5,416
	기타	933	1,051	3,872	1,062	980	974
	소계	1,068	-90	4,362	1,621	1,228	1,419
법인세	181	5	770	294	258	327	
당기순이익(A) ⁴⁾		887	-95	3,592	1,327	970	1,093
		(-18.2)	(-160.7)	(11.0)	(3.6)	(-36.1)	(23.1)
연 기준 당기순이익(B) ⁵⁾		4,915	3,592	3,592	5,308	4,594	4,520
		(19.6)	(11.0)	(11.0)	(3.6)	(-17.9)	(-8.0)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3) 책임준비금전입액을 감안한 수치이고, 책임준비금전입액은 책임준비금(부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반대의 경우 책임준비금환입액)을 의미하며, 손익계산서의 보험영업비용(반대의 경우 수익) 항목임.

4) 당기순이익 = 총수익 - 총비용 - 책임준비금전입액 - 법인세

5)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 환산한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10) 책임준비금전입액을 감안한 수치임.

11) 부동산처분이익 증가는 삼성생명 사옥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 확대에 기인함.

〈자산운용〉

■ 2016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9%p 하락한 3.58%를 나타냄.

○ 운용자산 이익률의 경우 매도가능증권 이익률과 대출채권 이익률 하락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0.57%p 낮은 3.61%를 기록함.

- 매도가능증권 이익률은 3.16%로 전년동기대비 0.78%p 하락하였으며, 대출채권 이익률은 4.98%로 전년동기대비 0.52%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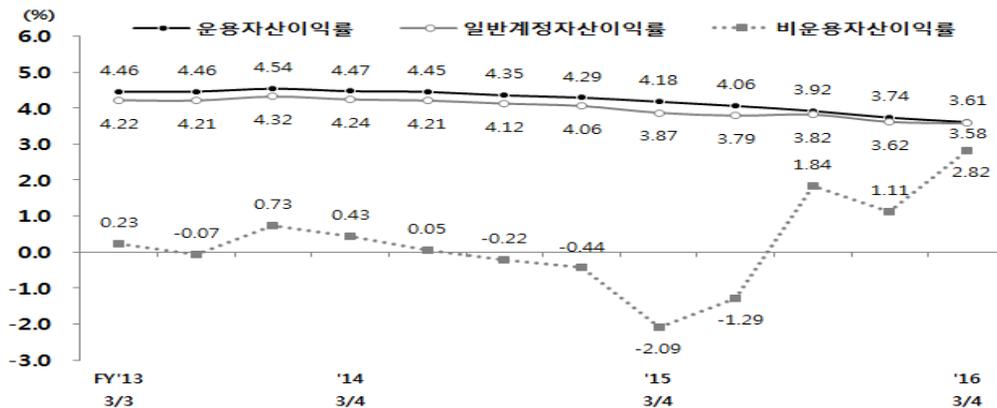
○ 부동산 이익률은 부동산처분이익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2.94%p 상승한 6.37%를 기록함.

○ 비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4.91%p 상승한 2.82%를 나타냄.

■ 2016년 3/4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의 경우 유가증권이 7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대출채권이 17.6%, 부동산이 2.2%, 현금과 예금이 1.8%를 나타냈으며, 비운용자산의 경우 4.7%를 차지함.¹²⁾

○ 유가증권 비중과 대출채권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8%p, 0.2%p 확대됐지만, 현금과 예금과 부동산 비중은 각각 0.7%p, 0.4%p 축소됨.

〈그림 2〉 자산운용 이익률^{1),2),3)}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 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2) 일반계정 자산은 크게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 비중은 전체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15〉 생명보험 일반계정자산 포트폴리오 및 이익률¹⁾

(단위: %, 억 원)

구분	2015				2016					
	3/4		4/4		1/4		2/4		3/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3.87	100.0	3.79	100.0	3.82	100.0	3.62	100.0	3.58
운용자산 계	95.3	4.18	95.4	4.06	95.3	3.92	95.6	3.74	95.3	3.61
현금과 예금	2.5	4.11	2.6	3.39	2.2	1.93	2.1	2.40	1.8	2.16
유가증권	72.8	3.89	72.7	3.73	73.2	3.68	73.7	3.47	73.6	3.24
○ 당기손익인식증권 ²⁾	2.8	1.82	2.2	2.03	2.1	2.21	2.2	1.87	2.1	1.72
- 주식	0.1	4.52	0.1	0.47	0.1	1.47	0.1	-0.47	0.1	6.34
- 채권 등	0.7	1.36	0.6	2.47	0.7	3.44	0.6	3.34	0.5	2.16
- 수익증권	2.0	1.87	1.5	1.93	1.4	1.69	1.5	1.40	1.5	1.28
○ 매도가능증권	51.2	3.94	52.4	3.67	52.5	3.68	52.7	3.47	53.2	3.16
- 주식	3.2	2.54	3.3	1.89	3.4	6.72	3.4	3.47	3.7	2.27
- 채권 등	44.5	3.98	45.5	3.78	45.5	3.48	45.7	3.44	45.9	3.21
- 수익증권	3.5	4.85	3.6	4.15	3.6	3.43	3.6	3.87	3.7	3.44
○ 만기보유증권	17.3	4.29	16.6	4.36	16.9	3.75	17.2	3.74	16.9	3.77
- 채권 등	17.3	4.29	16.6	4.36	16.9	3.75	17.2	3.74	16.9	3.77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5	2.22	1.5	2.19	1.7	4.66	1.6	2.73	1.5	2.38
대출채권	17.4	5.50	17.7	5.42	17.5	5.07	17.5	5.00	17.6	4.98
부동산	2.6	3.43	2.5	4.70	2.4	4.84	2.3	3.84	2.2	6.37
비운용자산 계	4.7	-2.09	4.6	-1.29	4.7	1.84	4.4	1.11	4.7	2.82
일반계정자산 규모	5,864,075		6,011,311		6,132,374		6,309,910		6,430,240	
일반계정자산 비중	(82.9)		(82.9)		(82.6)		(82.9)		(82.9)	
총자산 규모	7,070,753		7,249,013		7,420,247		7,609,584		7,755,316	

주: 1)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 기준 환산

2) FY2011 1/4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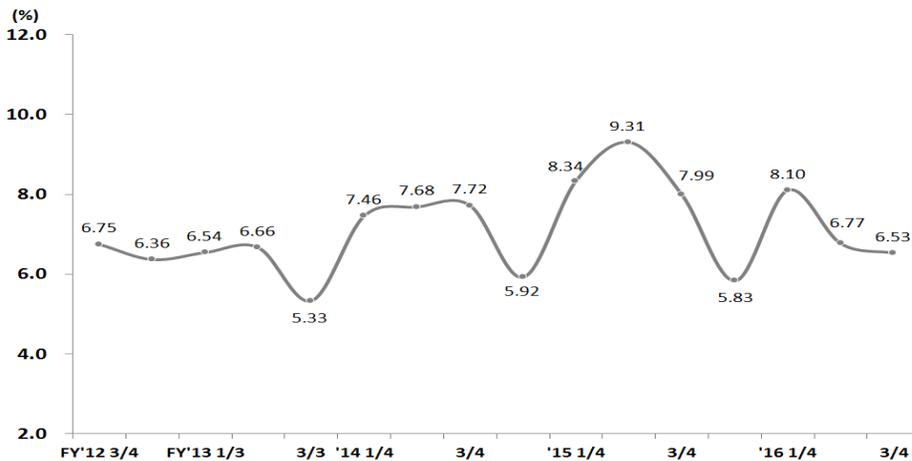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본이익률(ROE)¹³⁾〉

■ 2016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누적 당기순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46%p 하락한 6.53%를 나타냄.

○ 회사 그룹별¹⁴⁾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1.47%p, 2.19%p, 0.84%p 하락한 6.21%, 5.23%, 9.87%를 기록함.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16〉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3/4	4/4	1/4	2/4	3/4
대형사	7.68	5.73	7.47	6.31	6.21
중·소형사	7.42	6.46	6.31	5.60	5.23
외국사	10.71	5.17	13.47	10.46	9.87
전체	7.99	5.83	8.10	6.77	6.53

주: 1)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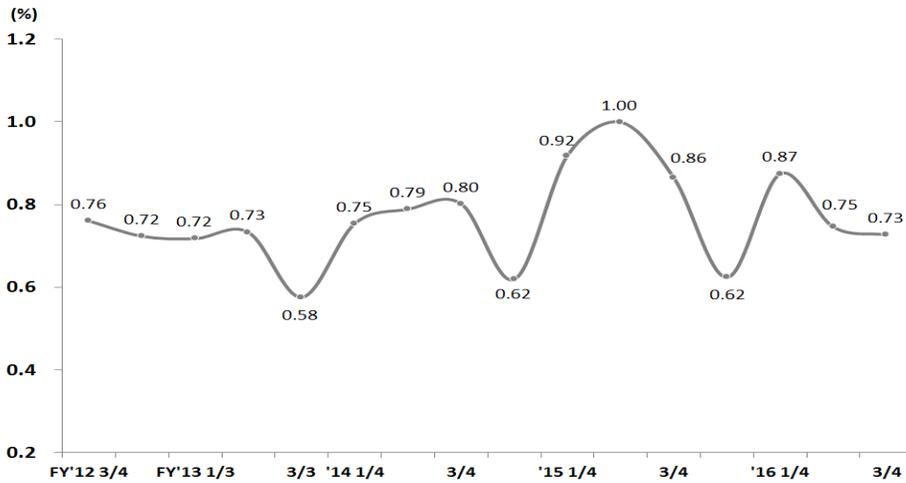
13)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누적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25개 생명보험회사임.

14) 2015년 회계연도부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방카사로 분류되었던 회사 분류를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로 분류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거 통계치도 동일한 분류에 따라 수정함.

<자산이익률(ROA)¹⁵⁾>

- 2016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13%p 하락한 0.73%를 기록함.
-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자산이익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0.16%p, 0.15%p, 0.22%p 하락한 0.75%, 0.46%, 1.29%를 나타냄.

<그림 4>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17> 생명보험산업 자산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3/4	4/4	1/4	2/4	3/4
대형사	0.91	0.66	0.87	0.75	0.75
중·소형사	0.61	0.54	0.54	0.48	0.46
외국사	1.51	0.68	1.72	1.36	1.29
전체	0.86	0.62	0.87	0.75	0.73

주: 1) 자산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산, 기중자산(특별계정자산 제외) = ((전회계연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15)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산(특별계정자산 제외)대비 누적 당기 순이익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25개 생명보험회사임.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원수보험료〉

- 2016년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한 19조 6,890억 원을 시현함.
 - 장기손해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의 지속된 위축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질병보험의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한 12조 179억 원을 기록함.
 - 연금부문은 개인연금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0% 상승한 1조 5,946억 원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상보험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1조 9,632억 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은 2016년 3/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한 4조 1,133억 원으로 전분기에 이어 4조 원대를 이어감.

〈표 1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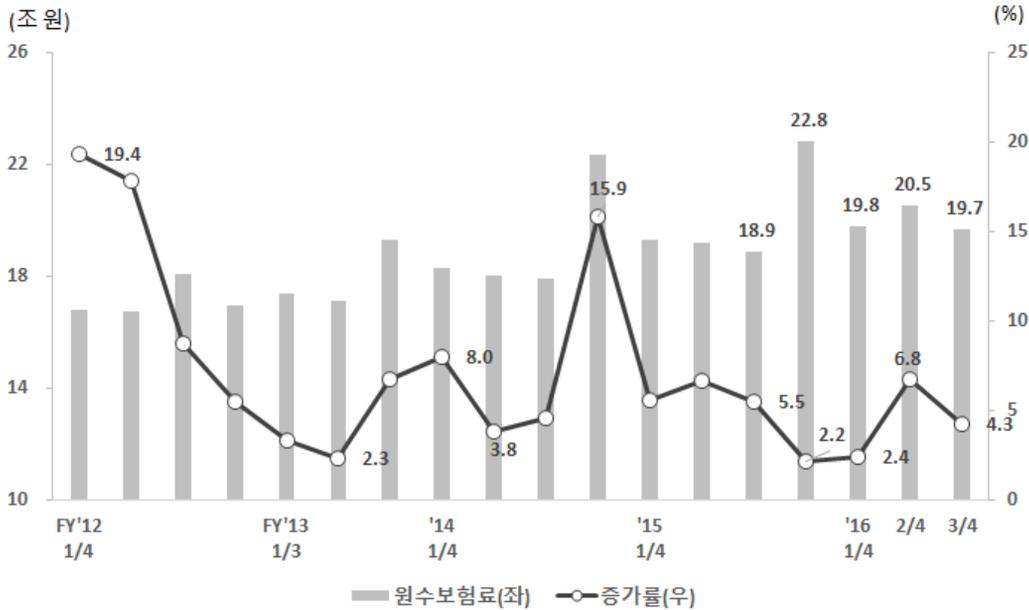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11.7	11.7	46.6	11.8	11.9	12.0
	증가율	(4.8)	(4.2)	(4.9)	(1.2)	(2.9)	(3.1)
연금부문	보험료	1.6	5.0	10.4	1.9	2.2	1.6
	증가율	(8.6)	(-8.5)	(-0.9)	(-6.5)	(24.7)	(2.0)
자동차보험	보험료	3.7	4.0	15.0	3.9	4.1	4.1
	증가율	(9.0)	(13.7)	(10.7)	(11.6)	(11.1)	(10.1)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1.9	2.1	8.3	2.2	2.3	2.0
	증가율	(1.0)	(-0.2)	(1.8)	(2.2)	(5.3)	(1.7)
전체	보험료	18.9	22.8	80.2	19.8	20.5	19.7
	증가율	(5.5)	(2.2)	(4.8)	(2.4)	(6.8)	(4.3)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으로 구성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016년 3/4분기부터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된 한국해양보증보험(주) 실적 포함.

〈그림 5〉 원수보험료 추이



1) 장기손해보험

- 2016년 3/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질병보험 등의 견조한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3.1% 증가¹⁶⁾한 12조 179억 원을 시현함.
- 장기저축성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9.2% 감소하면서, 2014년 2/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속함.
 - 저금리 지속으로 인한 공시이율 하락¹⁷⁾과 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판매부담 등으로 계속보험료와 초회보험료 위축이 지속됨.
-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각각 9.5%, 13.5%의 증가율을 기록함.
-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각각 8.1%, 5.2% 증가함.
- 통합형보험도 전분기에 성장세로 돌아선 이후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함.

16) 이는 2016년 1/4분기 1.2%, 2/4분기 2.9%의 성장률보다 높은 것임.

17) 보험개발원, 공시기준이율: 2013년(3.78%), 2014년(3.57%), 2015년(2.81%), 2016년(1월: 2.6%, 3월: 2.5%, 7월: 2.4%, 9월: 2.3%, 12월: 2.3%).

■ 2016년 3/4분기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8.8% 감소한 4,264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크게 감소한데 기인함.

○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8.9% 감소함.

- 이는 2015년 1/4분기 이후 7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나, 2016년 상반기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됨.

○ 장기질병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8%, 장기상해보험도 11.1% 감소함.

- 장기질병보험은 2/4분기의 부진한 실적에서 벗어나면서 감소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1/4분기 실적의 영향으로 보임.

- 장기상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연말로 접어들수록 증가하는 계절성을 나타냈으나, 2016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19〉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원수 보험료	상해	보험료	33,435	34,587	132,555	35,418	36,218	36,597
		증가율	(11.5)	(11.8)	(12.0)	(11.1)	(11.0)	(9.5)
	운전자	보험료	7,141	7,247	28,327	7,390	7,572	7,721
		증가율	(7.8)	(6.8)	(8.0)	(6.8)	(7.9)	(8.1)
	재물	보험료	10,025	10,161	39,808	10,198	10,375	10,551
		증가율	(6.9)	(7.0)	(6.2)	(5.2)	(4.5)	(5.2)
	질병	보험료	28,177	29,201	110,607	30,253	30,890	31,978
		증가율	(16.5)	(16.5)	(16.6)	(16.1)	(13.7)	(13.5)
저축성	보험료	25,259	23,533	104,650	22,239	21,152	20,415	
	증가율	(-11.8)	(-15.1)	(-11.0)	(-24.6)	(-19.7)	(-19.2)	
통합형	보험료	12,484	12,402	49,808	12,364	12,741	12,910	
	증가율	(0.9)	(0.3)	(1.0)	(-0.4)	(1.8)	(3.4)	
자산 연계형	보험료	8	8	46	7	7	7	
	증가율	(-79.3)	(-77.9)	(-70.4)	(-67.4)	(-12.4)	(-79.5)	
소계	보험료	116,530	117,140	465,801	117,868	118,954	120,179	
	증가율	(4.8)	(4.2)	(4.9)	(1.2)	(2.9)	(3.1)	
초회 보험료	상해	보험료	635	771	2,637	610	582	564
		증가율	(-0.6)	(6.5)	(1.8)	(-10.7)	(6.3)	(-11.1)
	운전자	보험료	164	135	570	179	175	168
		증가율	(-12.9)	(-12.5)	(-1.5)	(33.5)	(28.1)	(2.3)
	재물	보험료	268	292	1,185	299	333	335
		증가율	(5.5)	(6.8)	(17.6)	(-6.0)	(8.2)	(25.0)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계속 보험료	질병	보험료	627	649	2,469	733	544	615
		증가율	(12.5)	(5.1)	(6.5)	(20.7)	(-7.3)	(-1.8)
	저축성	보험료	3,544	2,757	14,657	2,145	2,212	2,521
		증가율	(-16.6)	(-28.8)	(-20.3)	(-56.1)	(-36.3)	(-28.9)
	통합형	보험료	12	9	68	6	80	61
증가율		(-79.0)	(-88.3)	(-75.3)	(-81.4)	(366.3)	(392.5)	
자산 연계형	보험료	0	0	0	0	0	0	
	증가율	(-)	(-)	(-)	(-)	(-)	(-)	
소계		보험료	5,249	4,612	21,585	3,971	3,925	4,264
		증가율	(-11.7)	(-19.3)	(-14.2)	(-40.3)	(-22.6)	(-18.8)
계속 손해보 험료	상해	보험료	32,801	33,816	129,919	34,808	35,636	36,033
		증가율	(11.7)	(11.9)	(12.2)	(11.5)	(11.0)	(9.9)
	운전자	보험료	6,977	7,112	27,757	7,211	7,397	7,553
		증가율	(8.4)	(7.2)	(8.2)	(6.3)	(7.5)	(8.3)
	재물	보험료	9,758	9,869	38,623	9,899	10,042	10,217
		증가율	(6.9)	(7.0)	(5.9)	(5.6)	(4.4)	(4.7)
	질병	보험료	27,550	28,553	108,138	29,520	30,346	31,362
		증가율	(16.6)	(16.8)	(16.8)	(16.0)	(14.1)	(13.8)
	저축성	보험료	21,716	20,776	89,993	20,094	18,940	17,894
		증가율	(-11.0)	(-12.9)	(-9.3)	(-18.4)	(-17.2)	(-17.6)
통합형	보험료	12,472	12,394	49,740	12,359	12,661	12,850	
	증가율	(1.2)	(0.8)	(1.4)	(-0.2)	(1.3)	(3.0)	
자산 연계형	보험료	8	8	46	7	7	7	
	증가율	(-79.3)	(-77.9)	(-70.4)	(-67.4)	(-12.4)	(-15.4)	
소계		보험료	111,281	112,528	444,215	113,898	115,029	115,916
		증가율	(5.7)	(5.5)	(6.0)	(3.7)	(4.0)	(4.1)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초회보험료는 1회 납입보험료를 의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3/4분기 장기손해보험 누적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3%p 개선된 7.9%를 기록함.

- 장기상해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1.1%p 감소한 7.6%를 기록함.
 - 이는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이 전년대비 11.8% 증가한 반면,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은 1.9% 감소했기 때문임.
- 장기저축성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4%p 감소한 6.5%를 기록함.
 - 이는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과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 모두 전년대비 각각 14.8%, 9.9% 감소하였으나,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임.
-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 해지율은 각각 1.2%p, 0.2%p 증가한 9.2%, 10.5%를 기록함.

- 이는 각 보험의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 증가율(22.5%, 20.6%)이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 증가율(6.3%, 19.1%)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 장기질병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한 6.9%를 기록함.
- 이는 전년대비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은 13.4% 증가한 반면 연초 보유계약액 및 신계약액은 11.2% 증가에 그쳤기 때문임.

〈표 20〉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3/4	4/4	1/4	2/4	3/4
상해	8.7	10.7	2.9	5.2	7.6
운전자	8.0	10.0	3.5	6.5	9.2
재물	10.3	13.1	4.1	7.5	10.5
질병	6.8	8.6	2.5	4.7	6.9
저축성	6.9	9.0	2.4	4.5	6.5
통합형	5.7	7.2	1.6	2.9	4.1
계	8.2	10.3	3.0	5.4	7.9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연금부문

- 2016년 3/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퇴직연금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0% 증가한 1조 5,946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은 2013년 3/4분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3/4분기도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한 9,599억 원을 기록함.
- 퇴직연금은 기저효과로 인해 2015년 4/4분기와 2016년 1/4분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6년 2/4분기는 60.3%로 상승하였고, 3/4분기에도 12.6% 증가한 6,347억 원으로 나타남.

〈표 21〉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1),2)}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개인 연금	보험료	9,994	10,137	40,211	9,796	9,696	9,599
	증가율	-2.0	-1.5	-2.1	-2.7	-3.2	-4.0
	구성비	63.9	20.3	38.7	51.5	6.9	60.2
퇴직 연금 ³⁾	보험료	5,639	39,918	63,668	9,227	12,571	6,347
	증가율	34.4	-10.1	-0.1	-10.2	60.3	12.6
	구성비	36.1	79.7	61.3	48.5	8.9	39.8
합계	보험료	15,633	50,055	103,879	19,023	22,267	15,946
	증가율	8.6	-8.5	-0.9	-6.5	24.7	2.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3)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자동차보험

■ 2016년 3/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한 4조 1,133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요율 인상, 대물배상 보장 확대 등에 기인함.

○ 대인배상 I 은 지속적인 감소세에서 벗어나 2016년 2/4분기 0.3% 증가한데 이어 3/4분기도 0.2% 증가하여 7,282억 원을 기록함.

- 이는 대인배상 I 보상기준을 상향한 자배법 시행령 개정¹⁸⁾으로 보험료가 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지난해 계속된 요율 인상과 대물배상 가입금액 상향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2.8% 늘어난 3조 1,740억 원을 기록함.

18)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2016. 4. 1 시행)”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시 보상한도를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재산 피해 발생 시 보상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함.

〈표 22〉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대인 I	7,269 (-7.9)	7,589 (-2.7)	29,855 (-4.2)	7,296 (-2.7)	7,527 (0.3)	7,282 (0.2)	
종합 보험	대인 II	4,125 (20.2)	4,538 (25.6)	16,292 (19.1)	4,495 (23.8)	4,991 (24.8)	5,328 (29.2)
	대물	13,217 (11.4)	14,423 (16.2)	52,966 (13.0)	14,359 (16.6)	15,362 (18.1)	15,459 (17.0)
	자차	9,072 (17.1)	9,648 (21.0)	36,261 (17.5)	9,574 (12.9)	9,533 (5.2)	9,142 (0.8)
	자손	1,464 (8.8)	1,583 (12.5)	5,877 (12.0)	1,487 (7.5)	1,542 (6.6)	1,533 (4.8)
	무보험	253 (8.5)	273 (16.3)	1,007 (10.4)	260 (12.5)	284 (13.6)	278 (9.9)
	소계	28,131 (14.2)	30,466 (18.8)	112,402 (15.2)	30,175 (15.9)	31,711 (14.2)	31,740 (12.8)
외화표시	28 (22.1)	2 (-96.2)	99 (-13.5)	1 (-97.8)	0 (-99.1)	0 (-100.0)	
기타	1,927 (12.5)	1,937 (13.9)	7,558 (13.7)	1,910 (10.2)	2,148 (9.5)	2,110 (9.5)	
합계	37,355 (9.0)	39,992 (13.7)	149,914 (10.7)	39,382 (11.6)	41,387 (11.1)	41,133 (10.1)	

주: 1)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구분란의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운전면허고급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원수보험료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3/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7.9%p 하락한 79.8%를 나타냄.

○ 대인배상 I 은 전년동기대비 3.0%p 상승한 77.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발생손해액이 3.3% 증가한 반면 경과보험료¹⁹⁾는 0.8% 감소하였기 때문임.

19)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책임기간인 보험연도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연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일부는 당해 사업연도로 귀속되고 나머지는 차기 사업연도로 이월됨. 여기서 이미 경과된 기간(보험회사의 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경과보험료(earned premium)라고 함.

- 종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2.0%p 하락한 79.7%를 나타냈는데, 이는 발생손해액이 0.6% 증가한 반면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 등으로 경과보험료가 15.7% 증가하였기 때문임.
- 대인배상Ⅱ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4.1%p 개선된 128.8%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발생손해액이 12.5% 증가하였음에도 경과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24.8%)하였기 때문임.

〈표 23〉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대인 I	74.3	85.3	73.7	68.7	74.9	77.3	
종합보험	대인 II	142.9	148.0	142.7	134.2	141.1	128.8
	대물	90.9	93.9	90.0	82.6	85.4	77.0
	자차	76.0	78.0	78.5	73.8	66.6	64.6
	자손	59.8	66.2	65.0	59.7	63.3	56.2
	무보험	71.1	84.0	88.0	72.9	81.0	38.0
	소계	91.7	95.1	92.5	86.0	86.4	79.7
외화표시	74.4	93.4	76.9	62.7	55.9	136.9	
기타	79.8	83.6	77.5	77.6	70.0	78.4	
합계	87.7	92.2	87.7	82.2	82.1	79.8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임.
 2) 구분란의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이륜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일반손해보험

■ 2016년 3/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1조 9,632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원수보험료 기준 일반손해보험의 61.4%를 차지하고 있는 특종보험의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임.

- 화재보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전분기에 비해 상승하면서 원수보험료가 693억 원으로 나타났고, 해상보험은 조선·해운업계 불황으로 13.9% 감소한 1,567억 원을 기록함.
- 보증보험도 상반기 감소세에서 벗어나 3/4분기에는 2.0% 증가한 3,787억 원을 나타냈음.

- 특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한 1조 2,053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분기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책임보험과 기타특종보험의 증가율이 하락²⁰⁾하였기 때문임.
- 한편, 비중이 작은 기술보험은 17.7% 감소하였으며, 비중이 큰 상해보험은 2.8%로 상승세를 보였고 가장 비중이 큰 종합보험도 1.7%²¹⁾로 상승세로 반전되었음.

〈표 24〉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화재	보험료	683	893	3,041	720	733	693
	증가율	-2.8	-1.3	-2.1	-1.2	-0.5	1.4
	구성비	3.5	4.2	3.7	3.3	3.3	3.5
해상	보험료	1,820	1,554	7,091	1,506	1,678	1,567
	증가율	-1.0	-15.1	-3.4	-19.9	-8.7	-13.9
	구성비	9.4	7.4	8.6	7.0	7.4	8.0
보증	보험료	3,713	4,150	15,816	3,884	4,017	3,787
	증가율	2.8	2.5	4.4	-0.4	-0.9	2.0
	구성비	19.2	19.7	19.1	18.0	17.8	19.3
특종	보험료	11,536	13,088	51,622	14,102	14,785	12,053
	증가율	0.0	2.3	3.3	5.7	8.3	4.5
	구성비	59.7	62.0	62.3	65.5	65.6	61.4
해외 원보험	보험료	1,557	1,413	5,309	1,318	1,329	1,531
	증가율	8.0	-9.3	-9.0	8.3	18.5	-1.7
	구성비	8.1	6.7	6.4	6.1	5.9	7.8
합계	보험료	19,309	21,098	82,879	21,530	22,543	19,632
	증가율	1.0	-0.2	1.8	2.2	5.3	1.7

주: 1)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0) 특종보험에는 책임보험, 기타특종보험, 종합보험 등이 포함되고 책임보험과 기타특종보험은 2/4분기 각각 23.7%, 26.7% 성장하였으나 3/4분기는 6.9%(1,999억 원), 17.1%(2,160억 원)로 성장세가 감소함.

21) 3/4분기 원수보험료는 기술보험 601억 원, 상해보험 3,536억 원, 종합보험 3,639억 원임.

〈시장점유율〉

■ 2016년 3/4분기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국내 중·소형사의 비중만 상승하고 나머지 그룹은 모두 하락하였음.

- 상위 4사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1.2%p 감소한 68.3%를 기록함.
- 국내 중·소형사와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3%p, 0.1%p 감소한 27.6%, 1.9%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사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2.2%를 나타냄.

■ 허핀달 지수는 전분기대비 2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도 33포인트 감소한 1,392를 기록함.

〈표 25〉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¹⁾

(단위: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상위 4사 ²⁾	69.5	69.6	68.9	69.0	69.1	68.3
국내 중·소형사 ²⁾	26.3	26.8	27.1	26.9	26.9	27.6
전업사 ³⁾	2.0	1.8	2.0	1.9	2.0	1.9
외국사 ³⁾	2.2	1.8	2.1	2.1	2.1	2.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허핀달 지수 ⁴⁾	1,425	1,410	1,395	1,417	1,415	1,392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상위 4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는 국내 온라인사를 포함한 8개 회사를 의미함.

3) 전업사는 보증보험사, 국내·외 재보험사 및 외국계 단종보험회사이며, 2016년 3/4분기부터(주한국해양보증을 포함함).

4)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1,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손해율과 사업비율

■ 2016년 3/4분기 손해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3.8%p 하락한 79.9%를 기록하였는데, 종목별로는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순으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0.2%p 감소한 83.9%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의 경우 발생손해액이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하였으나 경과보험료가 11.0% 증가하면서, 손해율은 7.9%p 하락한 79.8%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손해율은 16.8%p 개선된 58.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경과보험료 기준 56.7%를 차지하고 있는 특종보험의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6.1%p 하락²²⁾하였고, 보증보험 손해율도 0.7%p 하락²³⁾한 53.6%를 기록하는 등 모든 종목의 손해율이 개선되었기 때문임.

〈표 26〉 손해보험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¹⁾

(단위: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손 해 율	장기손해보험 ²⁾	84.1	84.5	84.8	85.2	84.1	83.9
	자동차보험	87.7	92.2	87.7	82.2	82.1	79.8
	일반손해보험	74.8	58.2	65.9	59.0	64.4	58.0
	화재보험	57.7	32.3	49.8	59.9	51.9	43.5
	해상보험	94.3	69.8	73.1	64.7	35.5	42.8
	보증보험	54.3	26.9	52.9	26.9	47.5	53.6
	특종보험	70.3	65.5	67.0	66.2	70.1	64.2
	해외원보험	235.2	15.5	114.7	75.4	85.8	105.8
	해외수재보험	76.1	72.7	65.7	61.7	66.0	39.6
	전체	83.7	82.9	83.1	81.6	81.3	79.9
사업비율	19.1	20.6	19.5	19.4	19.2	19.6	
합산비율	102.8	103.4	102.7	101.0	100.5	99.5	

주: 1) 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그리고 합산비율(손해율 + 사업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지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여기서 순사업비는 지급경비(급여와 임금, 손해조사비, 모집비, 수금비 등)에서 수입경비(출재보험 수수료, 출재이익 수수료 등)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고려한 재무손해율임.

3)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2) 경과보험료 8.8% 증가, 발생손해액 0.7% 감소.

23) 경과보험료 9.2% 증가, 발생손해액 7.9% 증가.

- 2016년 3/4분기 전체 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5%p 증가한 19.6%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하락함.²⁴⁾

- 2016년 3/4분기 합산비율의 경우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3.8%p 하락하고, 사업비율이 0.5%p 상승함에 따라 3.3%p 하락한 99.5%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은 각각 103.2%, 98.4%, 81.6%를 기록함.

24)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1.0%p 상승한 19.3%를 기록한 반면,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3%p, 1.0%p 감소한 18.5%, 23.5%를 기록함.

다. 판매채널

〈판매채널별 보험료 비중²⁵⁾〉

■ 2016년 3/4분기 임직원, 대리점, 중개사 채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보다 상승하였으나,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하락함.

- 임직원 채널과 대리점 채널, 그리고 중개사 채널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7%p, 1.4%p, 0.1%p 확대된 14.7%, 46.0%, 0.9%를 기록함.
- 설계사 채널과 방카슈랑스 채널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4%p, 2.0%p 축소된 28.0%, 9.9%를 기록함.

〈표 27〉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임직원	26,378 (14.0)	58,880 (25.8)	144,615 (18.0)	30,546 (15.4)	35,605 (17.4)	28,986 (14.7)
설계사	53,786 (28.4)	55,187 (24.2)	217,618 (27.1)	54,872 (27.7)	55,529 (27.1)	55,220 (28.0)
대리점	84,320 (44.6)	90,725 (39.7)	341,381 (42.5)	88,532 (44.8)	89,752 (43.7)	90,519 (46.0)
중개사	1,446 (0.8)	1,828 (0.8)	6,591 (0.8)	1,690 (0.9)	2,273 (1.1)	1,842 (0.9)
방카슈랑스	22,405 (11.9)	20,897 (9.2)	90,189 (11.2)	21,608 (10.9)	21,101 (10.3)	19,442 (9.9)
공동인수	496 (0.3)	773 (0.3)	2,095 (0.3)	561 (0.3)	895 (0.4)	885 (0.4)
전체	188,832 (100.0)	228,291 (100.0)	802,489 (100.0)	197,809 (100.0)	205,157 (100.0)	196,894 (100.0)

주: 1)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하는 분기기준 원수보험료 실적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5) 판매채널은 크게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로 구분되며, 최근 온라인 채널 등 새로운 채널도 등장하였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표 27〉과 같이 판매채널을 구분하여 원수보험료 비중을 제시함.

〈모집조직〉

■ 2016년 3/4분기 말 임직원과 설계사 모집조직의 수는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며, 대리점 모집조직 수는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200명 증가한 3만 2,501명을 기록함.
- 전속설계사가 166명 증가(0.2%)한 8만 2,885명이며, 교차설계사 수는 1,743명 증가(2.3%)한 7만 7,042명임.
- 전체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 수와 법인대리점 수가 모두 줄어들어 전분기대비 352개 감소 (-1.2%)한 2만 9,941개를 나타냄.

〈표 28〉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2015		2016		
	3/4	4/4	1/4	2/4	3/4
임직원(명)	32,679	32,343	32,511	32,301	32,501
설계사(명)					
- 전속	80,269	81,148	83,324	82,719	82,885
- 교차	75,501	75,448	76,330	75,299	77,042
대리점(개)	31,847	30,850	30,651	30,293	29,941
- 개인	21,264	20,884	20,793	20,542	20,350
- 법인	10,583	9,966	9,858	9,751	9,591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재무성과

〈자산〉

- 2016년 3/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자산이 모두 늘어나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247조 1,917억 원을 나타냄.
 - 일반계정 자산은 전분기대비 2.6% 늘어난 231.9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특별계정 자산은 전분기대비 1.9% 증가한 15.3조 원을 나타냄.
- 2016년 3/4분기 손해보험 총부채는 전분기대비 2.0% 증가한 211조 4,073억 원을 나타냈으며, 총자본은 전분기대비 5.5% 증가한 35조 7,844억 원을 나타냄.
 - 총부채의 경우 책임준비금과 기타부채, 특별계정 부채가 각각 전분기대비 2.3%, 0.5%, 0.7% 증가함.
 - 총자본의 경우 자본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각각 전분기대비 7.2%, 4.9%, 7.4%, 증가함.

〈표 29〉 손해보험산업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자산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총자산	금액	219.6	225.9	225.9	232.2	241.1	247.2
	증가율	3.5	2.9	12.8	2.8	3.8	2.5
일반계정 자산	금액	207.6	212.5	212.5	217.4	226.1	231.9
	증가율	3.5	2.3	11.2	2.3	4.0	2.6
특별계정 자산	금액	12.0	13.4	13.4	14.8	15.1	15.3
	증가율	2.9	12.0	46.1	9.8	2.0	1.9

주: 1) 분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연간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표 30〉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총자산	금액	219.6	225.9	225.9	232.2	241.1	247.2
	증가율	(3.5)	(2.9)	(12.8)	(2.8)	(3.8)	(2.5)
총부채	금액	190.3	196.6	196.6	201.6	207.2	211.4
	증가율	(3.4)	(3.3)	(13.4)	(2.5)	(2.8)	(2.0)
책임준비금	금액	165.0	169.0	169.0	173.2	178.1	182.1
	증가율	(3.1)	(2.4)	(12.5)	(2.5)	(2.8)	(2.3)
기타부채	금액	13.5	13.3	13.3	13.8	14.2	14.2
	증가율	(8.7)	(-1.7)	(11.2)	(3.9)	(2.5)	(0.5)
특별계정부채	금액	9.4	11.1	11.1	14.6	14.9	15.0
	증가율	(1.1)	(17.9)	(19.9)	(31.2)	(2.3)	(0.7)
총자본	금액	29.3	29.3	29.3	30.5	33.9	35.8
	증가율	(4.1)	(0.0)	(9.0)	(4.2)	(11.0)	(5.5)
자본금	금액	2.4	2.4	2.4	2.5	2.5	2.7
	증가율	(-4.8)	(2.0)	(2.6)	(2.1)	(0.3)	(7.2)
자본잉여금	금액	2.5	2.7	2.7	2.7	2.8	2.8
	증가율	(5.5)	(8.1)	(13.7)	(-1.3)	(4.6)	(0.0)
이익잉여금	금액	19.1	19.5	19.5	19.6	20.7	21.7
	증가율	(3.2)	(1.9)	(10.8)	(0.6)	(5.6)	(4.9)
자본조정	금액	-1.0	-1.3	-1.3	-1.4	-1.4	-1.4
	증가율	(-0.2)	(33.9)	(35.9)	(8.9)	(0.0)	(0.1)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금액	6.3	6.0	6.0	7.2	9.3	10.0
	증가율	(9.6)	(-4.6)	(8.5)	(20.4)	(29.7)	(7.4)

주: 1) 분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연간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수익·총비용〉

■ 2016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전년동기대비 62.8% 증가한 1조 5억 원 흑자를 기록함.

○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한 보험영업 적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5,760억 원 감소한 1,254억 원을 기록함.

○ 투자영업 이익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05억 원 감소한 1조 5,179억 원을 나타냄.

○ 한편,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B)은 전년동기 대비 61.8% 증가한 7,825억 원의 흑자를 기록함.

-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C)은 전년동기대비 32.0% 증가한 3조 290억 원 흑자를 기록함.

〈표 31〉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¹⁾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총수익	보험영업	17,941	18,301	71,562	18,139	18,507	18,813
	투자영업	3,013	1,640	9,040	2,624	2,168	3,123
	기타	382	1,424	2,741	452	413	420
	소계	21,336	21,365	83,343	21,215	21,088	22,355
총비용	보험영업 ²⁾	18,642	19,195	74,397	18,577	18,914	18,938
	투자영업	1,485	150	2,693	969	284	1,605
	기타	406	1,445	2,687	521	457	525
	소계	20,533	20,789	79,777	20,067	19,654	21,068
수지차	보험영업	-701	-894	-2,835	-438	-407	-125
	투자영업	1,528	1,490	6,347	1,655	1,884	1,518
	기타	-24	-21	54	-68	-44	-105
	소계	803	575	3,565	1,148	1,434	1,287
법인세		188	172	872	241	310	287
당기순이익(A) ³⁾		615	404	2,694	907	1,124	1,000
		(4.7)	(30.6)	(15.6)	(10.4)	(31.7)	(62.8)
당기순이익(B) ⁴⁾		484	189	1,910	681	808	783
		(7.3)	(2.2)	(15.0)	(11.5)	(28.9)	(61.8)
연간 기준 당기순이익(C) ⁵⁾		2,295	1,910	1,910	2,724	2,978	3,029
		(16.6)	(15.0)	(15.0)	(11.5)	(20.3)	(32.0)

주: 1) 기간별 수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 실적이고,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책임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함.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표에 있는 수지차는 이에 해당함.

4)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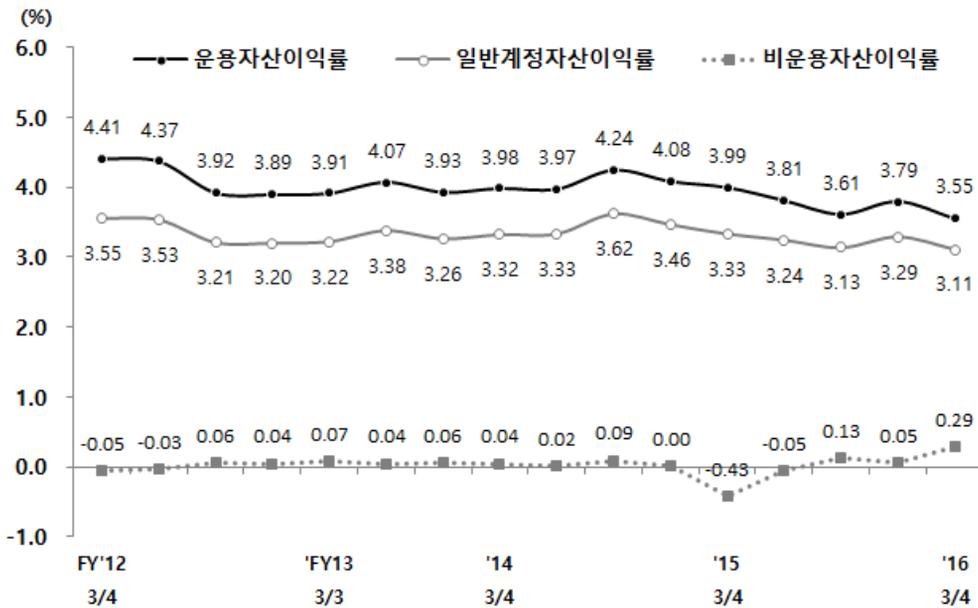
5)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7개 손해보험회사의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값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 2016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44%p 하락한 3.55%를 기록함.
- 현금과 예금이 2.77%p 하락한 1.00%를 기록하였으며, 유가증권도 0.54%p 하락한 3.52%를 기록함.
 - 유가증권 구성항목 중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익률이 각각 0.24%p, 0.72%p, 0.37%p 하락한 2.14%, 3.58%, 3.59%를 기록함.
- 대출채권 이익률은 0.30%p 하락한 4.01%를 나타냈으며, 부동산 이익률은 2.25%p 상승한 3.30%를 기록함.

〈그림 6〉 자산운용 이익률^{1),2)}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이익률과 비운용자산이익률을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6년 3/4분기 일반계정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7.77%, 대출채권 23.92%, 부동산 2.82%, 현금과 예금 2.58% 순으로 나타남.²⁶⁾

○ 현금과 예금, 부동산 비중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67%p, 0.30%p 하락하였으며, 유가증권과 대출채권 비중은 각각 1.91%p, 1.62%p 상승함.

〈표 32〉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및 이익률

(단위: %, 억 원)

구분	2015				2016					
	3/4		4/4		1/4		2/4		3/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0	3.33	100.00	3.24	100.00	3.13	100.00	3.29	100.00	3.11
운용자산 계	85.53	3.99	86.25	3.81	86.32	3.61	86.87	3.79	87.09	3.55
현금과 예금	4.25	3.77	4.27	2.96	3.39	1.97	3.02	2.30	2.58	1.00
유가증권	55.86	4.06	55.79	3.87	56.48	3.59	57.47	3.78	57.77	3.52
○ 당기손익인식증권	3.82	2.38	3.60	2.00	2.97	2.20	3.36	1.98	3.34	2.14
- 주식	0.08	8.05	0.05	2.91	0.05	4.58	0.04	-1.73	0.05	20.90
- 채권 등	1.85	2.43	1.66	2.04	1.53	3.20	1.50	3.26	1.36	2.77
- 수익증권	1.89	1.98	1.89	1.85	1.40	1.45	1.82	1.13	1.93	1.11
○ 매도가능증권	43.57	4.30	43.95	4.22	45.09	3.80	48.97	3.94	50.16	3.58
- 주식	2.71	1.41	2.73	1.03	2.75	7.15	2.51	10.48	2.61	5.33
- 채권 등	35.03	4.27	35.05	4.27	35.98	3.67	39.90	3.57	40.74	3.52
- 수익증권	5.84	6.03	6.17	5.62	6.37	3.11	6.56	3.49	6.81	3.24
○ 만기보유증권	6.76	3.96	6.80	3.57	7.01	3.10	3.98	3.84	3.28	3.59
- 채권 등	6.76	3.96	6.80	3.57	7.01	3.10	3.98	3.84	3.28	3.59
- 수익증권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72	2.34	1.43	0.20	1.41	2.38	1.15	2.51	0.98	4.99
대출채권	22.30	4.31	23.13	4.22	23.49	3.98	23.47	4.04	23.92	4.01
부동산	3.12	1.05	3.06	1.02	2.97	3.29	2.91	4.02	2.82	3.30
비운용자산	14.47	-0.43	13.75	-0.05	13.68	0.13	13.13	0.05	12.91	0.29
일반계정자산 규모	2,076,277		2,124,938		2,174,195		2,260,595		2,318,517	
일반계정자산 비중	(94.53)		(94.04)		(93.64)		(93.76)		(93.79)	
총자산 규모	2,196,330		2,259,351		2,321,807		2,411,112		2,471,917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이익률에 해당하는 이익은 분기별 누계실적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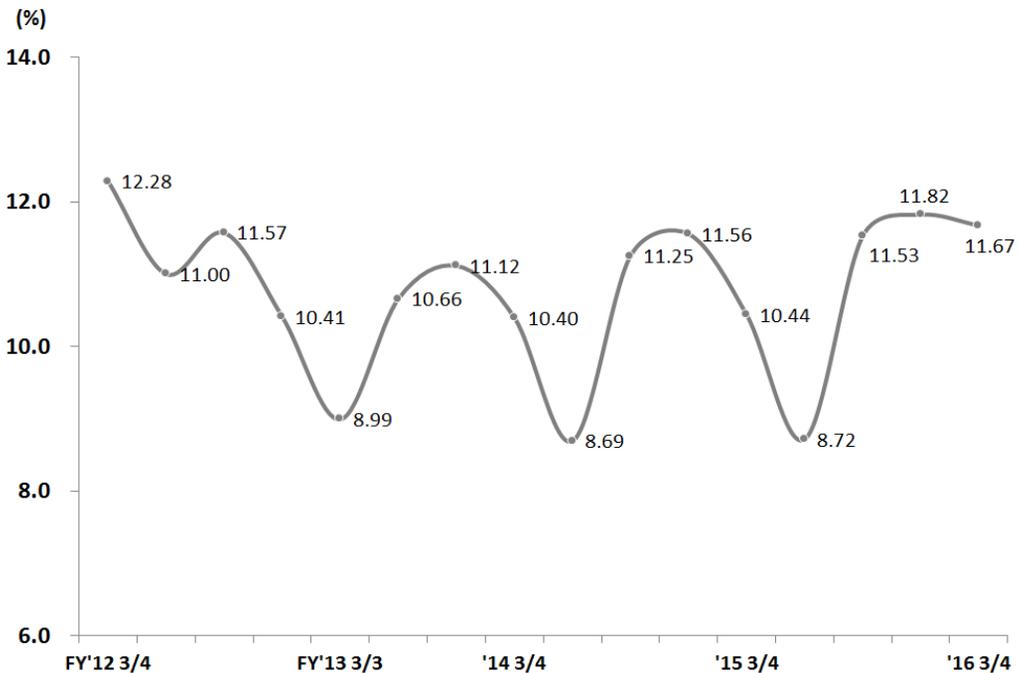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6)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본이익률(ROE)²⁷⁾>

- 2016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23%p 상승한 11.67%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의 총자본은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하였으며, 누적 당기순이익(C)은 전년동기 대비 32.0% 증가함.

<그림 7>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6년 3/4분기 손해보험회사 규모별 자본이익률은 대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중·소형사와 전업사는 전년동기대비 상승함.
- 대형사와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00%p, 4.79%p 하락한 8.59%와 18.87%를 기록함.
- 중·소형사와 전업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5.25%p와 16.97%p 개선된 24.38%와 12.27%를 기록함.

27)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E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17개 회사임.

〈표 33〉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¹⁾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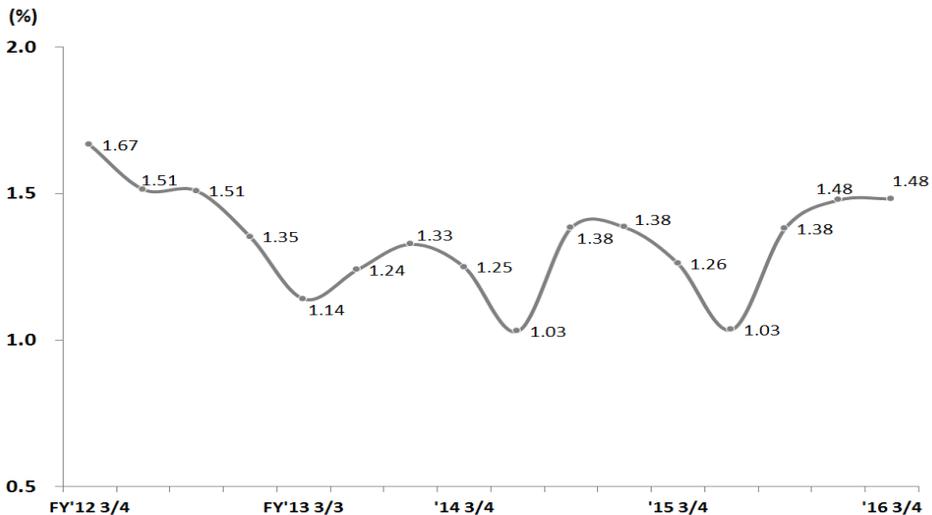
구분	2015		2016		
	3/4	4/4	1/4	2/4	3/4
대형사	10.59	8.98	11.46	9.26	8.59
중·소형사	9.13	7.95	9.73	21.30	24.38
외국사	23.66	19.69	21.61	23.32	18.87
전업사	-4.70	-17.70	20.87	14.72	12.27
전체	10.44	8.72	11.53	11.82	11.67

주: 1)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본, 기중자본 = ((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이익률(ROA)²⁸⁾〉

- 2016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2%p 상승한 1.48%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하였으며, 누적 당기순이익(C)은 전년동기 대비 32.0% 증가함.

〈그림 8〉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



주: 해당 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8)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산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R_t / A_t^o)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17개 회사임.

- 2016년 3/4분기 손해보험회사 규모별 자산이익률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는 하락하였고, 중·소형사와 전업사는 상승함.
- 대형사와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0.22%p, 1.58%p 하락한 1.18%, 8.38%를 기록함.
- 중·소형사와 전업사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38%p, 3.72%p 상승한 2.10%, 2.86%를 기록함.

〈표 34〉 손해보험산업 자산이익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3/4	4/4	1/4	2/4	3/4
대형사	1.40	1.16	1.49	1.25	1.18
중·소형사	0.72	0.62	0.78	1.84	2.10
외국사	9.96	8.22	9.51	10.35	8.38
전업사	-0.86	-3.09	4.56	3.34	2.86
전체	1.26	1.03	1.38	1.48	1.48

주: 1) 자산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연 기준 환산) / 기중자산, 기중자산 = ((전년도 말 자산 + 당기 말 자산) / 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Ⅲ. 해외보험 동향

- 중국을 제외한 해외 주요국의 생명보험시장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음.
 - 2016년 2/4분기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의 경우 중신보험(8.0%)의 성장세는 지속되었으나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감소세 지속으로 증가세가 둔화됨.
 - 개인연금의 경우 변액연금(-25.3%) 감소와 정액연금(30.2%) 증가 추세가 지속됨.
 - 2016년 3/4분기 영국의 신규보험료¹⁾는 연금 상품(-32.4%)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23.7% 감소함.
 - 보장성보험은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반면, 투자 및 저축성 보험, 연금 상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7%, 32.4% 감소함.
 - 일본의 경우 FY2016 2/4분기 신규가입금액²⁾은 개인연금보험(21.2%) 및 단체보험(20.7%)은 증가하였으나 개인보험(-3.9%)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함.
 - 2016년 3/4분기 중국 인보험³⁾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12.6%), 건강보험(81.3%) 및 상해보험(14.2%)의 증가세로 전년동기대비 24.4% 성장함.
- 2016년 상반기 일본과 미국의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성장세가 둔화됨.
 - 2016년 2/4분기 미국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3.0% 성장하였으나, 총보험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며 당기순이익은 35.3% 감소함.
 - 영국의 2015년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7.3% 증가하였고, 합산비율(97.8%)은 전년과 유사함.
 - 일본의 FY2016 2/4분기 원수보험료는 화재(-32.3%), 해상(-14.5%), 운송보험(-3.1%)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하였으나, FY2016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FY2015 상반기에 비해 126.6% 증가함.
 - 2016년 3/4분기 중국 손해보험 수입보험료⁴⁾는 자동차보험의 성장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함.

1)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2) 일본 보험산업은 일본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라 신규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그 성장성을 살펴보고 있음.
3)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1. 미국⁵⁾

가. 생명보험

- 2016년 2/4분기 생명보험시장 신규보험료 규모⁶⁾는 종신보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 성장함(〈표 1〉 참조).
 - 유니버셜보험⁷⁾은 Actuarial Guideline 49⁸⁾ 영향으로 인한 인덱스형 유니버셜보험(Indexed UL)⁹⁾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 감소함.
 - 변액유니버셜보험¹⁰⁾은 저금리 및 대통령 선거에 따른 주식 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함.
 - 정기보험¹¹⁾과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 8% 증가함.
- 2016년 2/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유니버셜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전년 말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정기보험은 전년 말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종신보험이 소폭 확대됨.
 - 생명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비중은 37%임.
 - 유니버셜보험은 전분기대비 1%p 하락하여 36%의 비중을 차지함.
 - 변액유니버셜보험과 정기보험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여 각각 6%, 21%의 비중을 차지함.

4) 중국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가 아닌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성장성을 살펴봄.
 5)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6) 미국 보험시장의 규모는 신규 연납화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되는데 연납화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의 10%와 정기납보험료의 합계임(연납화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7) 해약환급금으로부터 사업비를 공제하고, 사망률과 현재 이율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에 따라 보험료가 유연한 생명보험임.
 8) 다양한 인덱스형 유니버셜보험 상품을 비교 가능하게 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익률을 제시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보험회사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수익률 가이드라인으로, 인덱스형 유니버셜보험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예상수익률을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실성 있는 수익률을 제시하도록 함. 1단계로 2015년 9월부터 보험회사들이 제시할 수 있는 수익률의 상한선이 정해졌으며, 2단계로 올해 3월부터 용자 인출 스케줄상의 수익률을 제한함.
 9) 인덱스 지수와 연결된 유니버셜보험으로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해약환급금이 증가하지만 주가지수가 하락하여도 최저 보증금은 보증되는 상품임.
 10)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투자 성과에 따라 해약환급금 규모가 변경되는 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및 적립금 인출이 자유로운 보험임.
 11) 특정 연령까지 혹은 특정 기간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임.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7	13	11	-1	7	38	1	-1	36
변액유니버설	21	-15	2	-11	-3	7	-14	-12	6
정기	2	1	2	1	2	21	3	2	21
종신	9	12	9	9	9	34	11	8	37
계	8	8	8	1	6	100	4	2	100
연납화보험료	2,460	2,742	2,584	2,919	10,687		2,537	2,729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LIMRA(2016, 8), *U.S. Retail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나. 연금보험

- 2016년 2/4분기 개인연금 신규보험료의 경우 전년동기 기준으로 변액연금은 감소하고, 정액연금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한 584억 달러임(〈표 2〉 참고).
 - 변액연금¹²⁾은 전년동기대비 25.3% 감소한 269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정액연금¹³⁾은 전년동기대비 30.2% 증가한 315억 달러를 기록함.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변액연금	보험료	32.4	36.0	32.9	31.7	133.0	26.6	26.9
	증가율	-5.3	-0.6	-7.3	-7.3	-5.1	-17.9	-25.3
	비중	59.6	59.8	54.3	51.6	56.2	45.2	46.1
정액연금	보험료	22.0	24.2	37.7	29.7	103.6	32.3	31.5
	증가율	-8.3	-5.8	63.9	22.7	6.9	46.8	30.2
	비중	40.4	40.2	62.2	48.4	43.8	54.8	53.9
합계	보험료	54.4	60.2	60.6	61.4	236.6	58.9	58.4
	증가율	-6.5	-2.7	3.6	5.1	-0.2	8.3	-3.0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6, 8), *U.S. Individual Annuities*.

12) 변액연금 상품을 일부라도 포함한 모든 보험 상품을 일컬음.

13) 최저보증 이율이 보장되는 독립 상품으로 거치연금(deferred annuity),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 구조적 지급연금(structured settlements annuity) 등이 있음.

다. 소득보상보험

■ 2016년 2/4분기 소득보상보험¹⁴⁾ 신규보험료는 Guaranteed Renewable¹⁵⁾과 Non-cancellable¹⁶⁾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1억 3,330만 달러를 기록함.

○ Guaranteed Renewable은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한 5,300만 달러임.

○ Non-cancellable은 8,03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 성장함.

(표 3)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천 건,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계약 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수	108.6	79.6	74.7	115.3	378.2	93.9	85.3
		증가율	6.7	26.6	10.9	73.0	26.6	-13.6	7.2
		구성비	76.3	69.0	60.4	70.1	69.3	70.6	68.6
	Non-cancellable	건수	33.7	35.7	49.0	49.1	167.6	39.2	39.1
		증가율	3.8	1.2	12.7	12.0	8.0	16.2	9.4
		구성비	23.7	31.0	39.6	29.9	30.7	29.4	31.4
	전체	건수	142.4	115.3	123.7	164.4	545.8	133.1	124.4
		증가율	6.0	17.5	11.6	48.8	-2.4	-6.5	7.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 보험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63.8	53.0	41.8	69.1	227.7	55.4	53.0
		증가율	5.8	28.2	-6.0	57.5	-5.6	-13.2	0.1
		구성비	48.7	40.6	29.9	42.7	37.6	42.3	39.8
	Non-cancellable	보험료	67.2	77.5	97.9	92.7	335.3	75.5	80.3
		증가율	1.8	4.3	13.8	3.7	-0.7	12.4	3.6
		구성비	51.3	59.4	70.1	57.3	62.4	57.7	60.2
	전체	보험료	131.0	130.5	139.7	161.8	563.0	130.9	133.3
		증가율	3.7	12.9	7.0	21.5	-2.6	-0.1	2.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6, 8),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Sales*.

14)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업불능이 되었을 경우 소득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임.

15)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16)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라. 손해보험

- 2016년 2/4분기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한 1,34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발생 손해액은 96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함.
 - 원수손해율은 71.9%로 전년동기대비 3.4%p 상승함.

- 손해보험산업의 2016년 2/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5.3% 감소한 83억 달러임.
 - 총보험영업이익은 3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적자규모가 전년동기대비 31억 달러 증가한 수치임.
 - 총투자영업이익의 경우 투자영업이익과 실현자본이익이 모두 감소하며 전년동기대비 12.5% 줄어든 약 133억 달러임.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한 112억 달러임.
 - 실현자본이익은 2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8.4% 감소함.

- 2016년 2/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99.4%에서 약 2.7%p 상승한 102.1%로 악화됨.

- 2016년 2/4분기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7.6%에서 2.7%p 하락한 4.9%를 나타냄.

〈표 4〉 미국 손해보험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¹⁾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원수보험료	금액	126,101	130,586	135,994	121,282	513,963	130,075	134,498
	증가율	3.8	4.4	4.1	1.3	3.4	3.2	3.0
발생손해액	금액	81,928	89,399	88,701	90,204	350,232	87,090	96,684
	증가율	1.8	2.0	4.3	10.4	4.6	6.3	8.1
원수손해율		65.0	68.5	65.2	74.4	68.1	67.0	71.9
보험영업이익	금액	4,787	-415	4,021	2,832	11,225	2,917	-3,486
	증가율	58.4	-77.4	-4.3	-69.4	-23.3	-39.1	740.0
계약자 배당금	금액	723	258	271	1,252	2,504	753	265
	증가율	8.2	-2.6	5.9	1.0	3.7	4.1	2.7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4,085	-673	3,750	1,580	8,742	2,164	-3,751
	증가율	73.5	-68.0	-5.0	-80.3	-28.4	-47.0	457.4
투자영업이익	금액	11,658	11,734	11,457	12,379	47,228	10,893	11,179
	증가율	4.4	-0.7	0.2	4.0	1.9	-6.6	-4.7
실현자본이익	금액	4,687	3,500	680	545	9,412	2,284	2,156
	증가율	59.6	-17.7	-57.7	-62.8	-8.4	-51.3	-38.4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6,344	15,234	12,137	12,924	56,639	13,177	13,334
	증가율	15.9	-5.2	-7.0	-3.4	0.0	-19.4	-12.5
세전영업이익 ²⁾	금액	15,560	11,965	15,592	14,196	57,313	13,475	7,802
	증가율	13.0	17.9	21.0	-25.6	2.5	-13.4	-34.8
당기순이익	금액	18,138	12,834	13,062	12,588	56,622	13,313	8,304
	증가율	30.9	5.8	10.5	-30.3	1.3	-26.6	-35.3
자기자본 (Surplus) ³⁾	금액	671,900	672,439	663,868	673,686	673,686	676,256	680,638
	증가율	1.6	0.1	-1.6	-0.2	-0.2	0.6	1.2
지급준비금	금액	575,577	579,099	580,974	583,069	583,069	586,036	589,713
	증가율	0.3	0.1	0.3	1.3	1.3	1.8	1.8
자기자본이익률 ⁴⁾		10.8	7.6	7.8	7.5	8.4	7.9	4.9
합산비율		95.7	99.4	95.7	100.5	97.8	97.5	102.1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총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3)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사용되며, 보험계약자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값을 의미함.

4) 자기자본(surplus)에 대한 이익률로 rate of return on average surplus로 표기함.

자료: ISO(2016. 10), Property/Casualty Insurance Results: First-Half 2016.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이 존재하지 않아 민영건강보험이 발달해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의료공급조직(PP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등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건강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영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손해보험산업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를 중심으로 작성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3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2개사	97%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9개사	-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2. 영국¹⁷⁾

가. 생명보험¹⁸⁾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 2016년 3/4분기 생명보험 신규보험료¹⁹⁾는 전년동기대비 -23.7% 감소한 151억 7,257만 파운드임.
 -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한 2억 8,840만 파운드임.
 - 투자 및 저축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한 20억 4,835만 파운드를 기록함.
 - 연금 상품²⁰⁾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2.4% 감소한 99억 8,748만 파운드임.
 - 순수개인형연금(Individual Pension)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5.1% 감소하여 28억 6,109만 파운드임.
 - 단체개인형연금(Work-based Pension)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9.1% 감소한 18억 6,390만 파운드임.
 -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3.7% 감소한 52억 6,248만 파운드임.
- 2016년 3/4분기 퇴직소득보험²¹⁾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한 28억 4,835만 파운드임.

17)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18) 영국 손해보험은 연도별 자료만 있어, 분기별로는 생략됨.

19)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20) 연금 상품은 근로자와 연금사업자 간 개인계약(personal contract-based)인 개인연금과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며, 개인연금은 또 다시 개인의 보험료 부담형태에 따라 순수개인형(Individual Pension)과 단체개인형(Work-based Pension)으로 구분됨. 순수개인형연금은 보험료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Self-Invested Personal Pension) 등이 포함됨. 단체개인형연금은 보험료를 직장이 일정 부분 보조하는 형태로 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Group SIPP 등이 포함됨.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은 신탁에 근거한 연금으로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TIP(Trustee Investment Plan), Bulk Buyout 등이 포함됨.

21)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을 활용하여 소득흐름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일시납 형태만 있으며 종신연금(Pension Annuity),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표 5〉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

상품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보장성보험 (Protection)	금액	286.5	289.2	1,172.2	296.4	323.4	288.4
	증가율	-2.7	3.1	-0.6	0.8	6.9	0.6
	구성비	1.4	1.4	1.5	2.0	1.3	1.9
투자 및 저축성 상품 (Investments & Saving)	금액	2,105.4	2,164.3	8,169.0	2,104.9	2,171.8	2,048.4
	증가율	-8.3	1.5	-2.1	12.4	7.2	-2.7
	구성비	10.6	10.5	10.7	13.9	8.6	13.5
투자형 상품 (Investment)	금액	1,225.4	1,203.7	4,691.9	1,238.1	1,289.1	1,253.2
	증가율	4.7	-6.9	1.6	10.7	12.6	2.3
	구성비	6.2	5.8	6.1	8.2	5.1	8.3
역외영업 (Offshore)	금액	872.9	953.9	3,451.3	859.8	876.0	787.2
	증가율	-22.0	14.2	-7.0	15.0	-0.1	-9.8
	구성비	4.4	4.6	4.5	5.7	3.5	5.2
연금 상품 (Pension)	금액	14,770.7	15,727.4	57,858.5	10,327.8	19,859.7	9,987.5
	증가율	53.5	1.5	14.3	1.0	15.9	-32.4
	구성비	74.3	76.4	75.7	68.1	78.7	65.8
순수개인형 (Individual)	금액	3,370.0	3,307.5	13,381.1	3,207.6	2,988.6	2,861.1
	증가율	66.2	58.3	63.9	0.4	-14.8	-15.1
	구성비	16.9	16.1	17.5	21.2	11.8	18.9
단체개인형 (Work-Based)	금액	2,050.4	3,333.8	9,520.1	2,409.6	2,450.3	1,863.9
	증가율	1.1	45.3	0.9	23.5	12.1	-9.1
	구성비	10.3	16.2	12.4	15.9	9.7	12.3
퇴직연금 (Trust-based)	금액	9,350.3	9,086.2	34,957.3	4,710.6	14,420.9	5,262.5
	증가율	68.0	-18.2	5.9	-7.3	26.1	-43.7
	구성비	47.0	44.1	45.7	31.1	57.2	34.7
퇴직소득보험 (Retirement Income)	금액	2,724.9	2,415.6	9,271.2	2,426.0	2,876.5	2,848.3
	증가율	16.9	23.6	-6.3	32.1	25.4	4.5
	구성비	13.7	11.7	12.1	16.0	11.4	18.8
전체	금액	19,887.5	20,596.4	76,470.9	15,155.1	25,231.5	15,172.6
	증가율	36.8	3.7	9.2	6.5	16.0	-23.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6년 3/4분기 정기납 신규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 자문(independent advice)²²⁾이 가장 높았고, 無자문(non-advised),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²³⁾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정기납 판매 중 독립자문 채널 판매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7.7%p 감소한 67.9%를 기록하였음.
 - 종목별로는 개인연금(80.6%), 보장성보험(63.9%), 퇴직연금(25.1%), 투자 및 저축보험(12.2%) 순임.
 - 정기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3.7%p 증가한 13.7%를 기록하였음.
 - 종목별로는 보장성보험(20.3%), 개인연금(14.3%), 투자 및 저축보험(8.3%), 퇴직연금(5.6%) 순으로 나타남.
 - 無자문 채널의 정기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전년동기대비 9.3%p 증가한 18.4%로 나타났음.
 -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79.5%), 퇴직연금(69.3%), 보장성보험(15.8%), 개인연금(5.1%) 순임.

- 2016년 3/4분기 일시납 신규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은 독립 자문,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으로 나타남.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독립자문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4%p 감소한 64.2%임.
 - 종목별로는 보장성보험의 독립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 비중이 90.3%로 가장 높으며, 개인연금(83.9%), 투자 및 저축보험(80.0%), 퇴직연금(52.2%), 퇴직소득보험(47.7%) 순임.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 채널의 판매비중은 전년동기대비 4.4%p 증가한 14.1%임.
 - 종목별로 퇴직연금의 제한적 자문 채널 모집 비중이 19.2%로 가장 높으며, 투자 및 저축보험(18.1%), 퇴직소득보험(10.9%), 개인연금(7.5%), 보장성보험(1.2%) 순임.
 - 無자문 채널의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21.7%로 전년동기대비 2.0%p 감소함.

22) 독립적 자문(independent advice)은 상품공급업자에게 구속받지 않고 특정 시장의 전체 상품을 포괄적이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23) 제한적 자문(restricted advice)은 복수의 상품공급업자 상품을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종목별로는 퇴직연금과 퇴직소득보험의 경우 無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 비중이 각각 28.6%, 41.4%로 나타남.
- 투자 및 저축보험(1.9%), 개인연금(8.6%), 보장성보험(8.5%)의 경우 無자문 채널을 통한 모집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음.

〈표 6〉 2016년 3/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¹⁾ (Restricted Advice)		無자문 ²⁾ (Non-advised)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투자 및 저축보험	12.2	80.0	8.3	18.1	79.5	1.9
개인연금	80.6	83.9	14.3	7.5	5.1	8.6
퇴직연금	25.1	52.2	5.6	19.2	69.3	28.6
보장성보험	63.9	90.3	20.3	1.2	15.8	8.5
퇴직소득보험	-	47.7	-	10.9	-	41.4
전체 ³⁾	67.9	64.2	13.7	14.1	18.4	21.7

주: 1) 독립증개인(WoM), 단일 전속(Single Tied)과 다중 전속(Multi Tied) 설계사 포함.

2)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포함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3) 각 채널별 신규보험료를 합산하여 재계산함.

4) 비중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는 채널 파악이 안된 경우로 보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6년 3/4분기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신규보험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한 2억 4,197만 파운드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를 통한 정기납 보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7.0% 감소한 1,465만 파운드로 전체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의 6.1%를 차지함.

- 종목별로 보장성보험 판매가 4.7%, 개인연금 판매가 49.3% 감소하였음.

○ 방카슈랑스를 통한 일시납 보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한 2억 2,731만 파운드이며 방카슈랑스 채널의 93.9%를 차지함.

-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일시납 보험 상품 판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및 저축 보험이 6.3% 감소하였고,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역외영업 신규 판매는 감소추세로 전년동기대비 22.0%가 감소함.

- 방카슈랑스 채널의 일시납 상품 중 개인연금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55.3% 증가함.

〈표 7〉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방카슈랑스 판매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정기납						일시납					
	2015			2016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3/4	4/4	연간	1/4	2/4	3/4
투자 및 저축보험	0.1 (-500.0)	0.2 (56.0)	0.6 (-1.8)	0.1 (0.6)	0.1 (-27.5)	0.2 (112.2)	132.4 (4.7)	107.2 (-14.0)	469.8 (-1.2)	128.8 (9.2)	130.6 (16.3)	124.0 (-6.3)
개인연금	5.2 (-16.8)	4.3 (-37.1)	17.2 (-47.5)	4.2 (9.1)	3.2 (-18.7)	2.6 (-49.3)	10.9 (-41.0)	12.1 (-29.4)	56.9 (-40.7)	26.0 (55.0)	22.6 (32.2)	16.6 (55.3)
퇴직연금	- (-100.0)	- (-)	0.4 (943.6)	- (-100.0)	- (-100.0)	- (-)	- (-100.0)	- (-100.0)	2.6 (-97.5)	0.0 (-99.2)	- (-100.0)	0.0 (-)
역외영업	0.0 (-31.0)	0.0 (15.8)	0.2 (-17.8)	0.1 (39.4)	0.0 (20.9)	0.1 (85.8)	72.3 (2.5)	75.1 (4.1)	301.2 (-3.9)	46.7 (-25.5)	50.9 (-44.2)	56.4 (-22.0)
보장성보험	12.4 (-44.4)	12.1 (-29.0)	52.2 (-41.9)	11.6 (-28.0)	11.2 (-3.4)	11.8 (-4.7)	4.7 (15.8)	3.8 (8.8)	15.9 (-10.8)	3.5 (-5.6)	2.3 (-36.3)	4.1 (-12.0)
퇴직소득보험 ¹⁾	- (-)	- (-)	- (-)	- (-)	- (-)	- (-)	6.6 (-70.4)	8.4 (-46.0)	30.8 (-66.0)	8.3 (-8.3)	17.1 (151.9)	26.2 (297.4)
전체	17.7 (-38.1)	16.5 (-30.8)	70.5 (-42.8)	16.0 (-22.2)	14.6 (-7.5)	14.7 (-17.0)	226.8 (-8.2)	206.6 (-12.7)	877.2 (-20.1)	213.3 (1.5)	223.4 (-4.3)	227.3 (0.3)

주: 1) 별도 취합된 퇴직소득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를 합침.

2)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나. 손해보험²⁴⁾

■ 2015년 영국 손해보험 시장규모는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한 869억 9,539만 파운드임.

○ 재보험을 제외한 2015년 원수보험료는 641억 9,277만 파운드로 전년대비 7.5% 증가하였음.

■ 2015년 원수보험료는 전 종목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배상책임보험, 상해 및 질병보험, 자동차보험, 재보험, 재물책임보험, 재물보험, 해외 원보험 순임.

○ 종목별로 자동차보험이 8.6% 증가한 154억 5,981만 파운드, 재물보험이 2.5% 증가한 132억 3,703만 파운드, 상해 및 질병보험이 17.7% 증가한 70억 6,613만 파운드, 배상책임보험이 22.3% 증가한 77억 4,876만 파운드, 재물책임보험은 4.3% 증가한 50억 8,015만 파운드임.

○ 재보험은 전년대비 6.5% 증가한 228억 262만 파운드, 해외 원보험은 1.8% 증가한 156억 89만 파운드를 기록함.

〈표 8〉 영국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백만 파운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동차	13,584	14,569	15,060	14,516	14,239	15,460
재물	13,294	12,990	13,417	13,552	12,918	13,237
상해 및 질병	5,746	5,474	5,787	6,143	6,003	7,066
배상책임	6,283	5,937	6,362	6,116	6,336	7,749
재물책임	4,359	4,207	4,157	4,753	4,870	5,080
해외 원보험	11,981	12,552	14,075	14,718	15,323	15,601
소계	55,247	55,728	58,858	59,797	59,689	64,193
재보험	18,191	18,022	21,574	21,965	21,419	22,803
전체 합계	73,438	73,750	80,433	81,762	81,107	86,995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24) 영국보험협회는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에 대해서는 분기별 통계를 발표하지 않으며, 최근 2015년 연간 통계를 발표함에 따라 관련 통계를 게재함.

■ 2015년 손해보험의 합산비율은 97.8%로 전년대비 0.2%p 상승함.

- 2015년 손해율은 64.3%로 전년대비 0.9%p 감소하였고, 사업비율은 33.5%로 전년대비 1.1%p 증가함.

〈표 9〉 영국 손해보험 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손해율	73.8	66.6	68.3	65.5	65.2	64.3
사업비율	29.6	29.9	31.2	32.3	32.4	33.5
합산비율	103.4	96.5	99.5	97.8	97.6	97.8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5년 손해보험 판매채널 비중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여 직접판매 비중이 소폭 증가한 반면, 독립중개인, 방카슈랑스 비중은 감소함.

- 2015년 독립중개인을 통한 판매비중은 52.4%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이나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직접판매 비중은 28.3%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으며 전년대비 1.1%p 증가함.

〈표 10〉 영국 손해보험 판매채널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직접판매	전속대리점	독립중개인	방카슈랑스	기타
2005	22.0	5.3	53.4	18.0	1.3
2006	22.0	5.1	53.5	17.7	1.6
2007	22.5	7.3	53.3	15.8	1.0
2008	22.8	6.3	55.6	14.7	0.6
2009	24.5	6.4	56.0	12.4	0.7
2010	24.1	6.7	56.2	12.5	0.4
2011	27.5	4.7	54.2	12.9	0.6
2012	26.7	4.6	53.8	14.0	0.9
2013	26.9	4.5	52.6	14.0	2.0
2014	27.2	4.3	52.7	14.0	1.9
2015	28.3	4.3	52.4	13.2	1.8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 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역외영업의 경우 투자·저축성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표시하지 않음.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	순수개인형연금
Work-based Pension	단체개인형연금
Trust-based Pension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3. 일본25)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 FY2016 2/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10조 8,459억 엔으로 전년동기대비 9.3% 감소함.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입보험료가 모두 감소함.

■ FY2016 2/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11.5% 감소한 7조 5,023억 엔임.

○ 손해보험은 4.1% 증가하였으나 생명보험은 13.9% 감소함.

〈표 11〉 일본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단위: 억 엔, %)

구분	FY2015				FY2016		
	2/4	3/4	4/4	연간	1/4	2/4	
수입보험료	금액	119,632	110,667	122,707	468,118	109,948	108,459
	증가율 ¹⁾	4.6	-0.4	0.3	1.7	-4.5	-9.3
생명보험	금액	96,115	88,596	101,025	377,481	86,757	86,244
	증가율	3.5	-0.3	0.7	1.4	-5.4	-10.3
손해보험 ²⁾	금액	23,517	22,071	21,682	90,637	23,191	22,215
	증가율	9.6	-0.9	-1.3	2.7	-0.8	-5.5
지급보험금	금액	84,810	86,564	83,223	350,503	82,151	75,023
	증가율	-4.9	-11.3	15.2	-6.5	-14.3	-11.5
생명보험	금액	73,681	73,834	71,583	304,320	68,361	63,437
	증가율	-5.4	-14.2	-17.1	-7.3	-19.8	-13.9
손해보험	금액	11,129	12,730	11,640	46,183	13,790	11,586
	증가율	-1.3	10.8	-1.0	-1.1	29.1	4.1

주: 1) 전년동기대비.

2)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및 일본손해보험협회.

25)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나. 생명보험²⁶⁾

〈신규가입금액〉

■ FY2016 2/4분기 생명보험 신규가입금액의 경우 개인연금보험 및 단체보험이 증가하였지만 개인보험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한 20조 6,044억 엔을 기록함.

- 개인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한 17조 6,345억 엔을 기록함.
 - 사망보험의 경우 정기보험은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하였지만 종신보험은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인 양로보험(정기양로보험 포함)은 전년동기대비 24.0% 증가하였지만 기타 생사혼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0.9% 감소함.
 - 생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7.8% 감소한 3,307억 엔으로 집계됨.
- 개인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1.2% 늘어난 2조 3,131억 엔으로 나타남.
 - 정액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37.7% 증가하였지만 변액연금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2.9% 감소함.
- 단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0.7% 증가한 6,569억 엔을 기록함.
 -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²⁷⁾ 포함) 및 단체신용생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7%, 63.4% 증가함.

26) 일본 생명보험협회가 계약종목에 따라 분기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종목별 생명보험 변화 추이를 보여주기 위해 신규가입금액을 대상으로 분석함. 여기서 말하는 가입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는 일정금액(보험금)을 의미함.

27)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 사망 시 또는 고도장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을 말함.

〈표 12〉 일본 생명보험 신규가입금액

(단위: 억 엔, %)

구분 ¹⁾		FY2015				FY2016		
		2/4	3/4	4/4	연간	1/4	2/4	
개인	금액	183,457	183,689	187,809	732,560	172,701	176,345	
	증가율	5.6	3.2	3.2	4.8	-2.8	-3.9	
	구성비	88.2	87.6	81.7	85.7	86.1	85.6	
	사망	금액	153,820	152,514	155,898	609,932	139,443	144,838
		증가율	4.4	-0.1	-0.3	2.4	-5.6	-5.8
		구성비	74.0	72.7	67.8	71.4	69.5	70.3
	정기보험	금액	80,049	81,016	83,187	318,809	77,190	84,046
		증가율	2.1	1.1	3.2	2.5	3.5	5.0
	종신보험	금액	37,475	37,408	42,865	155,382	33,328	35,109
		증가율	2.1	-4.2	1.1	2.2	-11.4	-6.3
	생사혼합	금액	25,616	26,803	27,190	106,109	29,144	28,200
		증가율	18.5	27.6	27.7	25.3	10.0	10.1
		구성비	12.3	12.8	11.8	12.4	14.5	13.7
	양로보험 ²⁾	금액	12,128	12,659	12,979	49,886	15,944	15,035
		증가율	-3.1	13.7	13.4	6.6	31.5	24.0
기타	금액	11,475	12,125	12,194	48,138	11,105	11,368	
	증가율	42.7	40.6	44.3	45.1	-10.0	-0.9	
생존	금액	4,021	4,372	4,721	16,519	4,114	3,307	
	증가율	-15.4	3.5	6.9	-10.4	20.8	-17.8	
	구성비	1.9	2.1	2.1	1.9	2.1	1.6	
개인연금	금액	19,085	20,046	24,303	83,550	21,350	23,131	
	증가율	-11.8	-8.5	12.2	-3.5	6.1	21.2	
	구성비	9.2	9.6	10.6	9.8	10.6	11.2	
	정액연금	금액	15,185	16,741	21,659	69,648	19,207	20,903
		증가율	-11.1	-5.9	26.3	-0.5	19.6	37.7
	변액연금	금액	3,900	3,304	2,643	13,902	2,143	2,227
증가율		-14.6	-20.1	-41.3	-15.9	-47.1	-42.9	
단체보험	금액	5,441	6,026	17,886	38,736	6,488	6,569	
	증가율	1.1	33.1	73.2	26.6	-30.8	20.7	
	구성비	2.6	2.9	7.8	4.5	3.2	3.2	
	단체정기 ³⁾	금액	3,954	4,512	5,456	21,451	4,176	4,140
		증가율	-9.3	35.7	-38.3	2.7	-44.5	4.7
	단체신용생명	금액	1,487	1,514	12,431	17,284	2,312	2,429
증가율		45.8	25.9	739.4	77.8	24.8	63.4	
합계	금액	207,983	209,761	229,998	854,845	200,539	206,044	
	증가율	3.6	2.6	7.5	4.7	-3.2	-0.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생명보험 전체 실적대비 기준 구성비임.

2) 양로보험은 정기양로보험을 포함함.

3) 단체정기보험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을 포함함.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지급률〉

■ FY2016 2/4분기 생명보험 지급률은 73.6%로 전분기보다 5.2%p 하락함.

○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3% 감소한 8조 6,244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 대비 13.9% 감소한 6조 3,437억 엔을 나타냄.

〈표 13〉 일본 생명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FY2015				FY2016		
	1/4	2/4	3/4	4/4	1/4	2/4	
수입보험료	금액	91,745	96,115	88,596	101,025	86,757	86,244
	증가율 ¹⁾	1.8	3.5	-0.3	0.7	-5.4	-10.3
지급보험금	금액	85,222	73,681	73,834	71,583	68,361	63,437
	증가율	9.4	-5.4	-14.2	-17.1	-19.8	-13.9
지급률 ²⁾		92.9	76.7	83.3	70.9	78.8	73.6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운용〉

■ FY2016 2/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0.3% 증가한 367조 8,969억 엔을 기록함.

○ 현금 및 예금, 금전신탁, 부동산의 자산 규모는 전분기보다 각각 5.0%, 7.0%, 3.2% 증가함.

○ 반면, 단기자금, 매입금전채권, 대출금의 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29.5%, 15.9%, 0.9% 감소함.

○ 유가증권의 경우 국채와 지방채를 제외한 기타 유가증권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1.4% 증가한 301조 1,589억 엔을 나타냄.

- 국채와 지방채는 전분기대비 각각 0.5%, 0.1% 감소함.

- 회사채, 주식 및 외화증권은 전분기대비 각각 3.0%, 2.7%, 4.3% 증가함.

〈표 14〉 일본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2)}

(단위: 억 엔, %)

구분 ^{1),2)}	FY2015						FY2016			
	2/4		3/4		4/4		1/4		2/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51,574	17.8	46,986	-8.9	74,584	58.7	75,944	1.8	79,745	5.0
단기자금	42,912	44.9	46,569	8.5	12,809	-72.5	20,068	56.7	14,151	-29.5
매입금전채권	29,798	7.5	25,342	-15.0	24,572	-3.0	23,100	-6.0	19,419	-15.9
금전신탁	35,956	1.1	37,376	3.9	37,013	-1.0	36,780	-0.6	39,368	7.0
유가증권	2,978,104	-1.6	3,001,722	0.8	3,005,235	0.1	2,969,991	-1.2	3,011,589	1.4
- 국채	1,486,502	-0.3	1,475,890	-0.7	1,485,685	0.7	1,483,404	-0.2	1,476,101	-0.5
- 지방채	136,997	-0.2	135,144	-1.4	135,179	0.0	135,448	0.2	135,355	-0.1
- 회사채	248,621	1.6	249,038	0.2	253,635	1.8	254,478	0.3	262,224	3.0
- 주식	208,875	-12.0	225,713	8.1	198,130	-12.2	186,051	-6.1	191,161	2.7
- 외화증권	751,731	-1.4	766,972	2.0	786,532	2.6	766,658	-2.5	799,271	4.3
대출금	359,140	-1.6	357,548	-0.4	349,869	-2.1	346,025	-1.1	342,944	-0.9
부동산	62,538	0.0	62,361	-0.3	61,571	-1.3	59,251	-3.8	61,118	3.2
운용자산 ³⁾	3,594,161	-0.8	3,612,679	0.5	3,599,269	-0.4	3,588,750	-0.8	3,601,968	0.9
비운용자산	63,934	0.4	63,362	-0.9	72,410	14.3	100,891	39.3	77,001	-23.7
총자산 ⁴⁾	3,658,095	-0.8	3,676,041	0.5	3,671,679	-0.1	3,689,641	-0.1	3,678,969	0.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분기대비 증가율.

3)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4)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당기순이익, ROE, ROA〉

- FY2016 2/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한 3,527억 엔을 나타냄.
- 자본이익률은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6.4%를 기록함.
 - 자본은 22조 63억 엔으로 전분기에 비해 0.7% 감소함.
- 총자산이익률은 전분기와 같은 0.4%를 기록함.
 -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0.3% 증가한 367조 8,969억 엔을 기록함.

〈표 15〉 일본 생명보험 실적

(단위: 억 엔, %)

구분	FY2015				FY2016		
	1/4	2/4	3/4	4/4	1/4	2/4	
당기순이익	금액	4,978	3,393	3,388	1,625	3,421	3,527
	증가율 ¹⁾	5.9	-22.5	42.0	-58.0	-31.3	4.0
자본	금액	255,639	231,494	243,093	233,989	221,588	220,063
	증가율 ²⁾	-2.2	-9.4	5.0	-3.7	-5.3	-0.7
총자산	금액	3,686,683	3,658,094	3,676,042	3,671,679	3,669,641	3,678,969
	증가율 ²⁾	0.4	-0.8	0.5	-0.1	-0.1	0.3
자본이익률 ³⁾		7.8	5.9	5.6	2.8	6.2	6.4
총자산이익률 ³⁾		0.5	0.4	0.4	0.2	0.4	0.4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전분기대비 증가율.
 3) 연율화 수치.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FY2016 2/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한 2조 2,215억 엔으로 집계됨.
- 화재보험, 해상보험, 운송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2.3%, 14.5%, 3.1% 감소한 3,411억 엔, 462억 엔, 150억 엔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9,936억 엔으로 집계되었지만 자동차배상 책임보험은 2.5% 감소한 2,503억 엔으로 집계됨.
- 상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2,529억 엔을 나타냈으며 특종보험은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한 3,224억 엔을 기록함.

〈표 16〉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¹⁾

(단위: 억 엔, %)

구분 ^{2,3)}		FY2015				FY2016	
		2/4	3/4	4/4	연간	1/4	2/4
화재	보험료	5,038	3,712	3,386	15,913	3,437	3,411
	증가율	44.7	-10.3	-13.2	5.1	-9.0	-32.3
	구성비	21.4	16.8	15.6	17.6	14.8	15.4
해상	보험료	541	526	515	2,184	535	462
	증가율	0.4	-3.5	-10.1	-1.9	-11.2	-14.5
	구성비	2.3	2.4	2.4	2.4	2.3	2.1
운송	보험료	155	161	166	654	171	150
	증가율	2.0	2.5	3.8	1.9	-0.3	-3.1
	구성비	0.7	0.7	0.8	0.7	0.7	0.7
자동차	보험료	9,767	9,989	10,015	39,912	10,344	9,936
	증가율	3.7	2.8	2.5	3.3	2.0	1.7
	구성비	41.5	45.3	46.2	44.0	44.6	44.7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568	2,820	2,483	10,210	2,595	2,503
	증가율	3.3	11.2	-7.0	-0.8	-3.8	-2.5
	구성비	10.9	12.8	11.5	11.3	11.2	11.3
상해	보험료	2,467	2,402	2,237	9,995	2,802	2,529
	증가율	-6.7	-9.0	-1.3	-3.6	-3.0	2.5
	구성비	10.5	10.9	10.3	11.0	12.1	11.4
특종	보험료	2,981	2,820	2,881	11,770	3,306	3,224
	증가율	8.9	11.2	9.9	8.0	7.0	8.1
	구성비	12.7	12.8	13.3	13.0	14.3	14.5
합계	보험료	23,517	22,071	21,682	90,637	23,191	22,215
	증가율	9.6	-0.9	-1.3	2.7	-0.8	-5.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지급률〉

- FY2016 2/4분기 손해보험 지급률은 52.2%로 전분기보다 7.3%p 하락함.
-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한 2조 2,215억 엔을 기록함.
-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1조 1,586억 엔을 기록함.

〈표 17〉 일본 손해보험 지급률

(단위: 억 엔, %)

구분		FY2015				FY2016	
		1/4	2/4	3/4	4/4	1/4	2/4
원수보험료	금액	23,367	23,517	22,071	21,682	23,191	22,215
	증가율 ¹⁾	3.8	9.6	-0.9	-1.3	-0.8	-5.5
지급보험금	금액	10,684	11,129	12,730	11,640	13,790	11,586
	증가율	-12.1	-1.3	10.8	-1.0	29.1	4.1
지급률 ²⁾		45.7	47.3	57.7	53.7	59.5	52.2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지급률=지급보험금/원수보험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운용〉

- FY2016 2/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1.2% 증가한 30조 3,914억 엔으로 집계됨.
- 현금 및 예금, 환매조건부채권, 금전신탁, 대출금의 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24.3%, 60.3%, 9.6%, 7.1% 증가함.
- 반면, 단기자금, 매입금전채권, 부동산의 자산 규모는 전분기보다 각각 57.3%, 1.3%, 0.5% 감소함.
- 유가증권의 경우 국채와 지방채를 제외한 기타 유가증권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1.8% 증가한 22조 4,893억 엔으로 집계됨.
 - 국채와 지방채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2.3%, 2.9% 감소함.
 - 회사채, 주식, 외화증권, 기타증권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2.6%, 7.3%, 0.5%, 7.5% 증가함.

〈표 18〉 일본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5						FY2016			
	2/4		3/4		4/4		1/4		2/4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17,362	88.2	13,729	-20.9	17,034	24.1	14,905	-12.5	18,525	24.3
단기자금	8,627	95.1	6,402	-25.8	407	-93.6	2,415	493.4	1,032	-57.3
환매조건부채권	6,325	14.0	3,907	-38.2	1,130	-71.1	1,310	15.9	2,100	60.3
매입금전채권	2,508	-33.7	3,771	50.3	1,964	-47.9	2,073	5.5	2,045	-1.3
금전신탁	1,332	-4.2	1,387	4.1	1,994	43.8	1,890	-5.2	2,071	9.6
유가증권	220,908	-5.9	233,743	5.8	230,969	-1.2	220,815	-4.4	224,893	1.8
- 국채	57,996	-5.8	57,026	-1.7	58,935	3.3	58,694	-0.4	57,319	-2.3
- 지방채	3,001	-2.3	3,198	6.6	3,432	7.3	3,292	-4.1	3,196	-2.9
- 회사채	24,165	2.4	24,791	2.6	26,174	5.6	25,978	-0.7	26,647	2.6
- 주식	73,958	-12.3	78,245	5.8	66,767	-14.7	59,534	-10.8	63,861	7.3
- 외화증권	59,161	-0.7	67,865	14.7	73,029	7.6	70,998	-2.8	71,377	0.5
- 기타증권	2,627	2.7	2,616	-0.4	2,632	0.6	2,318	-11.9	2,492	7.5
대출금	15,142	-16.9	15,417	1.8	19,038	23.5	17,784	-6.6	19,043	7.1
부동산	9,702	-0.8	9,613	-0.9	9,491	-1.3	9,454	-0.4	9,405	-0.5
운용자산	281,908	-1.8	287,969	2.1	282,027	-2.1	270,645	-4.0	279,116	3.1
비운용자산 ²⁾	26,015	1.9	25,507	-2.0	26,472	3.8	29,650	12.0	24,798	-16.4
총자산	307,924	-1.5	313,476	1.8	308,500	-1.6	300,296	-2.7	303,914	1.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 전분기대비 증가율로서,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당기순이익, ROE, ROA〉

- FY2016 상반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26.6% 증가한 2,848억 엔을 나타냄.
- 자본이익률은 FY2015 하반기에 비해 4.6%p 하락한 8.4%를 기록함.
 - 자본은 FY2015 하반기에 비해 0.2% 감소한 6조 7,999억 엔을 기록함.
- 총자산이익률은 FY2015 하반기에 비해 1.0%p 하락한 1.9%를 기록함.
 - 총자산은 FY2015 하반기에 비해 1.5% 감소한 30조 3,914억 엔을 기록함.

〈표 19〉 일본 손해보험 실적¹⁾

(단위: 억 엔, %)

구분	FY2014		FY2015		FY2016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당기순이익	금액	2,632	1,156	1,257	4,442	2,848
	증가율 ²⁾	38.7	369.9	-52.2	284.3	126.6
자본	금액	65,408	74,277	68,331	68,160	67,999
	증가율 ³⁾	12.5	13.6	-8.0	-0.3	-0.2
총자산	금액	295,344	309,605	307,924	308,500	303,914
	증가율 ³⁾	2.1	4.8	-0.5	0.2	-1.5
자본이익률 ⁴⁾		8.0	3.1	3.7	13.0	8.4
총자산이익률 ⁴⁾		1.8	0.7	0.8	2.9	1.9

주: 1)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반기별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만을 발표하고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 전반기대비 증가율.
 4) 연율화 수치.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가입금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狀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會社資金運用狀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4. 중국²⁸⁾

가. 총괄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

- 2016년 3/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6,35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9.1% 증가함.
 -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6년 1/4분기 42.2%, 2/4분기 29.5%에 이어 하락하고 있음.
- 2016년 3/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21.0% 증가한 2,488억 위안임.
 - 인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크게 하락함.
- 2016년 3/4분기 사업비는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한 917억 위안으로 집계됨.

〈표 20〉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금액	5,277	5,338	5,242	24,283	11,979	6,834	6,355
	증가율 ²⁾	17.6	20.1	21.9	20.0	42.2	29.5	19.1
인보험	금액	3,238	3,445	3,158	16,288	9,825	4,686	4,287
	증가율	23.4	26.4	29.5	25.0	52.4	44.7	24.4
손해보험	금액	2,039	1,893	2,084	7,995	2,154	2,148	2,069
	증가율	9.3	10.1	12.0	11.0	8.9	5.3	9.3
지급보험금	금액	1,893	2,056	2,414	8,674	2,891	2,371	2,488
	증가율	13.2	20.5	22.0	20.2	25.1	25.3	21.0
인보험	금액	973	999	1,112	4,480	1,815	1,281	1,332
	증가율	22.7	28.4	33.6	30.7	29.9	31.7	33.4
손해보험	금액	920	1,058	1,302	4,194	1,076	1,090	1,156
	증가율	4.7	13.9	13.6	10.7	17.6	18.4	9.3
사업비	금액	794	811	1,033	3,337	838	930	917
	증가율	21.0	21.0	20.6	19.3	19.9	17.2	13.1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8)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국 보험산업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자산운용〉

- 2016년 3/4분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2.6% 증가한 14조 6,319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은 12조 8,286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2.1% 증가하였고,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5.9% 증가한 1조 8,033억 위안임.

- 예치금을 제외한 채권, 주식 및 주식형 펀드, 기타 자산은 모두 전분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치금은 2조 2,961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2.7%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16.5%에서 15.7%로 하락함.
 - 채권, 주식 및 주식형 펀드, 기타 자산은 각각 전분기대비 3.2%, 7.8%, 1.4% 증가한 4조 3,435억 위안, 1조 8,282억 위안, 4조 3,608억 위안을 기록함.
 - 채권, 주식 및 주식형 펀드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9.7%, 12.5%로 전분기에 비해 0.2%p, 0.6%p 상승하였으나 기타 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30.1%에서 29.8%로 하락함.

〈표 21〉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1),2)}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운용자산계	금액	103,685	103,935	111,795	111,795	119,943	125,629	128,286
	증가율 ³⁾	4.8	0.2	7.6	19.8	7.3	4.7	2.1
	구성비	90.7	89.9	90.5	90.5	86.6	88.1	87.7
예치금	금액	26,791	25,425	24,350	24,350	26,510	23,605	22,961
	증가율	1.5	-5.1	-4.2	-3.8	8.9	-11.0	-2.7
	구성비	23.4	22.0	19.7	19.7	19.1	16.5	15.7
채권	금액	35,532	36,197	38,446	38,446	40,392	42,078	43,435
	증가율	0.2	1.9	6.2	8.0	5.1	4.2	3.2
	구성비	31.3	31.3	31.1	31.1	29.2	29.5	29.7
주식 및 주식형 펀드	금액	15,386	13,745	16,969	16,969	16,821	16,959	18,282
	증가율	17.8	-10.7	23.5	64.3	-0.9	0.8	7.8
	구성비	13.5	11.9	13.7	13.7	12.1	11.9	12.5
기타 자산 ⁴⁾	금액	25,976	28,569	32,030	32,030	36,219	42,986	43,608
	증가율	8.1	10.0	12.1	45.1	13.1	18.7	1.4
	구성비	22.7	24.7	25.9	25.9	26.1	30.1	29.8
비운용자산계 ⁵⁾	금액	10,612	11,845	11,802	11,802	18,592	17,031	18,033
	증가율	8.7	11.6	-0.4	42.6	57.5	-8.4	5.9
	구성비	9.3	10.2	9.5	9.5	13.4	11.9	12.3
총자산	금액	114,297	115,780	123,598	123,598	138,535	142,661	146,319
	증가율	5.1	1.3	6.8	21.7	12.1	3.0	2.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분기대비.

4) 기타 자산은 부동산, 인프라시설 자산 등임.

5)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인보험²⁹⁾

〈수입보험료〉

■ 2016년 3/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4,287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4.4% 증가함.

○ 생명보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인보험 증가율이 하락함.

■ 2016년 3/4분기 생명보험,³⁰⁾ 건강보험³¹⁾ 및 상해보험의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한 3,023억 위안,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한 193억 위안이었음.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세금우대정책³²⁾으로 전년동기대비 81.3% 증가한 1,071억 위안을 기록함.

〈표 22〉 인보험 수입보험료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보험료	3,238	3,445	3,158	16,288	9,825	4,686	4,287
	증가율 ²⁾	23.4	26.4	29.5	25.0	52.4	44.7	24.4
생명보험	보험료	2,477	2,685	2,446	13,242	8,459	3,302	3,023
	증가율	19.1	21.2	22.4	21.5	50.2	33.3	12.6
건강보험	보험료	594	591	574	2,410	1,169	1,191	1,071
	증가율	48.1	60.8	75.6	51.9	79.3	100.4	81.3
상해보험	보험료	168	169	138	636	197	194	193
	증가율	18.3	18.1	21.0	17.1	22.2	15.4	14.2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9) 중국의 인보험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함.

30) 중국의 생명보험은 크게 전통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음. 배당금이 없는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 연금보험은 전통형 상품으로 통칭되며 투자형 상품은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 등이 해당됨.

31) 중국의 건강보험은 한국과 유사하며 의료보험, 질병보험, 소득보장보험, 간병보험 등이 있음.

32) 중국 정부는 2015년 8월부터 상업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개인에게 연간 2,400위안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함.

〈지급보험금〉

■ 2016년 3/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1,33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3.4% 증가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은 각각 1,036억 위안, 250억 위안, 4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4.5%, 34.5%, 9.7% 증가함.

〈표 23〉 인보험 지급보험금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보험금	973	999	1,112	4,480	1,815	1,281	1,332
	증가율 ²⁾	22.7	28.4	33.6	30.7	29.9	31.7	33.4
생명보험	보험금	778	771	822	3,565	1,544	1,031	1,036
	증가율	21.8	27.7	31.9	30.7	29.2	32.5	34.5
건강보험	보험금	162	186	247	763	227	210	250
	증가율	30.6	32.4	42.3	33.6	34.6	29.7	34.5
상해보험	보험금	34	42	43	152	44	41	46
	증가율	13.3	25.1	20.5	18.2	34.1	19.8	9.7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률〉

■ 2016년 3/4분기 인보험 지급률은 전분기 27.3%에서 31.1%로 상승함.

○ 생명보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지급률은 각각 34.3%, 23.3%, 24.1%인 것으로 집계됨.

〈표 24〉 인보험 지급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30.0	29.0	35.2	27.5	18.5	27.3	31.1
생명보험	31.4	28.7	33.6	26.9	18.2	31.2	34.3
건강보험	27.3	31.4	43.0	31.7	19.5	17.6	23.3
상해보험	20.2	25.0	30.9	23.9	22.5	21.0	24.1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6년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2/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상승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4.2%로 전분기에 비해 0.2%p 하락하였으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전분기 5.6%에서 5.8%로 상승함.
- 한편,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³³⁾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2.5%p 증가한 56.2%로 나타났으며,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Evergrande Life, AIA China, ICBC-AXA Life임.

〈표 25〉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사	57.2	53.6	46.6	55.6	51.2	53.7	56.2
		중·소형사 ³⁾	37.3	39.9	44.9	38.1	42.5	40.7	38.0
		소계	94.4	93.5	91.5	93.8	93.7	94.4	94.2
	외국계	5.6	6.5	8.5	6.2	6.3	5.6	5.8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33)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는 China Life, Ping An Life, Hexie Health Insurance, CPIC Life, New China Life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1%, 13.2%, 9.1%, 8.4%, 5.4%임(2016년 3/4분기 기준).

다.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³⁴⁾〉

- 2016년 3/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2,06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함.
- 2016년 3/4분기 손해보험 증가세의 확대는 자동차 판매량 급증³⁵⁾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26〉 손해보험 수입보험료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보험료	2,039	1,893	2,084	7,995	2,154	2,148	2,069
	증가율 ²⁾	9.3	10.1	12.0	11.0	8.9	5.3	9.3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 2016년 3/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1,156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함.

〈표 27〉 손해보험 지급보험금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보험금	920	1,058	1,302	4,194	1,076	1,090	1,156
	증가율 ²⁾	4.7	13.9	13.6	10.7	17.6	18.4	9.3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34) 중국은 원수보험료가 아니고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발표하고 있음.

35) 2016년 3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653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25.4% 증가하였는데 동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14.8%p 상승함.

〈지급률〉

■ 2016년 3/4분기 손해보험 지급률은 55.9%로 전분기에 비해 5.2%p 상승함.

〈표 28〉 손해보험 지급률¹⁾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45.1	55.9	62.5	52.5	49.9	50.7	55.9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6년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16년 2/4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데 반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소폭 하락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1%p 상승한 98.0%로 나타났으나,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전분기 2.1%에서 2.0%로 하락함.
- 한편,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상위 3사³⁾의 시장점유율은 63.4%로 전분기에 비해 0.7%p 상승하였으며,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AXA Tianping, AIG, Groupama AMC인 것으로 조사됨.

〈표 29〉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1),2)}

(단위: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4.2	64.3	62.6	64.0	64.5	62.7	63.4
		중·소형사 ³⁾	33.8	33.6	35.2	33.9	33.6	35.2	34.5
		소계	97.9	97.9	97.8	97.9	98.1	97.9	98.0
	외국계	2.1	2.1	2.2	2.1	1.9	2.1	2.0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36)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PICC P&C, Ping An P&C, CIPC P&C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4.3%, 18.7%, 10.5%임(2016년 3/4분기 기준).

라. 연금보험³⁷⁾

■ 2016년 3/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20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하였으며, 누적 운용보험료는 4,855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6.8% 증가함.

〈표 30〉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¹⁾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5				2016			
	2/4	3/4	4/4	연간	1/4	2/4	3/4	
수탁보험료 ²⁾	금액	248	166	204	874	264	214	204
	증가율 ²⁾	75.9	25.3	21.9	44.1	3.2	-13.6	22.8
누적 운용보험료	금액	3,837	3,881	4,169	4,169	4,323	4,545	4,855
	증가율 ³⁾	10.3	1.2	7.4	31.9	3.7	5.1	6.8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3) 전분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37) 중국은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을 도입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연금보험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연금보험회사를 정식으로 허용함. 현재까지 중국 내에 설립된 연금보험회사는 타이핑, 평안, 런쇼우, 장장, 타이강 등 5개 회사임.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한국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産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産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투자형 상품인 배당형 상품, 투자연계형 상품, 유니버설 상품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형 상품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産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신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부 록. 통계표

〈부록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4/4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성장률	2.7	2.4	2.2	2.8	3.1	2.8	3.2	2.6	
경상수지 ³⁾	26,451	23,222	26,951	28,246	27,520	25,350	26,337	21,510	
수출 ⁴⁾	152,724	131,427	142,086	133,550	135,818	118,316	128,243	127,558	
수입 ⁴⁾	127,587	106,911	108,419	102,231	103,051	89,362	94,709	99,290	
실업률	3.2	4.1	3.8	3.4	3.1	4.3	3.8	3.6	
금리	국고채(3년)	2.17	1.98	1.80	1.72	1.70	1.53	1.42	1.26
	회사채(3년)	2.51	2.26	2.04	1.98	2.07	2.01	1.88	1.67
소비자물가지수 ⁵⁾	108.90	109.37	109.71	110.10	110.06	110.49	110.65	110.95	
환율	원/달러	1,086.72	1,100.26	1,097.77	1,167.80	1,157.69	1,201.44	1,163.30	1,121.37
	원/엔화	949.95	923.39	904.73	955.75	953.07	1,042.81	1,076.07	1,095.01
KOSPI	1,948.13	1,964.87	2,095.29	1,983.39	1,999.03	1,926.92	1,979.91	2,026.89	
외환보유고	363,593	362,750	374,749	368,114	367,962	369,840	369,890	377,770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임.

3)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 수지를 모두 합한 값임.

4) 상품 수출 및 수입을 의미함.

5) 2010=100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부록 표 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수입보험료	61,327 (4.3)	61,482 (-2.3)	246,848 (2.7)	57,044 (-9.3)	53,563 (-12.4)	52,363 (-14.6)
	초회보험료 ²⁾	15,071 (-1.3)	14,238 (-18.4)	62,198 (-6.7)	11,565 (-34.5)	8,542 (-44.0)	7,872 (-47.8)
	계속보험료 ³⁾	46,256 (6.3)	47,244 (3.9)	184,650 (6.3)	45,479 (0.5)	45,021 (-1.9)	44,491 (-3.8)
사망	수입보험료	90,538 (8.9)	92,349 (8.3)	360,361 (8.6)	96,491 (8.4)	95,863 (8.4)	96,798 (6.9)
	초회보험료	5,346 (105.3)	4,479 (20.5)	20,272 (89.1)	7,470 (16.1)	4,252 (5.9)	4,082 (-23.6)
	계속보험료	85,191 (5.8)	87,871 (7.8)	340,089 (5.9)	89,022 (7.8)	91,611 (8.5)	92,716 (8.8)
생사 혼합	수입보험료	51,152 (4.0)	57,187 (16.6)	213,771 (6.6)	66,400 (27.9)	56,050 (4.8)	56,533 (10.5)
	초회보험료	8,719 (-12.3)	12,015 (34.5)	43,169 (-2.3)	22,310 (91.9)	13,059 (20.8)	12,424 (42.5)
	계속보험료	42,433 (8.2)	45,172 (12.6)	170,602 (9.1)	44,090 (9.4)	42,990 (0.7)	44,109 (3.9)
변액 보험	수입보험료	52,629 (2.0)	49,140 (-5.4)	206,431 (-0.1)	48,231 (-5.7)	48,052 (-10.2)	49,786 (-5.4)
	초회보험료	4,168 (47.8)	2,377 (-5.1)	12,831 (22.8)	2,152 (-8.1)	2,624 (-33.5)	4,380 (5.1)
	계속보험료	48,461 (-0.7)	46,763 (-5.4)	193,600 (-1.4)	46,079 (-5.5)	45,428 (-8.4)	45,406 (-6.3)
개 인 계	수입보험료	255,646 (5.3)	260,158 (4.4)	1,027,412 (4.9)	268,166 (5.2)	253,528 (-1.2)	255,479 (-0.1)
	초회보험료	33,304 (8.7)	33,109 (1.6)	138,470 (4.9)	43,497 (14.3)	28,477 (-16.3)	28,757 (-13.7)
	계속보험료	222,342 (4.8)	227,049 (4.9)	888,942 (4.9)	224,669 (3.6)	225,051 (1.1)	226,722 (2.0)
일반 단체	수입보험료	1,879 (-6.0)	1,845 (-1.7)	7,735 (-5.1)	2,120 (0.7)	1,902 (-0.2)	1,794 (-4.5)
	초회보험료	289 (1.5)	255 (19.0)	1,281 (1.2)	552 (15.1)	306 (18.3)	258 (-10.6)
	계속보험료	1,590 (-7.3)	1,590 (-4.4)	6,454 (-6.3)	1,568 (-3.5)	1,597 (-3.1)	1,536 (-3.4)
퇴직 연금	수입보험료	14,100 (29.9)	86,626 (12.9)	136,990 (15.9)	19,647 (20.7)	27,852 (39.3)	16,027 (13.7)
	초회보험료	4,317 (-5.1)	28,858 (-14.5)	43,436 (-15.5)	4,400 (-30.6)	5,094 (29.8)	3,295 (-23.7)
	계속보험료	9,783 (55.1)	57,768 (34.3)	93,553 (40.0)	15,247 (53.4)	22,758 (41.7)	12,731 (30.1)
단 체 계 ³⁾	수입보험료	15,979 (24.3)	88,471 (12.5)	144,725 (14.5)	21,767 (18.4)	29,755 (35.9)	17,821 (11.5)
	초회보험료	4,606 (-4.7)	29,112 (-14.3)	44,717 (-15.1)	4,952 (-27.4)	5,400 (29.1)	3,553 (-22.9)
	계속보험료	11,373 (41.8)	59,359 (32.9)	100,008 (35.7)	16,815 (45.4)	24,355 (37.5)	14,267 (25.5)
합계	수입보험료	271,624 (6.3)	348,629 (6.4)	1,172,137 (6.0)	289,933 (6.1)	283,283 (1.7)	273,300 (0.6)
	초회보험료	37,910 (6.9)	62,221 (-6.5)	183,187 (-0.8)	48,449 (8.0)	33,877 (-11.3)	32,311 (-14.8)
	계속보험료	233,715 (6.2)	286,408 (9.6)	988,950 (7.4)	241,484 (5.7)	249,406 (3.8)	240,989 (3.1)

주: 1)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1회 납입 보험료를 의미함.

3) 단체보험에는 일반단체보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 이후 퇴직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퇴직연금 의무 가입의 실시로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 작성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1,2)}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35,582	38,160	142,048	37,057	37,199	37,752
	증가율	14.7	13.7	13.3	9.7	7.7	6.1
	지급률	58.0	62.1	57.5	65.0	69.4	72.1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42,408	44,450	174,183	47,084	45,866	46,046
	증가율	-0.7	2.0	0.6	4.7	8.3	8.6
	지급률	46.8	48.1	48.3	48.8	47.8	47.6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27,718	27,589	117,682	31,838	31,452	31,724
	증가율	-5.0	-3.2	-2.4	-2.6	6.0	14.5
	지급률	54.2	48.2	55.1	47.9	56.1	56.1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29,418	30,828	130,736	29,813	35,077	37,052
	증가율	-12.4	4.1	4.6	-10.4	-5.7	26.0
	지급률	55.9	62.7	63.3	61.8	73.0	74.4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135,126	141,028	564,649	145,792	149,594	152,574
	증가율	-1.0	4.3	3.8	0.7	4.0	12.9
	지급률	52.9	54.2	55.0	54.4	59.0	59.7
일반 단체	지급보험금	2,046	2,136	8,853	2,317	2,030	2,025
	증가율	-25.2	-0.5	-10.6	-4.6	-9.5	-1.0
	지급률	108.9	115.7	114.5	109.3	106.7	112.9
퇴직 연금	지급보험금	13,083	43,375	96,222	21,620	17,432	16,925
	증가율	10.3	77.0	40.4	1.1	-5.2	29.4
	지급률	92.8	50.1	70.2	110.0	62.6	105.6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15,129	45,511	105,075	23,937	19,462	18,950
	증가율	3.7	70.8	33.9	0.6	-5.7	25.3
	지급률	94.7	51.4	72.6	110.0	65.4	106.3
전체	지급보험금	150,255	186,539	669,724	169,728	169,056	171,524
	증가율	-0.5	15.2	7.6	0.7	2.8	14.2
	지급률	55.3	53.5	57.1	58.5	59.7	62.8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1),2),3),4)}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	사업비	7,433	7,490	30,454	6,444	6,237	5,944
	증가율	-1.8	-11.7	-4.0	-18.5	-18.2	-20.0
	사업비율	12.1	12.2	12.3	11.3	11.6	11.4
사망 보험	사업비	26,518	28,422	105,786	27,327	27,238	27,924
	증가율	9.1	3.2	4.6	8.3	6.4	5.3
	사업비율	29.3	30.8	29.4	28.3	28.4	28.8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3,799	3,933	15,811	3,721	3,430	3,392
	증가율	-13.6	-13.5	-11.3	-9.3	-13.8	-10.7
	사업비율	7.4	6.9	7.4	5.6	6.1	6.0
개인 보험계	사업비	37,750	39,844	152,050	37,492	36,905	37,260
	증가율	4.1	-1.8	0.9	0.7	-0.8	-1.3
	사업비율	14.8	15.3	14.8	14.0	14.6	14.6
단체 보험계	사업비	980	1,060	3,985	295	1,003	1,037
	증가율	-1.4	-5.9	-10.4	-70.1	4.7	5.8
	사업비율	6.1	1.2	2.8	1.4	3.4	5.8
전체	사업비	38,731	40,904	156,035	37,787	37,908	38,297
	증가율	4.0	-1.9	0.6	-1.2	-0.7	-1.1
	사업비율	14.3	11.7	13.3	13.0	13.4	14.0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임.

4)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5〉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¹⁾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3/4	4/4	연간	1/4	2/4	3/4
화재	보험료	683	893	3,041	720	733	693
	증가율	-2.8	-1.3	-2.1	-1.2	-0.5	1.4
	구성비	0.4	0.4	0.4	0.4	0.4	0.4
해상	보험료	1,820	1,554	7,091	1,506	1,678	1,567
	증가율	-1.0	-15.1	-3.4	-19.9	-8.7	-13.9
	구성비	1.0	0.7	0.9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37,355	39,992	149,914	39,382	41,387	41,133
	증가율	9.0	13.7	10.7	11.6	11.1	10.1
	구성비	19.8	17.5	18.7	19.9	20.2	20.9
보증	보험료	3,713	4,150	15,816	3,884	4,017	3,787
	증가율	2.8	2.5	4.4	-0.4	-0.9	2.0
	구성비	2.0	1.8	2.0	2.0	2.0	1.9
특종 ²⁾	보험료	11,536	13,088	51,622	14,102	14,785	12,053
	증가율	0.0	2.3	3.3	5.7	8.3	4.5
	구성비	6.1	5.7	6.4	7.1	7.2	6.1
해외 원보험	보험료	1,557	1,413	5,309	1,318	1,329	1,531
	증가율	8.0	-9.3	-9.0	8.3	18.5	-1.7
	구성비	0.8	0.6	0.7	0.7	0.6	0.8
장기 손해	보험료	116,554	117,116	465,801	117,868	118,954	120,179
	증가율	4.8	4.2	4.9	1.2	2.9	3.1
	구성비	61.7	51.3	58.0	59.6	58.0	61.0
개인 연금	보험료	9,994	10,137	40,211	9,796	9,696	9,599
	증가율	-2.0	-1.5	-2.1	-2.7	-3.2	-4.0
	구성비	5.3	4.4	5.0	5.0	4.7	4.9
퇴직 연금	보험료	5,639	39,918	63,668	9,227	12,571	6,347
	증가율	34.4	-10.1	-0.1	-10.2	60.3	12.6
	구성비	0.0	0.0	0.0	0.0	0.0	3.2
계	보험료	188,851	228,261	802,473	197,804	205,152	196,890
	증가율	5.5	2.2	4.8	2.4	6.8	4.3

주: 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임.

2)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고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¹⁾²⁾

(단위: %)

구분		2015		2016		
		3/4	4/4	1/4	2/4	3/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57.7	32.3	59.9	51.9	43.5
	사업비율	48.2	50.4	48.6	43.8	43.8
	합산비율	105.9	82.7	108.6	95.7	87.3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94.3	69.8	64.7	35.5	42.8
	사업비율	30.2	45.5	32.8	29.0	35.1
	합산비율	124.5	115.3	97.5	64.5	77.9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54.3	26.9	26.9	47.5	53.6
	사업비율	17.8	21.3	15.2	18.8	17.7
	합산비율	72.0	48.2	42.1	66.3	71.3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70.3	65.5	66.2	70.1	64.2
	사업비율	21.1	20.2	18.1	15.5	19.5
	합산비율	91.4	85.7	84.3	85.6	83.7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235.2	15.5	75.4	85.8	105.8
	사업비율	38.4	69.3	57.8	52.4	37.3
	합산비율	273.6	84.8	133.2	138.2	143.1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76.1	72.7	61.7	66.0	39.6
	사업비율	31.1	30.4	34.2	33.0	32.2
	합산비율	107.3	103.1	95.9	99.0	71.8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87.7	92.2	82.2	82.1	79.8
	사업비율	18.9	19.2	18.3	18.4	18.5
	합산비율	106.6	111.4	100.5	100.5	98.4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³⁾	84.1	84.5	85.2	84.1	83.9
	사업비율	18.3	20.1	19.0	19.0	19.3
	합산비율	102.4	104.6	104.2	103.1	103.2
전체	경과손해율	83.7	82.9	81.6	81.3	79.9
	사업비율	19.1	20.6	19.4	19.2	19.6
	합산비율	102.8	103.4	101.0	100.5	99.5

주: 1)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경과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

-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고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영문발간물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운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300,000원	150,000원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113, 9080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6년 겨울호 (통권 80호)

발행일	2017년 1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6년 10월 7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40)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7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